

2022

2022 ARKO 수시연구 2022-01

#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의 생태계 진단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 다원예술의 생태계 진단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KO 수시연구 2022-01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 다원예술의 생태계 진단 및  
지원방안 연구**

**2022. 12**



# 제출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 다원예술의 생태계 진단 및 지원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주 관 기 관 : (주)메타기획컨설팅  
연구 책임자 : 최도인(주)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참여 연구원 : 성연주(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강희정(주)메타기획컨설팅 실장  
방 현(주)메타기획컨설팅 주임  
김호정(주)메타기획컨설팅 전임  
김윤지(주)메타기획컨설팅 협력 컨설턴트  
김시윤(주)메타기획컨설팅 리서처



## 연구 요약

### 블랙리스트 이후

### 한국 다원예술의 생태계 진단 및 지원방안 연구

#### ■ 연구 배경

- 2015년 블랙리스트 이후 중단되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이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로 복원되었으나, 중단된 시점부터 복원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다원예술 현장에서 있었던 흐름과 생태계 현황에 대한 연구조사는 부족한 상황임
- 다원예술은 2000년대 초에 예술 현장의 정책 요구와 수용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동시대 예술 현장의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정의가 내려지는 특징을 갖고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이 중단된 기간에 한국 사회와 예술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원예술 현장의 현재적 의미와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원예술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다원예술의 현재적 가치를 확인하고, 다원예술 지원의 정당성을 도출하여 동시대 다원예술 현장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 연구 목적

- 국내에서 다원예술 개념의 등장과 문화예술 지원체계 내에서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의미와 역할을 통시적 정책적 흐름에서 검토하며 한국 예술계에서 다원예술의 위상을 고찰
- 다원예술 예술가, 행정가,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동시대 다원예술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다원예술 현재성을 도출하고 생태계를 진단, 분석
- 다원예술 분야의 태동과 발전과정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역할을 살펴보고, 새로운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
- 다원예술 생태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도출과 전략과제 수립

#### ■ 연구 추진 방법

- 이 연구는 문헌조사, 선행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 신청서 분석,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사례조사로 나누어 진행함
  - (문헌조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등장과 지원제도로의 정착 과정, 2015년 블랙리스트 이후 지원정책의 중단과 2021년 리부트 복원 등의 과정을 개괄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체계 내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위상을 확인하고, 국내 문화정책의 흐름 속에서 다원예술을 고찰함
  - (선행연구) 2006년, 2007년, 2008년, 2013년 다원예술 정책 보고서를 선행자료로 검토함
  - (메타분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2021년-2022년 신청서에서 예술가가 자기정의한 다원예술 정의에 대해 질적 분석을 실시하고, 2021-2022년 선정작을 토대로 현재 다원예술 씬(Scene)의 경향과 특징을 도출함
  - (설문조사) 다원예술 분야에서 활동 및 창작하는 예술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량적 측면에서 다원예술 생태계 지형과 현황을 파악하고 다원예술 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의 수요를 확인함

- (심층인터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담당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 소위원장, 타 기관 다원예술 담당자, 독립예술 관련 편집장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문헌조사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함
- (사례조사) 국내 다원예술 지원사업을 사례조사하여 다원예술 현황을 파악함

## ■ 다원예술 정책 환경 분석

### ○ 추진현황

- 다원예술은 1990년대 말 새로운 예술적 흐름을 수용하고, 국내 예술지원제도의 경직성에 대응하는 유연한 지원체제로 등장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과 동시대 예술을 포괄하는 집합적인 용어이자 정책적 용어로 자리 잡게 됨
- 2006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체계에서 다원예술이 지원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후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으로 확장되어 국내 지원제도로 정착하게 됨
- 2010년대 문화예술기금과 축제, 공간과 같은 플랫폼이 다원예술 생태계를 형성하며 발전기를 맞이하게 됨
- 페스티벌 붐, 변방연극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등 축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 공공 기금과 맞물려 활성화되며 다원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체계가 마련됨
- 2016년 블랙리스트로 인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이 중단되면서 주요 다원예술 플랫폼도 활동을 멈추고 다원예술 생태계가 정체된 모습이 보였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외 공공 기관과 민간 영역에서는 다원예술 사업이 지속됨
- 코로나 19, 뉴미디어와 기술의 발전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한 예술 현상이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게 되며 다원예술 지형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남

### ○ 소결

- 정책의 필요에 의해 등장한 다원예술은 장르 중심의 예술지원제도를 상호보완하는 정책적 역할을 하며, 지원제도의 한 분야로 정착하였음
- 공공영역에서 다원예술 분야는 예술의 실험성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공공성을 수행해옴
- 다원예술은 예술과 사회의 구조 변동에 따른 예술의 변화와 발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시대 예술을 위한 지원제도임
- 예술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전체 예술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의 새로운 다원예술 생태계 지원 방향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질적 분석: 2021-2022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 개요

-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사업과 2022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신청서에 대한 질적 검토 수행
- 다원예술 예술가들의 자가정의를 통해 현재 예술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다원예술의 개념, 다원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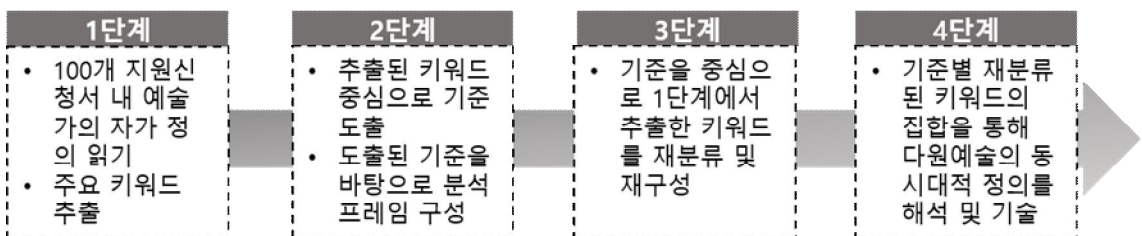
현재성 도출

- 2021년-2022년 선정작을 토대로 현재 다원예술 현장의 경향 및 특징 도출

○ <2021 다원예술 Reboot 활동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중 '예술가가 자가 정의한 다원예술 정의' 질적 분석을 통한 다원예술 개념과 현재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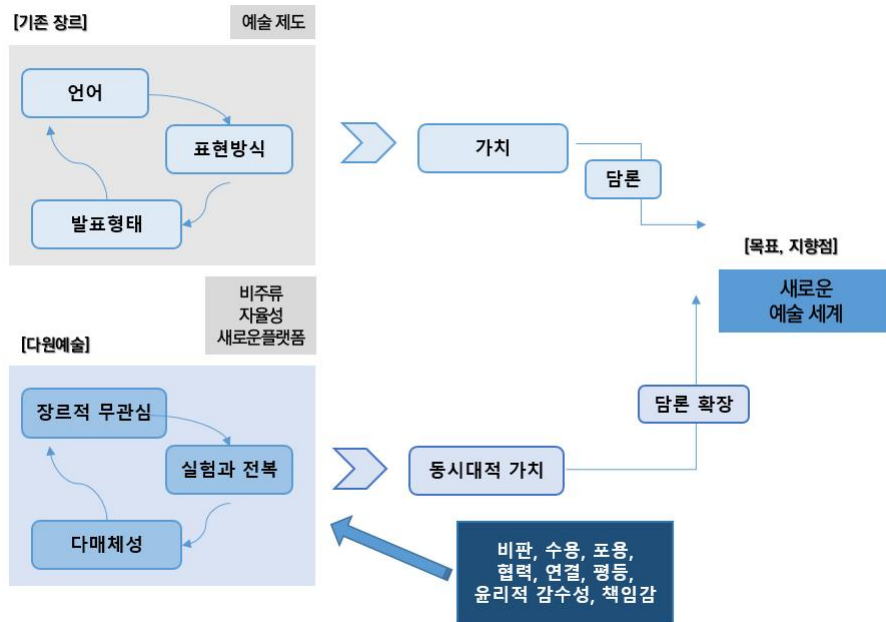
- 무작위로 추출한 100개의 지원신청서에 담긴 다원예술의 정의에 대한 예술가의 자가 정의를 키워드 형태로 추출함. 추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원예술의 현재적 정의에 관한 몇 개의 기준(준거)을 도출함. 도출된 기준에 맞게 추출한 키워드를 다시 재분류하고 재구성함. 기준별 재분류된 키워드를 통해 다원예술이 현시대에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고 서술함

[그림] 다원예술 정의 분석 단계



- (다원예술을 이해하는 몇 가지 기준) 기존 정책연구에서는 다양성, 실험성, 공공성을 기준으로 다원예술의 개념화를 시도했음. 이는 다원예술의 가치 속성을 개념화하여 예술정책 내에서 다원예술이 영역이자 하나의 장르로서 인정받는 것을 기대한 것으로 추측됨.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다원예술을 예술생태계 내 기성 장르 생태계와의 관계 속에서 다원예술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다원예술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함. 본 연구에서는 예술생태계 일부로서 다원예술을 접근함
- (분석 프레임) 지원신청서에 담긴 창작자들의 말을 통해 예술가들이 무엇을 기성 장르의 창작 메커니즘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분석함. 언어, 표현, 발표, 가치, 담론 총 5가지로 요소로 분석함
- ‘언어’는 창작의 주된 재료로서, 장르의 융합, 다양한 언어, 장르 간 경계 넘기, 새로운 예술세계 형성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음
- ‘표현방식’은 창작의 재료를 활용하고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실험성, 상호성, 다양성 3개의 범주로 구분해볼 수 있음
- ‘발표형태’는 작품을 전달하는 형태로서, 매체 및 플랫폼, 관객 참여, 과정 중심으로 3개의 중심으로 구분해볼 수 있음
- ‘동시대적 가치’는 작품을 통해 창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로서, 비주류성, 공공성, 동시대성 3개의 범주로 구분해볼 수 있음
- ‘담론’은 해당 작품과 창작자가 예술생태계 내에 어떤 담론을 만들어내는가로서, 창조성, 평등하고 공정한 감각, 예술의 개념 확장, 예술인의 주관적 예술세계로 구분해볼 수 있음

[그림] 예술인의 다원예술 자기정의 분석 프레임



○ 2021-2022년 다원예술 지원사업 선정작을 통해 현재 다원예술 씬의 경향 및 특징

-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에는 총 23건이 선정되었으며, 2021년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장소, 발표유형, 참여예술인 구성 및 다양성, 사업성과(비계량성과)로 재구성하고 분석함
-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시각예술 및 전시 기반 공간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비중이 높았으며, 장르를 보면 시각예술 및 무용이 우세했으며, 예술에 대한 동시대적 고민과 실험적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소결

- 다원예술 개념 및 정의에 대한 예술계 전반의 공감대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예술가의 새로운 예술세계 확장이란 궁극적인 목표 중요함
- 예술계의 다양한 담론 및 구조의 변동 속에 다원예술 현장을 이해해야 함
- 다원예술은 하나의 장르로 규정될 수 없으며 다른 씬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는 관계적 개념임
- 무용, 퍼포먼스, 기계, 테크놀로지, 전위 등의 개념이 지속됨

■ 다원예술 생태계 및 지원사업 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 분석

○ 개요

- 현재적 시점에서 다원예술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주관적 인식, 창작의 과정,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여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정책 개선 및 사업기반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설문 결과 및 시사점

- (다원예술의 정의와 현재성 인식) 다원예술은 장르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예술을 하는 실험이자 여러 장르를 융복합하는 예술로서 현재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됨. 다원예술은 예술 장르가 아니며 예술계 내 새로운 예술/예술가가 출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및 예술계의 제도권에 놓인

예술가와 작품들을 포용하는 지원제도라고 인식되고 있음. 문화예술 장르별로 동시대 예술 현장과 상호작용하는 정도에 따라 다원예술에 대한 인식과 활동에서 차이가 나타남

- (다원예술 창작의 과정) 다원예술 분야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러 장르가 혼합되고 융합되는 작업 방식에 매력을 느끼고 있음. 현재, 다원예술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플랫폼이 확인되지는 않음. 다원예술 작품/프로젝트 평균 소요 기간으로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원예술은 지원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음
- (다원예술 지원사업 수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기관과 민간에서도 다원예술 사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획 운영되고 있음. 국내 다원예술 분야는 공공기금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앞으로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지금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 다변화되는 다원예술 생태계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음. 국가의 예술기관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체계 내 다원예술 분야가 계속 지속되며, 새로운 예술을 견인하고 매개하는 지원제도로써 작동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에 대해서는 창작 지원 규모 확대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 다원예술 생태계 지원 및 정책과제 도출

### ○ 다원예술 생태계 지원을 위한 이슈와 쟁점

- 다원예술은 다른 예술 장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는 관계적 개념임
- 다원예술 하나만 별도의 경계로 설명할 수 없고 기성 장르를 포괄하여 더 넓은 예술생태계의 한 주체이자 새로운 예술세계를 끌어내는 주체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다원예술 정책 지원은 특정 장르 입장에서의 지원이 아닌 더욱 포괄적인 예술생태계를 고려한 지속성과 연속성, 유연성이 있는 정책 지원으로 변모해야 함

### ○ 다원예술 정책 지원의 방향성

- 다원예술 정책을 장르 중심 지원에서 탈피하여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예술 언어를 구현하는데 특화된 포괄적 장르로서 역할을 강화하는데 정책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방식을 다각화, 구체화함
- 다원예술 창작자들의 예술 활동이 축제나 마켓 등의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고, 다양한 협력 주체와의 체계적인 협업 활동을 통해 수준 높은 다원예술 작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이 과정에 정책의 지원이 큰 축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함. 특히 예술가들이 정책 지원의 방식을 일회성 자금지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로서 인지하고 연속성을 가진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예술 환경, 예술가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예술 현장과 정책 지원이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그러므로 현장의 니즈가 정책에 반영되고 피드백되어 다시 정책 사업으로 전환되는 피드백 모델을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해 지원사업의 과정 내에 수요 파악 및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하여 추진함

[그림] 다원예술 3대 정책지원 방향

<b>1</b>	<p><b>정책 목표의 구체적 설정과 지원방식 다각화</b></p> <p>기존 다원예술의 장르 중심 정책 사업에서 벗어나 예술 생태계를 선도하고 새로운 작품세계를 구축하는 포괄적 장르로서 다원예술의 특징을 고려한 정책 목표 설정. 즉 새로운 예술세계 확장을 지원하는 다원예술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새로운 다원예술 지원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지원방식을 다각화, 구체화함</p>
<b>2</b>	<p><b>다원예술 창작(현장)-확산(플랫폼)-협력(체계)-정책(지원)이 연계되는 확장적 생태계 형성</b></p> <p>다원예술 창작자의 예술 활동이 서로 다른 예술가, 기획자와의 협력에 따라 더 발전하고, 대내외적으로 확산되며 이를 정책이 지원할 수 있도록 다원예술 활동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 확장되는 생태계를 형성하는 인프라 및 지원 장치를 마련함 이를 통해 일회성의 자금 지원으로 끝나는 정책 지원이 아닌 다양한 예술적 실험으로 연결되는 성과의 추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p>
<b>3</b>	<p><b>현장의 니즈가 정책으로 순환되는 구조적 모델의 구축</b></p> <p>다원예술 현장의 니즈가 정책으로 순환되어 다원예술 현장에 피드백되어 다원예술 현장이 더 활성화되는 선순환 체계를 정책지원 프로세스에 도입함, 특히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과정의 일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관계자와 창작자, 매개자 등이 토론과 정책협의 과정을 통해 수요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모델을 마련함</p>

## ■ 다원예술 생태계 지원 정책과제(안)

[그림] 다원예술 6대 정책과제(안)

정책 목표	정책 과제
<p>목표 1</p> <p>다원예술 현장 활성화를 위한 <b>정책 목표의 구체적 설정과 지원방식 다각화</b></p>	<p>01 다원예술의 자생적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영역 확대</p> <p>02 단선적, 일회적 지원이 아닌 연속적 지원 정책 도입</p>
<p>목표 2</p> <p>다원예술 활동의 현장-유통-협력-정책을 <b>연계하여 다원예술 생태계의 확장적 활동 경로 형성</b></p>	<p>03 다원예술 현장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보/협업 DATA의 통합관리 지원</p> <p>04 다원예술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매개 인프라 발굴 및 지원</p>
<p>목표 3</p> <p>정책 지원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b>현장의 수요가 정책으로 순환되는 모델 구축</b></p>	<p>05 다원예술 활동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협치체계 구축</p> <p>06 다원예술 생태계 확장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정책수요 조사 실행</p>

- 정책과제 1. 다원예술의 자생적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영역 확대
  - 창작과정 전 단계에 대한 제약 없는 지원정책 수용
  -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목표와 경향성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의 유연한 적용
- 정책과제 2. 단선적, 일회적 지원이 아닌 연속적 지원 정책 도입
  - 다원예술 예술적 성과에 다른 연속 지원 원칙 도입
- 정책과제 3. 다원예술 현장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보/협업 DATA의 통합관리 지원
  - 다원예술 생태계 구성원, 매개 공간, 발표 경로 등을 포괄한 통합 DATA 구축

- 지원사업 과정을 통한 다원예술 통합 DATA의 지속적인 관리 및 경로 추적
- 정책과제 4. 다원예술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매개 인프라 발굴 및 지원
  - 다원예술 매개 공간 지원 확대
  - 다원예술 작품 유통 및 확산을 위한 매개 지원정책 도입
- 정책과제 5. 다원예술 활동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협치체계 구축
  - 정책 현장과 창작 현장, 매개자 중심의 다원예술 프로젝트 운영
- 정책과제 6. 다원예술 생태계 확장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정책 수요 조사 실행
  -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리포트 발행 및 모니터링 진행

# 목차

---

##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02
2. 연구 범위 및 방법	03
3. 연구 추진 프로세스	05

## 제2장. 다원예술 정책 환경 분석

1. 다원예술 정책의 흐름	07
2. 다원예술 관련 선행연구	11
3.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현재 :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14
4. 종합 분석 및 시사점	19

---

## 제3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질적 분석 : 2021-2022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1. 분석 개요	24
2. 다원예술의 현재적 정의와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에서 이야기하는 예술가의 자기정의	27
3. 2021-2022년 선정작을 통해 보는 현재 다원예술 씬의 경향 및 특징	46
4. 소결	51

## 제4장.

### 다원예술 생태계 및 지원사업 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54
2. PART 1. 다원예술의 정의와 현재성 인식	57
3. PART 2. 다원예술 창작의 과정	66
4. PART 3. 다원예술 지원사업 수요	84
5. 조사결과 종합 분석 및 시사점	94

---

## 제5장.

### 다원예술 생태계 지원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

1. 다원예술 생태계 지원을 위한 이슈와 쟁점	98
2. 다원예술 정책 지원의 방향성	99
3. 다원예술 생태계 지원 정책과제(안)	101
4. 결론 및 제언	108
참고문헌	110
[부록1] 다원예술 자가정의 주요 키워드 : 2021년 선정작	111
[부록2] 설문조사 질문지	116



# 표 목차

---

[표 1-1] 연구 범위	03
[표 1-2] 연구 방법	04
[표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제도 흐름	10
[표 2-2] 선행연구 요약	13
[표 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제도 현황 개요	16
[표 3-1] 지원사업 선정작 세부 분석 지표	26
[표 3-2] 2021 Reboot 지원사업 심의	30
[표 3-3] 다원예술 개념 정의(형식과 가치를 중심으로)	32
[표 3-4] 매체실험-가치지향 매트릭스 영역 구분	33
[표 3-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신청서의 다원예술 자기정의 예시	37
[표 3-6] 2021 Reboot 지원사업 선정작 목록	46
[표 3-7] 2021 Reboot 지원사업 선정작 분석 결과	49
[표 4-1] 설문조사 설계	54
[표 4-2] 설문조사 내용	55
[표 4-3] 응답자 특성	56
[표 4-4] 다원예술 개념 (1+2순위)	59
[표 4-5] 다원예술이 한국 예술계에 기여한 점	60
[표 4-6] 다원예술 독립 장르 위상 여부	61
[표 4-7] 긍정 응답 내용	62
[표 4-8] 긍정 응답 내용 - 상세	62
[표 4-9] 부정 응답 내용	63
[표 4-10] 부정 응답 내용 - 상세	63
[표 4-11] 다원예술의 지형 (1+2순위)	65
[표 4-12] 다원예술 분야 활동 시작 경로	67

---

[표 4-13] 다원예술 분야 창작활동 방식에 따른 다원예술 분야 활동 시작 경로	68
[표 4-14] 다원예술 분야 주요 활동 유형	69
[표 4-15] 전체예술활동기간/다원예술독립장르위성여부 대비 다원예술활동기간 비율	69
[표 4-16] 다원예술 지원사업 신청 및 활동 이유 (1순위)	71
[표 4-17] 다원예술영역 창작활동 기간	72
[표 4-18] 전체예술영역활동기간 대비 다원예술영역 창작활동 기간	74
[표 4-19] 다원예술 관련 활동 지속 방법 및 경로 (1+2순위)	75
[표 4-20] 다원예술 창작활동 방식	76
[표 4-21] 다원예술분야 창작활동방식에 따른 다원예술 창작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	78
[표 4-22] 다원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기금 지원 기관	79
[표 4-23] 공연장, 전시장, 대안공간 등 발표/쇼케이스, 워크숍 공간	80
[표 4-24] 작품을 유통, 확산하는 축제/행사/프로그램	80
[표 4-25] 동료 예술가와 창작 교류하는 협력 공간	81
[표 4-26] 아카이브와 매체 비평 다원예술 지식활동 및 교류 공간	81
[표 4-27] 다원예술 작품/프로젝트 평균 소요 기간	83
[표 4-28] 다원예술분야 창작활동 방식에 따른 다원예술 작품/프로젝트 창작소요 평균기간	84
[표 4-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85
[표 4-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신청 연도	87
[표 4-31] 예술영역 활동기간/다원예술 창작활동방식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최대금액	88
[표 4-32] 지원받은 타 기관 및 사업명	89
[표 4-3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지속 이유	90
[표 4-34] 다원예술영역 창작활동 관련 공공지원 필요 부분 (1순위)	92
[표 4-3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관련 자유의견	93
[표 4-3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관련 자유의견 - 상세	93

# 그림 목차

---

[그림] 다원예술 정의 분석 단계	iii
[그림] 예술인의 다원예술 자가정의 분석 프레임	iv
[그림] 다원예술 3대 정책지원 방향	vi
[그림] 다원예술 6대 정책과제(안)	vi
[그림 3-1] 다원예술 정의 분석 단계	27
[그림 3-2] 예술인의 다원예술 자가정의 분석 프레임	36
[그림 3-3] 다원예술에서의 언어	38
[그림 3-4] 다원예술의 표현방식	40
[그림 3-5] 다원예술 발표형태	41
[그림 3-6] 다원예술 가치	43
[그림 3-7] 다원예술 담론	45
[그림 4-1] 다원예술의 정의	58
[그림 4-2] 다원예술의 개념	58
[그림 4-3] 다원예술이 한국 예술계에 기여한 점	60
[그림 4-4] 다원예술 독립 장르 위상 여부	61
[그림 4-5] 다원예술의 지형	64
[그림 4-6] 다원예술 분야 활동 시작 경로	66
[그림 4-7] 다원예술 분야 주요 활동 유형	68
[그림 4-8] 다원예술영역 작업 비율	69
[그림 4-9] 다원예술 지원사업 신청 및 활동 이유	70
[그림 4-10] 다원예술 창작활동 기간	72
[그림 4-11] 문화예술활동기간과 다원예술활동기간 비교	74
[그림 4-12] 다원예술 관련 활동 지속 방법 및 경로	75
[그림 4-13] 다원예술분야 창작활동 방식	75

---

[그림 4-14] 다원예술 창작활동 주 협업 파트너 (1+2순위)	77
[그림 4-15] 다원예술 창작활동 비평 및 피드백 방식	77
[그림 4-16] 다원예술 창작활동 도움 경험	77
[그림 4-17] 다원예술 활성화를 위한 필요 지원	82
[그림 4-18] 다원예술 작품/프로젝트 평균 소요 기간	82
[그림 4-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신청 연도	84
[그림 4-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85
[그림 4-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참여 역할	86
[그림 4-22] 타 기관 다원예술 지원사업 신청 연도	86
[그림 4-23] 타 기관 다원예술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87
[그림 4-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지속 이유	90
[그림 4-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 지원변화 필요	91
[그림 4-26] 다원예술 창작활동 관련 공공지원 필요 부분	91
[그림 5-1] 다원예술 정책의 방향 및 예술 생태계 개념도	100
[그림 5-2] 다원예술 3대 정책지원 방향	101
[그림 5-3] 다원예술 6대 정책과제(안)	101
[그림 5-4] 정책과제별 추진 로드맵	107

# 제1장

---

## 연구 개요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가. 연구 배경

- 2015년 블랙리스트 이후 중단되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이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로 복원되었으나, 중단된 시점부터 복원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다원예술 현장에서 있었던 흐름과 생태계 현황에 대한 연구조사는 부족한 상황임
- 다원예술은 예술 현장의 정책 요구와 수용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동시대 예술 현장의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정의가 내려지는 특징'을 갖고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이 중단된 기간에 한국 사회와 예술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원예술 현장의 현재적 의미와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됨
-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원예술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다원예술의 현재적 가치를 확인하고, 다원예술 지원의 정당성을 도출하여 동시대 다원예술 현장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나. 연구 목적

- 그동안 다원예술은 동시대의 예술적 흐름, 창작의 경향에 맞춰 상대적으로 정의되는 특징을 가지며, 지속적인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다원예술의 위치성과 지원 방향을 정립해옴
-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다원예술의 흐름과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고, 국내 예술문화 정책에서 다원예술 지원제도가 자리 잡으며 우리나라 예술계에서 다원예술이 확산하는 과정을 정리함. 이와 함께 2021년과 2022년에 수행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신청서를 중심으로 예술가들이 직접 정의한 다원예술의 정의와 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다원예술의 동시대적 정의를 해석하고자 함
- 이와 더불어 다원예술 지원사업 참여자 및 다원예술 관련 창작자, 관계자 대상의 인식조사를 통해 다원예술에 대한 개념과 가치 등을 도출하여 현재 다원예술 현장을 파악하고자 함
- 이 과정을 통해 다변화된 예술창작환경에서 다원예술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전체 예술 생태계 내 다원예술의 건강한 작동방식을 고민하며 예술계의 선순환 체계이자 새로운 예술 실험을 위한 제도로써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기본방향을 도출함. 더불어 동시대 다원예술의 다양한 가치와 의미 속에서 정책 지원의 정당성을 도출하고 다원예술 현장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새로운 정책 방향과 전략과제를 제안함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가. 연구 범위

-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이후 한국 예술계에 등장한 다원예술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변화, 지원사업으로의 정착 과정, 한국 예술계에 다원예술이 미친 영향 등 통시적 정책 흐름에 따라 검토함. 이와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과 같은 공공영역의 다원예술 지원사업을 검토하며 국내 문화예술 정책에서 다원예술 지원 현황을 파악하였음
- 한편, 2015년 블랙리스트 이후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2021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적 분석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다원예술 현장에서 인식되는 예술인들의 자가 정의와 가치체계, 핵심적 키워드 등을 분석함
- 질적 분석과 함께 다원예술 분야에서 활동 및 창작하는 예술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량적 측면에서 다원예술 생태계 지형과 현황을 파악하고 다원예술 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의 수요를 확인함
-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다원예술 생태계 현장에 대한 다각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원예술이 새로운 예술 실험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는 지원정책의 방향을 설정, 제시함

[표 1-1] 연구 범위

범위 구분	내용
공간적 범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내 예술계 및 다원예술 관련 문화예술 현장
시간적 범위	1990년~현재
대상적 범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국내 다원예술 생태계 파악
내용적 범위	다원예술 정책 환경 분석 선행연구 검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2021-2022 질적 분석 다원예술 생태계 및 지원사업 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 분석 다원예술 생태계 지원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 나. 연구 방법

- 연구의 프로세스는 먼저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 신청서 분석,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사례조사로 나누어 진행함
-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다원예술 지원사

- 업의 등장과 지원제도로의 정착 과정, 2015년 블랙리스트 이후 지원정책의 중단과 2021년 리부트 복원 등의 과정을 개괄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체계 내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위상을 확인함
- 분석 자료는 2006년 다원예술소위원회 활동 자료, 사업 백서, 다원예술 포럼 및 라운드테이블 자료, 다원예술 TF 회의록, 최근 다원예술 지원사업 신청서 등이 포함됨
  - 2006년, 2007년, 2008년, 2013년 다원예술 정책 보고서를 선행자료로 검토함
-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와 2022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에 제출된 신청서와 선정작을 대상으로 질적 분석을 통해 동시대 다원예술 분야 예술가가 생각하는 다원예술의 정의와 가치체계를 확인하였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뿐 아니라 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원예술 관련 지원사업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다원예술 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다원예술 정책 담당자 및 다원예술 현장 관계자, 연구자와의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현실적인 이슈와 쟁점을 확인, 도출하였음
  - 마지막으로 다원예술 분야에서 창작 활동하는 예술가와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양적 측면에서 다원예술 지형과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사업 수요를 확인함
  -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다원예술 정책지원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제시함

[표 1-2] 연구 방법

구분	내용
문헌조사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 - 다원예술소위원회 백서 - 다원예술 포럼 및 라운드테이블, 다원예술 TF 자료 2. 다원예술 관련 선행연구 - 다원예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06) - 다원예술의 조류와 지원방안 (2007) - 다원예술 창작현황 연구 (2008) - 다원예술의 현황과 전망 연구 (20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메타분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2021년-2022년 신청서1,125건, 선정작 분석
사례조사	국내 다원예술지원사업 :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국립현대미술관 등
설문조사	다원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평소 다원예술에 관심이 있어 본 정책 제언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221명
심층인터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담당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 소위원, 타 기관 다원예술 담당자, 독립예술 관련 편집장



### 3. 연구 추진 프로세스

- 본 연구는 다원예술에 대한 예술사적 정의를 포함하여 현재 다원예술 현장에 대한 현황 파악과 예술가 대상의 정책 수요를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다원예술 현장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이를 위하여 먼저 다원예술 지원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리부트 사업 이후 진행된 2년간의 지원 사업 신청서를 대상으로 질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원예술 개념 및 현재성에 대한 자가정의 분석을 실시함. 또한 다원예술 관련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 현장 예술가 대상의 심층인터뷰와 다원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관계자를 대상의 수요조사를 통해 다원예술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함. 이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다원예술 현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과제를 도출하도록 함
- STEP 1. 다원예술 정책 환경 분석
    - 2000년대 초반 등장한 다원예술 개념과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시작을 국내 문화예술정책 흐름에서 살펴보고, 다원예술 정책 관련 기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다원예술의 태동과 발전 과정을 정리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뿐 아니라 타 기관의 다원예술 지원사업을 조사하여 국내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함
  - STEP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질적 분석
    -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사업과 2022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신청서에 대한 질적 분석을 수행함
    - 다원예술 예술가들의 자가정의를 통해 현재 예술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다원예술의 개념, 다원예술 현재성을 도출함
    - 2021년-2022년 선정작을 토대로 현재 다원예술 현장의 경향 및 특징을 도출함
  - STEP 3. 다원예술 생태계 지원사업 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 분석
    -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다원예술 지원사업 위상과 사업성과 등 다원예술 실무 정책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원예술소위원회 위원, 타 기관 다원예술 기획자, 다원예술 관련 활동가를 대상으로 다원예술 생태계 현안 및 이슈 점검을 위한 심층 인터뷰 실행
    - 심층 인터뷰 결과 및 앞서 수행한 문헌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계한 다원예술의 정의와 현재성에 대한 인식, 다원예술 창작의 과정, 다원예술 지원사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다원예술 분야 활동 예술가, 관계자 대상의 수요조사를 진행함
  - STEP 4. 다원예술 생태계 지원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
    - 다원예술 생태계 지원을 위한 이슈 및 쟁점 도출
    - 다원예술 생태계 지원방향 및 원칙 설정
    - 다원예술 생태계 지원 정책과제, 로드맵 수립

## 제2장

---

### 다원예술 정책 환경 분석

# 1. 다원예술 정책의 흐름

다원예술은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환 이후 다원예술 지원 사업으로 제도권에 등장했으며, 문학, 시각예술, 연극 등 타 장르 예술과 다르게 정책적 필요에 의해 개념이 만들어져 사용된 특징을 가짐. 본 장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문화예술 정책에서 다원예술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지원정책으로 예술계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 변화 과정을 살펴봄과 다원예술 정책의 흐름을 정리함. 이를 위해 기 선행연구 자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기 위원회 백서, 2021-2022 다원예술 포럼, 본 연구의 다원예술 관계자 심층 인터뷰 등 통해서 내용을 재구성 하였음

## 가.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등장 (1990년대 말~2008년)

### 1) 다원예술 개념의 생성 및 다원예술 지원사업

#### ■ 예술 환경의 변화와 다원 예술 개념의 생성

- 20세기 이후 예술 장르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장르가 융합되는 세계적인 흐름이 대두되었으며 국내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인디), 실험, 대안적인 형식의 예술적 경향이 확산됨. 이러한 예술적 경향에서 자생된 '독립예술제'<sup>1)</sup>(1998)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독립예술을 분리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2002년 독립예술 포함 다양한 새로운 경향의 사업들을 수용하기 위해 '다원적 예술'이라는 개념이 도입됨
  - 1990년대 후반 독립(인디) 공연 및 축제의 개최, 대안공간 개관, 문예진흥원의 '실험예술 지원' 사업 개설 등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위한 초석이 마련됨

#### ■ 다원예술소위원회 구성과 다원예술의 전환

- 2005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위원회 및 소위원회 체계가 구성되었고 이에 다원예술 장르가 포함되어 '다원예술소위원회'가 설치됨. 이때부터 '다원예술'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지원 유형이 확장됨
  - 다원예술소위원회는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성 및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월례포럼, 토론회, 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지원사업은 이 시점을 계기로 '창작 프로그램 지원', '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 '신진예술가뉴스타트 및 지속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유형이 확장됨

1) '독립예술제'는 1998년 대학로에서 예술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개최되었으며 이때 독립예술은 반권위적, 비주류적, 대안적 예술의 흐름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

## 2) 다원예술의 확장

### ■ 예술지원체계 내 지원 분야로 정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에 대한 개념 정립과 지원 방향은 지역 문화예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가 되었으며, 지역의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다원예술이 확산되는 데 역할을 수행함
- 2004년 경기문화재단을 시작으로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모태가 되는 사업이 차례로 실행되었고, 2006년을 기점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다원예술영역으로 자리 잡게 됨

## 나. 다원예술 생태계 형성 및 발전 (2009년-2014년)

### 1) 다원예술 선순환 체계 마련

#### ■ 지원사업과 예술 활동의 선순환

- 2010년대는 2000년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한 예술가들이 활약하고 다원예술을 하나의 장르로 인식하기 시작한 세대가 등장한 시기임. 이에 따라 새로운 수요층이 발굴되고 다원예술계 전반적으로 실험적인 예술 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원 제도는 다원예술에 대한 담론과 국내외 예술 활동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09~13)과 '다원예술창작지원'(14~15)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다원예술 지원사업을 이어갔으며 이밖에도 공간, 축제, 매체, 인력양성, 국제 교류 사업을 지원함

#### ■ 다원예술의 민간영역 형성

- 민간 영역에서도 다원예술을 지원하는 공모와 기획 사업이 등장하며, 다원예술 생태계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두 축이 형성됨
  - 만 40세 이하 신진작가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두산아트센터 두산아트랩이 2010년에, 미술관이 주체가 되어 수행성을 탐구하는 국립현대미술관 다원예술 프로젝트가 2014년에 시작됨

## 2) 다원예술 플랫폼의 발전

### ■ 다원예술 창작·향유 체계 마련

- 다원예술 지원정책 기반 마련 이후 동시대 예술을 소개하고 예술가들의 실험의 장 역할을 하는 플랫폼 매개활동이 확대됨. 1990년대 후반 독립예술제, 변방연극제 등을 시작되어 2000년대 페스티벌 붐이 이 시기에 지원제도와 맞물려 활성화되면서 다원예술의 선순환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함
  - '페스티벌 붐', '변방연극제', '프린지 페스티벌' 등 축제를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소개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원예술 네트워크가 형성됨. 또한 독립예술 웹진 '인디언밥', '옴.신' 저널 등의 매체를 통해 비평가들이 성장함

## 다. 다원예술의 정체기 (2015년~2020년)

### 1) 블랙리스트와 다원예술 환경의 변화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폐지

- 블랙리스트에 의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장르 사업에서 일부 다원예술 지원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체계 내 다원예술 사업이 축소됨
- 다원예술 생태계의 대표 공공 기금과 플랫폼이 중단되면서 선순환 체계가 무너지며 정체기를 맞이함
  - 대표적인 다원예술 축제였던 페스티벌 봄이 2016년도 내부 사정으로 중단되고, 변방연극제와 서울프린지페스티벌도 블랙리스트 여파로 활동을 멈추게 됨

#### ■ 다원예술 생태계의 유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이 중단된 기간 동안 다양한 공공-민간 주체에서는 다원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과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면서 다원예술의 흐름을 이어감
  - 서울문화재단은 다원예술 창작지원, 유망예술지원 MAP 등의 사업을 통해 다원예술을 지원해왔으며, 우란문화재단, 플랫폼엘 등의 민간 주체가 다원예술 분야의 지원을 지속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현대미술관, 세종문화예술회관 등 공공문화기관에서 다원예술 창작제작을 지원하고, 다원예술 작품/예술가를 초빙해서 실연하는 기회가 늘어남
  -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면서 국내외 아시아를 주제로 한 다원예술을 소개했으며, 2018년 세종문화회관도 세종S씨어터를 개관하며 실험적인 공연예술을 선보임

## 라. 다원예술의 격동기 (2021년~현재)

###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의 복원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이 복원되었으나, 중단된 기간 동안 일어난 예술계의 변화를 지원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새로 도입한 동료평가 심의제도가 문제를 일으키며 논란이 됨
  - 2021년 공모에서 시범 도입되었던 동료평가 지원심의제도가 상호비방,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이 포함된 점이 알려지면서 최종 심의결과가 발표된 이후 <블라인드 방식 동료집단 심의 폐지 촉구 설명서>가 발표되면서 전면적인 개선 요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sup>2)</sup> 새로운 예술적 실험을 위한 사업의 리부트 과정에서 예술현장과의 소통 부족과 행정적 준비 미흡이 드러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원예술 TF 구성을 통해 다원예술 포럼,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며 다원예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제언을 시도함

2) 국회 문광위 종합감사에서 익명을 악용한 인격모독적인 심사평, 저작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보호장치 전무, 지원자들에 대한 무상노동 강요 등 크게 세 가지를 동료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제도의 폐지 또는 전면 개선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요구했음 (다원예술 TF 백서, 3P)

## 2) 디지털 전환 시대와 다원예술

### ■ 뉴미디어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예술계의 변화

- 예술계는 코로나19,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의 다양한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고, 다원예술 분야 또한 이러한 예술 현장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됨
- 특히, 기술과 뉴미디어 발전으로 인해 예술 장르 간 융복합 현상이 활발해지고, 아트앤티크와 융복합 예술이 유행하면서 일반 예술과 다원예술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게 됨
  - 서울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시작한 ‘금천예술공장 다빈치 크리에이티브’를 2020년 ‘융합예술플랫폼 언폴드엑스’로 개편하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7년 시작한 ‘예술과기술 융합지원 사업’을 2023년 ‘융합예술부’로 확장해서 진행해나감

### ■ 다원예술 지형의 변화

- 최근 다원예술 현장은 사회문화 다변화와 예술창작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 다원예술에서 지원대상이었던 영역이 지원체계에서 독자적인 예술 지원영역을 구축해나감. 그러면서 새로운 예술적 실험과 사회적 가치가 다원예술의 지형에서 수용되고 있는 모습도 관찰됨
  - 2016년 청년예술정책이 수립되면서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에 청년예술 지원이 확대됨. 2017년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을바꾸는예술’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며 생활문화, 지역문화, 장애예술 등 지원체계 구조를 마련하였음. 현재는 이 같은 분야가 독자적인 지원 영역을 구축하며 다원예술과 별개의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 신생 복합문화공간들이 생겨나면서 장르 구분 없이 다양한 예술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다원예술 매개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함
- 문화다양성법에 따른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2021-2024」에 의해 다원예술은 기초예술 다양성 증진을 목적을 근거로 지원사업이 실행되고 있기도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2년까지 기초예술다양성증진사업으로서 다원예술을 지원해왔고, 일부 지역문화재단에서도 문화예술 장르의 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다원예술 사업을 실행하고 있음

[표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제도 흐름

연도	지원사업명	사업 목적 및 내용
1997	실험예술 지원 사업	선구적이고 실험적인 예술활동 지원
1997 - 2000	대중예술 활동지원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대중예술 관련 공연활동, 연구활동, 도서발간 사업 등을 지원
2001	독립예술지원	독립(인디)-실험 대안적인 경향의 예술형식·내용·제작방식 등 비주류 예술활동 장려
2002	다원적 예술지원	독립(인디)-실험 대안적인 경향의 예술형식·내용·제작방식 등

2003			
2004			비주류 예술활동 장려, 다양한 소수문화 활성화 대중 문화의 질적 향상과 그 발표 및 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2005			
2006	예술창작 역량강화	창작프로그램지원(다원)	
		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 (다원)	전국규모 장르별 예술행사, 또는 전국규모의 대규모 예술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지원
		신진예술가뉴스타트 및 지속프로그램지원(다원)	역량있는 차세대 젊은 예술가의 창작·작품발표 활동을 중점 지원
2007	다원예술 지원사업	다원예술 일반	새로운예술, 탈장르예술, 복합장르예술/독립예술 /비상업적 대중예술, 비주류예술
		다원예술 중점사업 '새장르 공공예술 프로젝트'	공공영역에서의 커뮤니케이션/문화적 소수자의 문화생산과 향유를 매개/특정 공간을 활성화하는 예술 프로젝트
		다원예술 매개공간 운영	다원예술 전용공간 운영 (다원예술 쇼케이스, 예술현장과의 매개)
		신진예술가 지원	신진 예술가의 창작·작품 발표 활동 지원 등
2009 - 2013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舊 다원예술 지원사업
2014 - 2015	다원예술창작지원		舊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 지원
2021	다원예술활동지원 Reboot 사업		
2022	다원예술창작지원		창작준비지원/창작발표지원
2023	창작의과정 #다원예술		舊 다원예술창작지원-준비지원

## 2. 다원예술 관련 선행연구

### 가. 선행연구 개요

- 한국의 문화예술 정책에서 '다원예술'이 지원분야로서 명시되고 정책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06년으로서, 문예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재편되고 민간참여/연구단위인 소위원회 중 다원예술 소위원회가 설치되면서부터임<sup>3)</sup>
- 다원예술은 예술 현장의 정책 요구와 수용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그 자체가 절대적 정의가 아닌 국내외 예술적 흐름, 창작의 경향 등에 맞춰 상대적으로 정의가 내려지는 특징을 갖고 있음. 이

3) 다원예술의 현황과 전망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속적인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다원예술에 대한 개념 정의, 이를 뒷받침할 창작지원의 형태를 주기적으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6년, 2008년, 2013년에 다원예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sup>4)</sup>

- 2014년 이후 공공에서 수행한 다원예술 관련 정책 연구는 전무하며, 동시대 예술적 흐름과 변화에 따른 다원예술의 현황 조사도 중단된 상태임

## 나. 선행연구 검토

### ■ 다원예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06)

- 안영노, 김소연 외(2006)는 「다원예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다원예술정책 관련 중장기 비전 및 추진체계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다원예술에 대한 범주화 및 체계화’, ‘다원예술의 특징에 기반을 둔 지원 방식 연구’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함
  - 국내외 현대예술의 지형변화와 다원예술의 성장 및 현황, 활동가 대상 델파이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다원예술의 명칭, 지원형식에 관련한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함
  - 결론적으로 지속성을 추구하는 다원예술 소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다원예술 활성화 및 지원확대를 위한 전략적 기획사업 추진, 매개공간·인큐베이팅 사업·다원예술 활동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등의 기획사업을 제안함

### ■ 다원예술 조류와 지원방안(2007)

- 우주희 외(2007) 연구진은 「다원예술 조류와 지원방안연구」에서 다원예술의 맥락과 현상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석적 논의를 통해 다원예술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고 다원예술의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함
  - 다원예술의 정의와 속성, 주요 개념 요소, 독립예술제와 비주류예술을 중심으로 살펴본 국내 다원예술의 성장과 정착과정, 국내외 다원예술 지원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다원예술 지원 방안을 도출
  - 결론적으로 창작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다원예술 활성화를 지원과제로 삼고 예술가의 창조적 역량을 중심으로 한 지원, 예술 지원 체계의 구조적 접근, 열린 형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 다원예술 창작현황 연구(2008)

- 김소연 외(2008) 연구진은 「다원예술 창작현황 연구」에서 다원예술 창작자 및 창작활동 실증적 조사 분석, 축제·공간·매체 등의 다원예술 매개장 조사 분석, 창작자 현황 및 매개장 현황 교차 분석, 지원 사업에 대한 예술현장의 반응 조사 분석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분야 공모사업 지원신청자(’06~’08)를 대상으로 한 창작자 현황 온라인 설문조사와 축제·공간·매체 유형별 다원예술 매개장 현황 조사를 실시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다방면의 다원예술 창작지형도를 구상함

4) 다원예술의 현황과 전망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 본 연구는 다원예술이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원예술 거점인 매개장 또한 확대 및 일상화되고 있다고 봄. 또한 점차 증가하는 지원 수요에 대응하여 지원 단위 확대하고 아카이브 및 비평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다원예술의 현황과 전망 연구 보고서(2013)

- 고주영 외(2013) 연구진은 '다원예술의 현황과 전망 연구 보고서'에서 소위원회 해체 이후 중단된 다원예술의 현황 관찰을 재개하고 향후 '다원적' 예술활동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 선정단체('09~12)를 대상으로 활동유형, 지원대상의 내용 및 형식(가치지향성 및 매체실험성)을 파악함
  - 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신진예술가 지원 감소, 지원 대상자 활동지역의 수도권 집중현상, 단일 작품 발표 및 축제의 증가, 지원금액의 변화, 매체실험성의 증가 및 가치지향의 감소, 미디어 실험의 감소 및 공연 기반 실험의 증가 추세를 확인함
  -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현황을 보완·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해당 지원사업 외의 전체 다원예술 지형을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제안함

[표 2-2] 선행 연구 요약

구분	연구개요		주요 연구내용
1	연구명(연도)	다원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06)	다원예술의 전개와 담론 다원예술 현황 다원예술 쟁점과 과제 다원예술 정책발전방안 등
	연구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진	안영노, 김소연 외	
2	연구명(연도)	다원예술의 조류와 지원방안(2007)	다원예술의 개념과 특수성 다원예술 지원 실태 분석 다원예술 지원 방안 등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진	우주희, 김민영	
3	연구명(연도)	다원예술 창작현황 연구(2008)	창작활동 현황 다원예술 창작기반 매개장 현황 다원예술 창작지형도 등
	연구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진	김소연 외	
4	연구명(연도)	다원예술의 현황과 전망 연구(2013)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증진 지원사업 현황 분석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제언 후속 연구 제안
	연구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진	고주영 외	

### 3.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현재 :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 ■ 2021-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개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997년 실험예술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블랙리스트로 중단된 기간(2016년-2020년)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다원예술을 지원해오고 있음. 2023년 기준 현재 예술창작본부 융합예술부에서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은 2015년 블랙리스트로 인해 중단된 이후 6년만인 2021년 4월에 재개하면서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복원과 탄생’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로 공모를 시작하였으며 2022년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 2023년 창작의과정 #다원예술/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으로 지속되고 있음
- 2021년, 2022년, 2023년 3개년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재 지원구조를 살펴봄

##### ■ 주요 지원사항의 변화 비교

- 2021년 재개된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 지원사업까지 3회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명의 변화는 있으나 기존 장르 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창작활동뿐 아니라 지원사업 체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새로운 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다만 지원대상은 2021년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2022년 이후 예술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 규모는 2023년에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음. 2021년 동료집단 서류심의 방식에서 있었던 논란 이후 2022년부터는 심의위원회에 의한 서류 심의와 인터뷰 심의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목적의 부합성, 새로운 예술적 실험, 다원예술이 가진 다양성과 자율적 토대 구축에 기여하는 등의 요소를 평가지표로 하는 점은 동일하였음
- 사업명
  - 2021년 :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 2022년 : 다원예술 창작지원
  - 2023년 : 창작의과정 #다원예술,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
- 사업 목적
  - 2021년 : 기존 예술장르 중심 지원체계에서 탈피하여 형식이나 조건에 대한 제약 없이 설계하고 실행하는 예술 활동을 지원
  - 2022년 : 장르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창작활동뿐 아니라, 현재 지원사업 체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창작유형에 대한 지원 또는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창작활동 지원
  - 2023년 : 장르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창작활동뿐 아니라, 현재 지원사업 체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창작유형에 대한 창작발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다원예술 분야 우수 창작물 발굴 또는 장르에 대

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창작발표활동 지원을 통해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의 외연 확장

○ 지원대상

- 2021년 : 다원예술이라 자가정의하는 모든 형태의 예술을 대상으로 함
- 2022년 : 예술단체 및 개인
- 2023년 : 예술단체 및 개인

○ 다원예술 지원규모

- 2021년 : 총 지원규모는 4억 8천만원이며, 유형①500만원, 유형②1,000만원, 유형③1,500만원, 유형④2,000만원, 유형⑤3,000만원으로 정액 지원함
- 2022년 : 총 지원규모는 4억8천만원이며, <창작준비지원>은 5백만원-1천만원 차등지원 총 1억6천7백만원, <창작발표지원>은 1천만원-3천만원 차등지원 총 3억1천3백만원을 지원함
- 2023년 : 총 지원규모는 8억8천만원이며, <창작의과정#다원예술>은 연구/조사 최대 1천만원, 쇼케이스 최대 2천만원 차등지원으로 총 3억8백만원이고,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은 총 1천-5천만원 차등지원으로 5억7천2백만원을 지원함

○ 심의 방식 및 기준

- 2021년 : 2021년은 1단계 동료집단 서류심(5), 2단계는 전문가 서류 및 토론탐의 방식으로 진행함. 심의 기준 중 사업목적과 신청사업의 부합성에서 '본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예술계의 다양성과 실험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함
- 2022년 : <①창작준비지원>은 서류심, <②창작발표지원>은 1차 서류심, 2차 인터뷰심 방식으로 진행함. <①창작준비지원>은 심의 기준 중 사업목적의 부합성과 기대성과에서 신청사업 내용이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예술 및 실험적인 창작 기획을 시도하는가를 평가함. <②창작발표지원>은 사업목적의 부합성과 기대성과에서 신청사업 내용이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표현하는가와 향후 사업 실현을 통해 다원예술이 가진 다양성과 자율적 토대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함
- 2023년 : <창작의과정#다원예술>은 서류심방식이며, <창작발표지원>은 1차 서류심, 2차 인터뷰심으로 진행됨. 심의 기준 중 '사업목적의 부합성 및 작품성'에서 기존 장르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 및 실험적 창작 기획을 시도하는가는 공통항목이 있었고, <창작발표지원>에서 향후 사업 실현을 통해 다원예술이 가진 다양성과 자율적 토대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함

○ 선정 현황

- 2021년 :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는 신청건수 294건 중 23건이 선정됨. 지원 결정액은 4억8천8백만원임
- 2022년 : <창작준비지원>은 신청건수 389건 중 18건이 선정됨. 지원결정액은 1억6천7백만원임. <창작발표지원>은 신청건수 444건 중 13건이 선정됨. 지원결정액은 3억1천3백만원임
- 2023년 : <창작의과정#다원예술>은 신청건수 180건 중 25건이 선정됨. 지원결정액은 총 3억6

5) 동료집단 심의(Peer Group Review)는 동료집단 평가방식이므로, 다원예술의 정책적 정의 및 지원대상을 제도권 내에서 인위적으로 규정, 제한하지 않고 예술 현장에서 직접 다원예술의 의미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별, 심의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 검토 (출처: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천5억원임.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은 신청건수 154건 중 15건이 선정됨. 지원결정액은 총 5억1천5백만원임

[표 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제도 현황 개요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명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	1) 창작의과정 #다원예술 2) 다원예술창작발표지원
구분	창작지원	1) 창작준비지원 2) 창작발표지원	1) 창작발표지원
사업규모	480백만원	1+2) 500백만원	1+2) 880백만원
지원내용	자율편성	1) 사전 소재 연구,기획,시범적 실현 등에 대한 지원 2) 공연·전시 등 창작결과 발표 지원	1) 기획,조사,연구/공유 지원 2) 창작물을 최종 완성 및 공개하는 활동 지원(공연,전시,출판,매개)
지원규모	유형1) 5백만원 유형2) 10백만원 유형3) 15백만원 유형4) 20백만원 유형5) 30백만원	1) 5백만원~1천만원 2) 1천만원~3천만원	1) 연구/조사 최대 1천만원 쇼케이스 최대 2천만원 2) 1천~5천만원
심의방법	예심) 동료집단심의·블라인드심의 본심) 전문가 서류 및 토론심의	1) 서류심의 2) 서류심의,인터뷰심의	1) 서류심의 2) 서류심의, 인터뷰심의
선정결과	총 23건	1) 18건 2) 13건	1) 25건* 2) 15건

\*2023년 창작의과정 #다원예술은 최초 23건 선정 후 사업포기 등으로 인하여 최종 25건 선정(23년 2월 기준)

■ 그 밖의 다원예술 관련 지원 현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른 문예진흥기금 사업에서도 다원예술을 지원하고 있음
- 2023년 공모사업 기준으로, 공연예술비평활성화지원,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대한민국공연예술제,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무대기술인턴십지원,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신나는예술여행, 예술가해외레지던스, 한국예술국제교류 지원대상에서 다원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 소결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6년 만에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실험을 담기 위해서 ‘활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2022년부터는 타 장르처럼 ‘창작’이라는 용어로 다시 돌아감. 2021년부터 3년간 사업명이 계속해서 변경되면서 지원제도로써 방향을 찾아가고 있음

- 사업이 준비-발표-창작의 과정으로 분리되고 지원내용이 체계화가 되면서 지원 규모도 증액됨. 사업 목적 또한 기존 예술장르나 지원체계를 벗어난 예술적 실천에서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 창작지원 사업의 외연 확장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심의방식 및 기준은 2021년 리부트에서 새로운 동료집단심의제도를 시도하지만 행정적인 준비 미흡과 공론화 작업의 부족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일반적인 서류와 인터뷰 심의방식으로 돌아감. 심의 기준에서 새로운 예술적 실험뿐 아니라 국내 예술계의 다양성과 실험성 향상에 기여도, 다원예술의 토대 구축에 기여 여부를 평가함. 이러한 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다원예술 생태계 토대 구축 및 국내 예술계와 다원예술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사업의 효과로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함
- 2022년까지 다원예술은 기초예술다양성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총괄부에서 담당했으나, 2023년도부터는 예술과기술 융합 등과 함께 융합예술부에서 담당함

## 나. 타 기관 다원예술 지원사업

### 1) 서울문화재단

#### ■ 서울문화재단 다원예술 지원사업

- 서울문화재단은 2020년부터 분리 운영하던 지원사업을 '서울예술지원'으로 통합하여 예술인의 활동경력에 따라 변화하는 작업세계 및 수월성을 고려하여 경력단계별 예술지원을 운영하고 있음. 2023년부터는 기존 '경력단계별 지원'에 '생애주기별 지원'을 더하여,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 예술가와 예술의 현장에서 멀어진 원로 예술가의 활동까지 포괄하며 지원사업을 확장했으며, 예술창작활동지원, 예술기반지원, 특성화지원, 청년예술, 원로예술에서 다원예술을 지원하고 있음

#### ■ 주요 지원 내용

- 예술창작활동지원 다원(2023년 기준 1차공모)은 작업세계 형성을 지원하는 A트랙과 예술인으로 작업세계 안정화를 지원하는 B트랙으로 구성
  - 지원내용은 창작지원금과 창작활동비이고, 창작지원금은 트랙별 차등을 두어 A트랙은 최대 1,000만원, B트랙은 최대 3,000만원을 배부하고 창작활동비는 트랙별 구분 없이 정액 300만원을 교부함
  - 첫 발표 및 활동경력 산정 기준은 타 분야와 트랙별 경력기준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본인이 예술 활동을 처음 시작한 분야를 기준으로 첫 활동을 산정함
  - 심의기준은 프로젝트의 우수성, 프로젝트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예술계/관람자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시각에서 통합적인 심의 기준에 따라 진행됨. 심의그룹은 융복합형, 실험, 기타의 세부분야로 구성됨
- 예술기반지원(2022년 기준 2차 공모)은 예술생태계의 인프라와 다양한 활동 주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RE:SEARCH, 창작예술공간지원, 예술인연구모임지원, 예술전문서적발간지원, 시각예술작품집발

간지원 사업에서 다원예술 분야를 지원함

- 비넥스트(BENEXT) 사업은 기존 유망예술지원(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이 통합, 개선된 사업으로 '다음 세상을 여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기획형 예술창작지원사업으로서, 통상적인 지원 방식의 형태를 탈피하여 창작자-퍼실리테이터-재단이 충분한 소통과 융통성을 발휘하는 창작자 친화적 예술 지원사업으로 운영 중
  - 다원예술 분야는 서울에서 다원예술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예술창작활동 및 작품제작/발표를 계획한 데뷔 10년 이하 예술인을 대상으로 '동시대를 바라보는 비평적 관점을 제시하는 작품', '기존 장르 구분의 틀을 넘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실험적 성향의 작품'을 선정함

#### ■ 소결

- 서울문화재단은 지원체계에서 예술창작활동지원과 예술기반지원, 특성화지원에서 다원예술을 독자적인 지원유형으로 운영 중임. 다원예술을 기존 장르 구분의 틀을 넘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실험적 성향의 작품으로 융복합형, 실험, 기타 등 세부분야로 구분하고 있음
- 서울문화재단은 창작준비 및 활동 지원뿐 아니라 사전조사-공간-연구모임-전문서적발간-기록-발표 등 다양한 지원유형에서 다원예술 지원유형이 다각화되어 있음
- 서울문화재단은 새로운 예술을 발굴하고 창-제작을 지원하는 기획형 예술창작지원사업인 BENEXT(비넥스트)에서 음악, 전통, 다원, 시각을 지원하고 있음. 다원예술 이외에도 서울문화재단 전체 지원체계에서 기획사업을 통해 새로운 예술 창작과 실험을 견인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임

## 2) 부산문화재단

#### ■ 부산문화재단 다원예술 지원사업

- 부산문화재단은 부산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문화예술 창작활성화 및 창작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하고 있으며, 다원예술분야를 꾸준히 지원해왔음
- 2021년 문화예술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창작활동지원, 예술가치확산지원, 주체특화예술지원으로 예술 지원사업 체계로 변경되었으며, 다원예술은 예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치 확산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예술기획지원사업으로서 예술가치확산지원 분야에서 담당하고 있음

#### ■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규모는 총 1억8천만 원이며, 개인 지원 없이 단체만 선정,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함
- 지원내용은 기초예술-기술융합 창작 및 활동지원, 탈 장르의 새로운 내용 및 형식, 매체를 활용한 융복합, 복합장르 등 실험적 예술활동 지원함
- 지원대상은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소재 예술단체와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지원신청한 단체임

#### ■ 소결

- 부산문화재단은 예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치 확산과 다양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 '예술가치

확산사업'에서 다원예술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 예술지원은 개인 지원 없이 단체만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비교해서 약 20%내외임
- 부산문화재단은 탈 장르적, 새로운 예술뿐 아니라 예술과 기술의 융합/협업도 다원예술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음

### 3) 그 밖의 지원사업 현황

- 그 밖의 세종시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지역문화재단에서 예술지원의 한 분야로 다원예술을 지원하고 있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현대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등 공공 문화기관에서 다원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선보이고 있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15년 개관부터 다원예술 공연장으로서 프로그램을 선보여왔고, 국립현대미술관은 2014년부터 '다원예술 프로젝트'로서 미술관의 수행성과 관련된 기획 주제전에서 국내외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예술을 소개해왔고 세종문화회관은 2022년부터 동시대 예술을 소개하는 싱크넥스트를 기획하고 있음

## 4.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정책의 필요에 의해 등장한 다원예술은 장르 중심의 예술지원제도를 상호보완하는 정책적 역할을 하며, 지원제도의 한 분야로 정착하였음

- 다원예술은 1990년대 말 새로운 예술적 흐름을 수용하고, 국내 예술지원제도의 경직성에 대응하는 유연한 지원체제로 등장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과 동시대 예술을 포괄하는 집합적인 용어이자 정책적 용어로 자리 잡게 됨
- 2006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체계에서 다원예술이 지원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후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으로 확장되어 국내 지원제도로 정착하게 됨
- 2010년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문화재단 등 문화예술기금과 페스티벌 붐, 변방연극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등과 같은 플랫폼이 다원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며 발전기를 맞이하게 됨
- 2016년 블랙리스트로 인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이 중단되면서 주요 다원예술 플랫폼도 활동을 멈추고 다원예술 생태계가 정체된 모습이 보였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외 공공 기관과 민간 영역에서는 다원예술 사업이 지속됨
- 코로나19, 뉴미디어와 기술의 발전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한 예술 현상이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게 되며 다원예술 지형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남
  - 청년예술, 융복합예술, 지역문화 등이 지원체계 내 독자적인 지원구조를 구축하게 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 동물권 등 새로운 사회적 의제가 예술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등 예술계 전반에서 융복합

적인 창작방식이 증가함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이 복원되면서 다원예술을 논의하는 포럼과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예술적 흐름과 변화를 수용하는 다원예술의 새로운 정체성과 방향성을 모색해나가고 있음

■ 공공영역에서 다원예술 분야는 예술의 실험성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공공성을 수행해옴

- 공공영역에서 다원예술을 살펴보면, 정책 초기에 설정된 장르 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실험적인 작품, 현재 지원체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창작유형에 대한 지원 등 장르 중심적인 지원체계를 상호보완하는 성격을 기본적인 정책 방향으로 가지고 있음
- 공공영역 문화예술기금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원예술이 연극, 무용과 같은 장르예술처럼 지원체계 내 하나의 분야로 되어 있고, 부산문화재단과 같이 예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과 관련된 지원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기도 함
- 세종문화회관,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이 공공 문화기관에서는 주 문화예술 장르와 기관의 목적에 맞게 실험을 확대하고, 융복합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음

■ 다원예술은 예술과 사회의 구조 변동에 따른 예술의 변화와 발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시대 예술을 위한 지원제도임

- 예술계는 장르로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예술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기존 지원제도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예술을 발굴하는 지원영역이 필요함
- 다원예술은 동시대 예술 현상과 변화를 지원제도에서 수용하면서 정기적으로 다원예술의 정의와 범주를 조정해왔음. 최근 사회적, 예술적 변화에 따른 다원예술의 현재적인 의미와 가치도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동시대 예술의 출현을 위한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원예술의 현재적 가치를 예술계 및 우리 사회와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함

■ 예술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전체 예술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의 새로운 다원예술 생태계 지원 방향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원예술 지원제도의 시작 단계부터 생태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타 기관의 다원예술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에도 영향을 미침.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다원예술 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공공영역의 대표적인 다원예술 지원제도로 위상을 가지고 있음
- 최근 기존 장르 기반의 지원사업에서도 충분히 실험성을 보장하는 여건이 마련되고, 장르 예술 내 융복합 창작의 경향이 높아지는 등 공공과 민간에서 다원예술 사업이 확장되고 있음
- 이에 다원예술 창작지원뿐 아니라 다원예술의 외연을 확장하고 전체 예술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다시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



## **제3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질적 분석  
: 2021-2022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1. 분석 개요

## 가.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작하며

### 1) 다원예술을 왜 정의 내려야 하는가?

#### ■ 정책 용어로 등장한 다원예술

- 다원예술은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환 이후 신설된 다원예술 지원사업을 통해 개념화된 용어로, 현장에서 먼저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 창작의 특정 경향성에 대한 정책기관 주도의 개념화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특징을 가짐
  - 다원예술 외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등의 장르는 정책과 무관하게 예술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던 단어이며, 다원예술은 지원사업을 계기로 하여 이후 예술현장의 언어로 정착되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기의 '다원예술 소위원회(위원장 김소연)' 주도로 진행한 『다원예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06)』가 다원예술 개념화의 주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이후 『다원예술의 조류와 지원방안(2007)』, 『다원예술 창작현황 연구(2008)』, <다원예술 예술지원정책 릴레이 토론회(2008)> 등의 학술 연구 및 공론장을 통해 2000년대 후반 예술계 전반에서 다원예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짐
- 다원예술이 처음 정책 용어로 등장한 만큼,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수정 및 발전의 과정을 거치거나, 또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폐지된 이후 다시 복원되는 과정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도하여 다원예술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 고찰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됨
  - 2021년과 2022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복원과 병행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한 2차례의 공개 포럼을 예로 들 수 있음. 물론 이 포럼의 목적이 다원예술의 개념화인 것은 아니었지만, 예술지원사업 맥락 안에서 다원예술을 위치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정책현장 내에서 다원예술을 이해하려는 접근 방법이 강조됨

#### ■ 다원예술 정의의 모호함

- 다원예술은 정의와 개념화에 관한 다각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원예술에 대한 합의된 공식적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호하다는 특징을 지님
  - 2006-7년 개념화된 다원예술의 정의는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창작활동으로서, 탈장르예술, 복합장르예술, 새로운 장르의 예술, 비주류예술, 문화다원주의적 예술, 독립예술 등을 중심적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제시됨
  - 2022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명시된 정의는 “장르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창작활동뿐 아니라, 현재 지원사업 체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창작유형에 대한 지원”,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창작활동 지원”의 두 가지로 제시됨
- 다원예술 정의의 모호함은 대체로 다원예술이 가지고 있는 ‘장르적 다양성’, ‘내용적 다양성’, ‘방식적 다양성’ 등에 대해 각자 생각하는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장르적 다양성’이란 연극, 무용, 음악, 시각예술, 문학 등 여러 장르가 융합되는 것을 말함. ‘내용

적 다양성'이란 젠더, 퀴어, 소수자, 장애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소재로 하는 것을 말함. '방식적 다양성'이란 매체나 표현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거나 관객 참여형의 공연을 만드는 식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의미함

- 다원예술이 가진 혁신, 전복, 실험 등의 이미지는 작품 창작뿐만 아니라, 제도화된 예술지원사업의 틀거리를 넘어서는 차원에서 다원예술의 다원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함
  - 심사위원 풀을 다양하게 마련한다거나, 지원사업에 관한 공론장을 열고, 예술계 내에서 순환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만드는 방식 그 자체를 다원예술의 고유성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존재함

### ■ 다원예술 개념화와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정당성

- 다원예술을 굳이 정의하거나 개념화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 한 켠에 존재하는 반면,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식화된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함
  - 이번 전문가FGI 및 최근 라운드테이블 등의 자료에 근거해 봤을 때, 다원예술을 정의해서는 안 되고 편협한 개념에 가두면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임
  - 실험성, 독립성, 다양성 등의 가치 준거는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기 위함이며 특정 예술을 배제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원예술은 예/아니오로 응답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척도의 높고 낮음 정도로 차이를 분간할 수 있다는 의미임
  - 그러나 예술지원사업이 개편되는 국면,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외의 기관에서 다원예술 지원사업을 운영할 때에 다원예술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항상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며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영역에 관한 지원사업 운영의 정당성 여부가 논의 대상이 됨

## 2) 분석 목적

### ■ 2022년 현 시점에서 예술현장이 바라보는 다원예술의 정의 개념화

- 2021년 다원예술지원사업 복원 이후 다원예술에 관한 공론장이나 논의 자리가 별로 마련되지 않은 만큼, 현재 시점에서 다원예술의 정의 및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다원예술을 바라보는 주요 기준 및 척도 도출

- 다원예술을 서술화된 문장으로 정의하기보다, 다원예술에 내포된 주요 속성 및 기준을 추출하여 향후 다원예술 지원사업 설계 과정에서 하나의 준거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함

### ■ 몇몇 전문가의 시선이 아니라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접속하는 다수의 창작자의 집합적 의견 존중

- 과거에는 주로 몇몇 전문가의 입을 통해 다원예술의 정의가 개념화되었지만, 본 연구는 2021년 지원사업 신청자가 자기 개념화한 문장을 통해 귀납적으로 정의를 도출함

### ■ 다원예술의 현재적 정의를 기존의 역사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해

- 2022년 다원예술의 현재적 정의를 그대로 이해하기보다 2005년부터 진행되어 온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변화와 역동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함

## 나. 분석 대상 및 자료

### 1) 질적 분석 대상

#### ■ 2021-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한 <2021 다원예술 Reboot 활동지원사업>, <2022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의 두 개 사업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2016년 폐지되었으며, 2021년 부터 복원되었기에 21년과 22년의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함
  - <2021 다원예술 Reboot 활동지원사업>은 294건 신청 접수 완료
  - <2022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은 ‘창작준비지원’에 388건, ‘창작발표지원’에 445건이 접수 완료됨

### 2) 질적 분석 자료

#### ■ <2021 다원예술 Reboot 활동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중 ‘지원자가 생각하는 다원예술의 정의’

- 2021년 지원사업은 몇 년 만에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복원되는 것을 계기로 지원자가 생각하는 다원예술의 정의를 지원신청서 주요 항목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 1번 공통질문 내 Q1 지원자가 생각하는 다원예술은 무엇인가요, Q2 지원자의 프로젝트가 본 사업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기재해주세요, 2번 세부 추진계획, 3번 예산계획의 항목으로 구성됨

#### ■ 2021-22 지원사업 선정작을 통해 보는 현재 다원예술 씬(Scene)의 경향성

- 2021년 지원사업은 현재 종료되고 결과보고서까지 제출되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성과를 기술하기에 적절함
- 2022년 지원사업은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었으나 분석 시점에 결과보고서가 없어 지원신청서 중 2021년 결과보고서와 가장 유사한 항목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자 함

[표 3-1] 지원사업 선정작 세부 분석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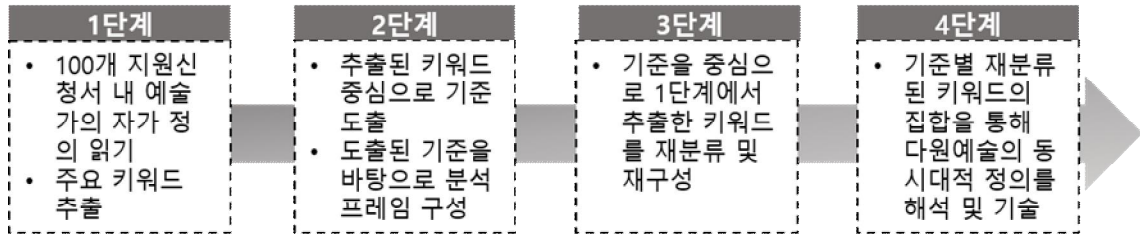
2021년	2022년
사업 장소 발표 유형 주요 관람객 층 참여 예술인 중 역할 및 장르의 다양성 사업 성과 (정성적 서술 부분)	사업 장소 발표 유형 (연구자의 주관적 코딩에 따라) 참여 예술인 중 역할 및 장르의 다양성 예술적 기여성

## 다. 분석 과정

### ■ ‘예술가가 자가 정의한 다원예술 정의’ 분석 과정 및 순서

- 아래 그림과 같이 무작위로 추출한 100개의 지원신청서에 담긴 다원예술의 정의에 대한 예술가의 자가 정의를 키워드 형태로 추출
- 추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원예술의 현재적 정의에 관한 몇 개의 기준(준거) 도출
- 도출된 기준에 맞게 추출한 키워드를 다시 재분류하고 재구성
- 기준별 재분류된 키워드를 통해 다원예술이 현시대에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고 서술

[그림 3-1] 다원예술 정의 분석 단계



### ■ ‘현재 다원예술 씬의 경향 및 특징’ 분석 과정 및 순서

- 2021년 결과보고서 및 2022년 지원신청서를 검토하고, 앞 페이지에서 제시한 세부 분석 지표를 중심으로 각 작업의 특징을 파악 및 기록
- 선정작의 전반적인 경향 및 특징을 몇 개의 주제로 요약·정리하고, 주제마다 한 편의 짧은 에세이가 될 수 있도록 서술

## 2. 다원예술의 현재적 정의:

###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에서 이야기하는 예술가의 자가 정의

#### 가. 2021 Reboot 지원사업 현황

##### 1) Reboot 지원사업 배경

### ■ 블랙리스트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지원사업인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 지원사업>은 2015년 폐지되었음
  - 2015년 당시에는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 지원사업>의 폐지를 곧 블랙리스트 또는 정부 상위기관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향한 압박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음
  - 이후 언론 보도 및 예술인들의 증언과 여러 문건 자료를 통해 2015년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블랙리스트로 인해 <실험적 예술 및 다양성 증진 지원사업> 또한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음을 확인함

- 기존 한국 예술계에서 중요한 다원예술 플랫폼으로 인식되던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서울변방연극제’ 등이 주요 블랙리스트로 이름이 오르내리게 된 것 또한 이후 예술계에서 다원예술 지원 사업의 폐지를 블랙리스트와 바로 연결해 논의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작용함

### ■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와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복원

- 블랙리스트 이후 사태 해결 과정에서 제도화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란 한국 사회에서 블랙리스트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직적 관료 시스템의 폐해와 퇴행적인 협치 구조의 문제를 개선하고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에 입각해 예술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결정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임(정윤희, 2021: 106)
-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복원을 둘러싸고 2015년 이후 2020-21년까지 지난 5년간 한국 예술계의 변화를 두고, 과연 이전의 다원예술 지원사업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부연하면 한국 예술계의 작업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예술 장르 안에서도 다원예술적 요소의 작업이 증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외의 예술지원기관에서도 다원예술 관련 지원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을 변화의 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음
  - 한편 다원예술 지원사업 폐지의 직접적 타격을 입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서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본 사업의 복원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인식하게 된 경향도 존재함
- 결론적으로 다원예술 지원사업은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를 본 몇 개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며, 그런 점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복원이 언급된 것은 예상 가능한 수순임. 이런 맥락에서 2021년 복원된 사업은 ‘복원’의 의미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영어로 ‘Reboot’라는 표현을 덧붙임
- 그러나 사업의 복원과 더불어 다원예술이 현재 우리 사회 및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및 존재의 가치를 다시 논의하는 자리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1년 3월 16일 <2021 다원예술 포럼 - 다시, 다원>, 2022년 6월 2일 <2022 다원예술 포럼 - 블랙리스트 이후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안과 과제>라는 포럼을 개최함

※ 블랙리스트로 인한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폐지 및 이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복원에 관해서는 기존 자료에서 자세히 논의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간략하게 서술함.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에 발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1 다원예술 포럼 사후자료집 - 다시, 다원>, 2022년 운영된 다원예술TF 논의 내용을 담은 <2022년 다원예술TF 백서> 등에서 확인 가능함

## 2) Reboot 지원사업 운영 결과

### ■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사업 설계를 위한 추진 경과

- (2020.8월~12월) 사업혁신TF 다원예술분과 전문가 자문회의 6회 추진

- (2021.1월) 예술위원회 전체회의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 공모계획(안) 의결 유보
  - 1월 예술위원회 전체회의 주요 의견: 공모계획에 설명된 다원예술사업의 목적 및 취지를 분명히 하고,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공모계획(안) 수정 후 재의결할 것
- (2021.2월~3월)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개최 및 위원회 전체회의 추가논의
- (2021.4월) 예술위원회 전체회의 다원예술 활동지원사업 공모계획(안) 의결

##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및 취지
  - 기존 예술장르 중심 지원체계에서 탈피하여 형식이나 조건에 대한 제약 없이 설계하고 실행하는 예술활동을 지원
  -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복원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예술현장의 참여를 통해 동시대 다원예술의 정책적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담론을 공론화
- 신청 자격: 예술가(개인 및 단체)
- 사업 내용: 다원예술이라 자가정의하는 모든 형태의 예술을 대상으로 함
- 지원유형 및 규모: 정액 지원으로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유형 선택 신청
  - 유형1-500만원, 유형2-1,000만원, 유형3-1,500만원, 유형4-2,000만원, 유형5-3,000만원
- 지원심의
  - 심의는 예심 1단계와 본심 2단계로 구성
  -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중 시범적으로 ‘동료집단 심의(Peer Group Review)’를 블라인드 심의 방식으로 도입함
  - 동료집단 심의: 동료집단 평가 방식으로서, 다원예술의 정책적 정의 및 지원대상을 제도권 내에서 인위적으로 규정·제한하지 않고, 예술현장에서 직접 다원예술의 의미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별, 심의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 검토
    - (진행방식) 총 신청 건수가 400건일 경우 40건씩 1개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그룹 별로 지원 신청사업을 평가함(지원 신청자 본인 사업은 평가할 수 없도록 배치)
    - (결과적용) 그룹별 평가점수 편차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 보정 추진
  - 블라인드 심의: 동료 그룹의 공정한 심의 도모 및 경력으로 발생하는 선입견 방지 차원으로, 지원 신청서에 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제외, 프로젝트 기획의도와 활동 자체에만 집중하여 선별하도록 함 (1단계에 한함)

[표 3-2] 2021 Reboot 지원사업 심의

심의단계		심의내용
(예심) 1단계 *약 2배수 선정	동료집단 서류심의 (블라인드)	(심의위원) 지원신청자 전원 참여 : 지원신청자 전원이 무작위로 배치된 그룹 내에서 동료(사업)를 평가하도록 함 : 동료 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예심통과 불가능, 심사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음 (심의방식) 비대면 서류심의 : 블라인드로 제출한 지원신청서 기준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온라인 심의시스템에서 심사 : 평가자는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심사의견을 남겨 피드백함
(본심) 2단계	전문가 서류 및 토론심의 (기명 심의)	(심의위원) 다원예술분야 전문가 위촉 (심의방식) 서류 및 토론심의 : 지원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기반의 서류 심의 추진 : 심사위원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온라인 심의 시스템에서 최종 심사

■ 동료집단 서류심의 방식에 대한 예술현장 논란 발생

- 동료집단 서류심의 방식은 다원예술 지원사업 특유의 실험성을 정책 실험에도 연계하고자 한 작업이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동료평가 과정에서 타 예술인에 대한 혐오 및 차별 발언에 예술인들이 노출되었고, 작업 아이디어를 도용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의 위험성, 예술인들이 심의를 위해 일정 시간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심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따라 2021년 8월 3일 지원사업 신청자를 중심으로 한 예술인들로 구성된 ‘블라인드 방식 동료집단 심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원예술 동료평가 심의제도 현안 대응 TF를 구성함
- 이런 논란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결정한 후속 조치는 아래와 같음(2021.12.20.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안내문을 통해 공지됨)
  - 다양한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가칭)다원예술TF를 서둘러 구성하여 차년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개선안을 논의하고 2022년 2월 중에 확정하겠습니다.
  - 올해 동료심의 제도에 참여해 심의한 지원자 전원에게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심의사례비를 의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 올해 동료심의 제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조치는 (가칭)다원예술TF에서 추가로 논의하겠습니다.
  - 기존 예술위 심의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 다원예술의 시대적 흐름 및 다원 예술가들의 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칭)‘다원예술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를 진행해 향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2022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사업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다원예술가들이 주관하고 참여하는 온/오프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 나. 다원예술을 이해하는 몇 가지 기준

### 1) 초기 설정: 다양성, 실험성, 공공성

#### ■ 2006년 정책연구의 개념화 시도

- 『다원예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06)』는 다원예술이란 트랙을 신설하며 지원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한 보완적인 작업으로, 당시 다원예술을 둘러싼 여러 논의를 종합해 전달하고, 이를 통해 다원예술의 2006년 기준의 현재적 의미를 구성적으로 개념화하고자 함
- 이 연구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다원예술은 지원대상과 지원목표를 명확하게 표명하는 용어라기 보다는 기존 예술정책의 지원 과정에서 소외된 영역, 실험·인다·대안·복합·대중예술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한 집합적 용어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기존 예술개념과 장르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영역을 그때 그때 포착해내는 과정에서 형성되어온 영역이기도 하다.”(11-12 쪽)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한 예술 언어나 표현, 방식을 추구한다기보다 기존 개념과 체계 속에서 수행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의 활동들을 다원예술이란 개념으로 전부 수렴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다원예술의 조류와 지원방안(2007)』 연구는 다원예술의 속성으로, ‘경계와 사이의 예술’, ‘예술의 양식이나 형식보다 예술가의 창조적 가치에 우선순위’, ‘지금 여기에서 진행되는 현재진행형으로서의 예술’, ‘예술 소통 방식의 변화를 통한 참여 주체의 확장’의 4가지를 제시함(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10)
  - 이 4가지 중에서 ‘경계와 사이의 예술’이 사각지대나 중간지대에 놓인 예술의 새로운 출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 다양성, 실험성, 공공성의 등장 배경

- 상술한 것처럼 다원예술이 무엇을 명확하게 지향하는 개념으로 등장하기보다,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등장했지만, 2006-7년 연구는 다원예술을 고유한 속성 및 체계로 설명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보임
- 이런 욕구는 곧 다원예술의 가치 및 정체성을 개념화하여 예술정책 내에서 다원예술이란 영역이자 장르가 하나의 고유한 영역으로 인정받는 것을 기대한 것으로 생각됨
- 이런 맥락에서 당시 연구진은 다양성, 실험성, 공공성의 세 가지 개념을 제시함
  - 실험성은 ‘예술의 탈물질화 경향을 반영한 개념이며, 다양성은 ‘예술의 다문화주의’적 경향에 근거하고, 공공성은 ‘공동체 기반의 예술 추구’를 반영함(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17)
  - 2007년 보고서에서는 이를 좀 더 확장하여, “실험성은 다원예술의 가치이자 속성, 다양성은 다원예술 구도의 전체적 특성, 공공성은 다원예술이 추구해야 할 이념이자 방향”으로 개념화함(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15)
- 아래 그림은 다원예술을 ‘다양성, 실험성, 공공성’이란 가치와 ‘장르매체, 과정소통’이라는 형식으로 구분해 개념화한 결과를 보여주는 매트릭스임(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23). 설문조사 결과 형식에 있어서는 과정으로써의 예술이, 그리고 여러 가치 중에서는 공공성에 해당하는 사회 참여에 대한 가치가 가장 중요시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 다원예술의 개념정의(형식과 가치를 중심으로)

가치	형식	창작 결과 중심의 매체실험 (대안적 미디어, 장르실험 및 융합)	과정으로서의 예술, 전달과정 실험 (소통수단 및 수용방법)
사회참여 (예술의 공공성, 현실비판 등 문화행동주의)		유형 1	유형 2
공동체와 메시지 지향 (소수자, 다양성 등)		유형 3	유형 4

■ 다양성, 실험성, 공공성의 모호성

- 다원예술의 ‘다원’은 사전적 의미로 ‘요소나 근원이 여러 갈래, 또는 많은 근원’을 뜻하는 단어이며, 다원 및 다양성의 속성이 구체화되기 어려움
  - 다원예술은 해외에서 Combined Arts, Interdisciplinary Arts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 여러 가지 요소가 융합되고 혼종되는 특성을 강조하는 반면, 다원예술은 다원이란 말에서 다양성을 연상하기 때문에 해외의 용례와 일치하지 않음
  - 2007년 보고서에서는 ‘다양성은 다원예술 구도의 전체적 특성’이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과연 예술 작품에서 다루는 내용의 다양성인지, 표현 방식의 다양성인지, 또는 작품이 내포한 가치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함
- 다원예술의 실험성은 다원예술을 기성 장르에 반대되거나 대치되는 것으로 의미 부여하는 개념임
  - 다원예술의 유사 용어로는 실험예술, 대안예술, 탈장르예술, 비주류예술, 독립예술 등이 논의되는데(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3),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나 방식을 의미하는지 구체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험성에 동의하더라도 실제 창작의 과정에서 무엇을 실험성으로 정의할 수 있을지 어려움
- 2000년대 초중반 성장한 공공예술 씬은 곧 다원예술의 담론으로 확장됨
  - 공공예술 작업의 예술적 가치를 주로 사회적 가치, 또는 시대에 반응하는 예술로 개념화하게 되었고, 이런 공공예술 작업은 기존 시각예술 작업의 맥락으로 포섭하기 어려웠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는 공론장을 통해 공공예술을 다원예술의 한 요소로 개념화하는데 기여하였는데, 일례로 2007년에는 ‘새장르공공예술과 다원예술 비평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례포럼을 기획하여 2007년 6월 4일 <새장르공공예술의 공공성>이란 이름의 포럼을 개최함
    - 이 포럼에서는 ‘새장르공공예술’을 “비물질적이며 비영구적인 예술실험을 지향하는 새로운 형식과 태도의 공공예술”이라고 정의하며, 장르에 기반한 공공예술과 새장르공공예술을 서로 다른 것으로 개념화한다는 특징을 가짐
    - ‘새장르공공예술’이란 용어가 현재까지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논의의 맥락을 통해 당시 다원예술소위원회에서 공공예술을 마치 다원예술의 한 영역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의도와 방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음

## 2) 현재 설정: 예술생태계 내 기성장르와의 차이

### ■ 예술생태계의 일부로 다원예술을 접근하기

- 2006년 『다원예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부터 가장 최근인 2013년 진행된 『다원예술의 현황과 전망 연구』에 이르기까지 기존 연구의 특징은, 다원예술을 예술생태계 내 기성 장르 생태계와의 관계 속에서 다원예술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임
  - 다원예술 그 자체를 하나의 장르로 간주하고, 그런 다원예술의 형식 및 내용적 특성을 정의하고 개념화하는데 치중함
  - 예를 들어, 2013년 『다원예술의 현황과 전망 연구』에서는 다원예술을 형식적 측면에서 ‘매체실험성’과 내용적 측면에서 ‘가치지향성’이란 두 가지 척도로 구분하고, 아래와 같은 표를 제시함

[표 3-4] 매체실험-가치지향 매트릭스 영역 구분

가치지향	매체실험			
	장르실험	복합장르	탈장르	기타
사회참여	A 가치X매체			C 가치 지향
공공성				
종다양성	B 실험 지향			
미학중심				

- 다원예술이 가진 실험성 및 공공성이 기성 장르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다원예술을 기성 장르와의 대비가 아닌, 다원예술 그 자체의 속성으로만 설명하다 보면 다원예술을 개념화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정작 실제 작품을 놓고 이 작품을 다원예술인지, 아니면 기성 장르예술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예를 들어, 2013년 연구의 매트릭스에서 제시한 가치지향-사회참여라는 척도는 최근 창작 작업의 다수가 사회참여를 염두에 두거나, 또는 작업 그 자체를 사회참여의 한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다원예술에서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것이 기성 장르에서는 사회참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 다원예술에서 사회참여라는 척도가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강조된다는 것인지 맥락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움
  - 2013년 연구 매트릭스에서 ‘매체실험’이란 범주 또한 장르실험(기존 장르에서 출발했으나 장르 규범 밖에서 형식 실험을 하는 경우), 복합장르(기존 장르예술의 형식과 내용이 여러 층위가 겹치고 다른 장르 예술가와 공동창작을 하는 경우), 탈장르(다른 학문이나 과학 기술과의 리서치 및 공동작업을 통해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양식을 보여주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런 구분의 근거는 동의하지만 과연 이런 미세한 구분이 다원예술 씬을 더 잘 이해하거나 존립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동하는지 의문임
- 따라서 예술생태계의 일부로 다원예술을 접근한다는 의미는 다원예술을 하나의 고유한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기보다, 기성장르의 구성 논리와 메커니즘은 어떠하며,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왜 다원예술적 접근과 시도가 존재하는지 기성장르와의 일대일 대비 속에서 다원예술의 맥락을 이해하는 방식임

## ■ 왜 기성장르와 다원예술의 차이를 논하는가?

- 예술을 장르로 정의하게 된 역사가 근대 이후에 제도화된 약 2-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임을 생각해 봤을 때, 근본적으로 다원예술을 하나의 장르로 규정하고 기성장르와 차이를 서술하는 것은 예술의 유구한 역사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다원예술을 기성장르와의 차이에 기준해 설명하려는 이유는, 제2장의 질적 분석의 토대가 된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를 읽어보면 결국 다원예술 씬에 접속하게 되는 창작자는 기성 장르 생태계의 폐쇄성, 고리타분함, 경직성 등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인해 다원예술 장르에 오게 되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음
- 다원예술 작업을 통해 창작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자신의 고유한 예술세계를 실험하고 확장하는 것일 테지만, 그런 작업을 처음 수행하게 되는 배경에는 기성 장르의 창작 메커니즘에 대한 한계와 제한 때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방편으로 다원예술을 선택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 ■ 기성장르의 창작 메커니즘

- 예술이 장르화되고, 장르화된 예술에서 창작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전개됨
- 그런 점에서 예술사적으로 기성장르의 창작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것은 또 한 편의 연구가 될 정도로 방대한 이야기이겠지만, 본 연구는 기존의 논의를 참조하기보다 지원신청서에 담긴 창작자들의 말을 통해 이들이 무엇을 기성장르의 창작 메커니즘으로 간주하고 있는지 분석함
- 이런 분석을 통해 도출한 메커니즘의 요소는 다음과 같음
  - [언어] 창작의 주된 재료(source)는 무엇인가? 우리가 음악이라고 했을 때 소리 또는 악기를 연상하고, 연극이라고 했을 때 희곡이란 텍스트와 배우의 연기를 연상하는 것처럼, 기성장르는 우선 창작의 주된 재료가 되는 언어를 통해 장르의 규범을 획득함
  - [표현 방식] 창작의 재료를 활용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음악이라고 하면 소리가 연결된 선율을 리듬에 맞추어 악기가 연주하는 것, 연극이라고 하면 정해진 희곡 텍스트를 암기해 배우가 연기하는 것, 시각예술이라고 하면 다양한 색채와 조형적 요소를 활용해 작품을 만드는 것을 전통적인 표현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발표 형태] 작품을 전달하는 형태는 무엇인가? 특정 재료를 활용해 표현한 예술 작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매체와 플랫폼을 통해 관객과 만나는지에 대한 것으로, 온-오프라인 플랫폼, 공간, 비평매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가치] 작품을 통해 창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작품이 가진 내용적 가치나 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 등을 의미함
  - [담론] 해당 작품과 창작자가 예술생태계 내에 어떤 담론을 만들어내는가? 작품의 가치와는 별개로 이런 형태의 작업이 예술생태계의 진보와 발전의 측면에서 어떤 미학적 담론을 추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뜻함

## 다. 분석 프레임 및 방법

### 1) 분석 프레임

#### ■ 예술생태계 내 기존장르와 다원예술 씬의 대비 강조

- 이 분석은 다원예술 씬을 별도의 고유한 영역으로 보는 관점에 앞서, 기존장르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예술 창작의 메커니즘을 다원예술 씬이 어떤 방식으로 전복하고 실험하는지에 초점을 맞춤
- 그런 점에서 다원예술 씬은 기존장르를 레퍼런스(기준점) 삼아 기존장르와 어떻게 다른 작업을 하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을 제안함
- 이 프레임에서 제시한 대비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형태로 나타남
  - 언어: 장르적 무관심
  - 표현: 실험과 전복
  - 발표 형태: 다매체성
  - 가치: 동시대적 가치
  - 담론: 담론의 확장

#### ■ 메커니즘 구성 요소의 다층적 층위 표현

- 이 분석은 5가지로 제시한 구성 요소인 언어, 표현, 발표 형태, 가치, 담론이 같은 층위에 놓인 구성 요소가 아니라는 지적에서 출발함
- 다원예술 담론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예술 작업으로서 다원예술이 가진 미학적 성격과 사회적 가치 확장 등 다원예술의 작업이 사후적으로 사회 속에서 재구성되고 이해되는 맥락이 종종 같은 층위에서 논의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본 분석은 언어-표현방식-발표형태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는 하나의 작업/작품이 고유의 미학/예술적 가치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이런 순환고리가 다원예술 씬 안에서는 장르적 무관심에 기초해 선택한 예술 언어가 실험과 전복을 통해 표현 방식을 확장하고, 다매체성을 주요 발표형태로 채택한다는 점으로 이해함
- 이 순환고리를 통해 만들어진 작업/작품은 특정한 가치를 전달하는데, 기존 장르에서는 미(아름다움), 감동 등과 같은 예술이 가진 고유한 가치에 집중했다면, 다원예술은 좀 더 동시대적 가치의 전달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다름
- 다음으로 담론은 여기에서 가치와 또 다른 층위에 해당하는데, 가치가 작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가치라면 담론은 이런 가치의 전달을 통해 예술계 안에서 생성되고 순환되고 전달되는 이야기거리로 생각할 수 있음

#### ■ 다원예술 씬의 전환 과정에 연계된 가치 체계의 개념화

- 한편 예술생태계 안에서 기존장르에서 다원예술로의 전환은 '언어-표현방식-발표형태'의 순환고리의 혁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비판, 수용, 포용, 협력, 연결, 평등 등의 가치 체계가 예술생태계 안에서 중요한 화두로 제시되는 것을 통해 기존 장르가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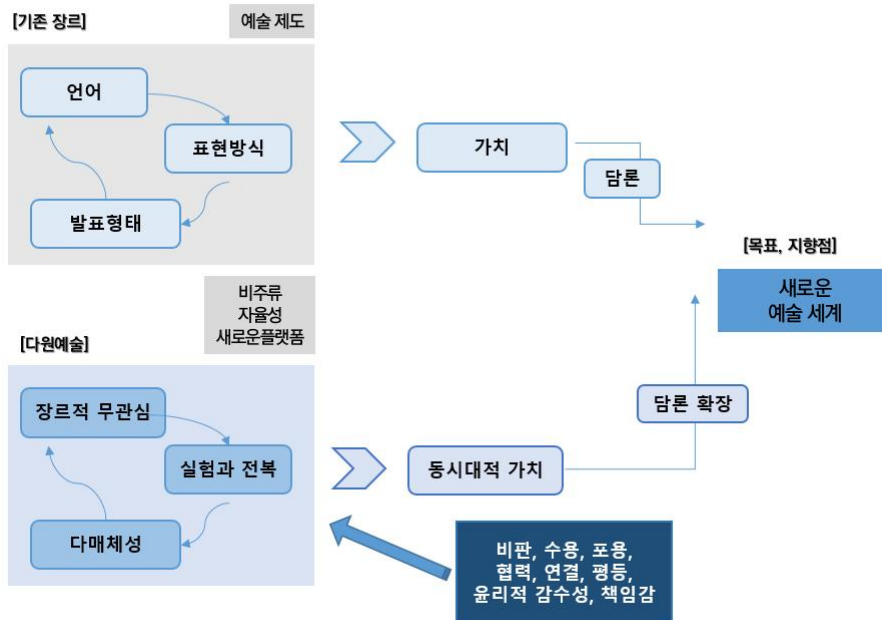
- 예를 들면, 예술계 미투를 통해 예술계 내에서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새롭게 이해되고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평등한 관계를 더 강조하는 것이 작업/작품의 맥락에서도 다원예술 씬이 확장되거나 발전되는 배경으로 작동함
- 따라서 비판, 수용, 포용 등의 가치는 다원예술 작품 안에 직접적으로 드러난다기보다 기존 장르가 왜 예술생태계에서 폐쇄성으로 인식되는지, 그리고 그런 폐쇄성에 반대되는 가치 체계로서 무엇이 개념화되는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새로운 예술세계라는 예술생태계의 궁극적 목표

- 이 분석 프레임의 정점은 예술인이 왜 창작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기존장르나 다원예술 씬 모두 예술인 고유의 새로운 예술세계를 만들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임
- 흥미로운 점은, 기존장르에서도 과거의 수많은 예술인들이 새로운 예술세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발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예술인들은 폐쇄적인 기존 장르의 논리 안에서 이런 세계의 구축이 더 이상 힘들다고 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다원예술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임
- 따라서 우리는 왜 다원예술을 정의 내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결국 예술인은 자신의 예술세계를 만들고 싶고, 다원예술은 그 자체로 작동하는 고유한 세계로 이해하기보다 예술생태계 안에서 어떤 개념을 전유해 나의 예술세계를 더 확장하기에 용이한가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 지금까지 설명한 개념 및 구조는 아래의 그림에 정리되어 제시됨

[그림 3-2] 예술인의 다원예술 자가정의 분석 프레임



## 2) 분석 방법

### ■ 분석 방법 및 과정 예시

- 지원신청서의 다원예술에 대한 예술인의 자가 정의는 그 분량과 표현 방식이 가지각색임
- 아래의 응답을 예시로 들자면, 9줄로 응답한 다원예술의 자가 정의에서 총 5개의 주요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음
  - 비수도권 지역, 젊은 청년예술인, 소외된 장르, 협력, 다양성의 5개 주요 키워드임

[표 3-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신청서의 다원예술 자가정의 예시

비수도권 지역에는 트로트, 전통음악 등 고착된 공연들만이 존재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음악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들려줄 수 있는 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내에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에게는 무대 기회가 없어 지역을 떠나게 된다. 대체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기성 예술인들이 예산과 기획, 무대의 기회를 독점하고 있어서 젊은 청년예술인들에게 기회가 오기 어려운 현실이다. 때문에 소외된 장르, 소외된 세대의 예술인들에게 실력, 정치색, 예술적 수준을 모두 내려놓고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을 하는 예술인들이 전공분야의 공연에서만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닌 지역 내 다른 청년 예술가를 빛내줌으로써 함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 적합한 진정한 다원예술이라 생각한다.

- 5개의 주요 키워드는 분석 프레임에 제시한 5개의 주요 구성요소와 매칭시킴
  - 소외된 장르: 언어
  - 젊은 청년예술인: 담론
  - 비수도권 지역: 담론
  - 협력, 다양성: 전환을 위한 가치 체계에 해당하여 주요 구성요소에서는 배제
- 물론 이렇게 추출한 키워드를 5개 주요 구성요소에 매칭시키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작업으로 보이나, 무작위로 추출한 100개의 지원신청서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맥락과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이 작업의 목표임

## 라. 5가지 기준별 추출 키워드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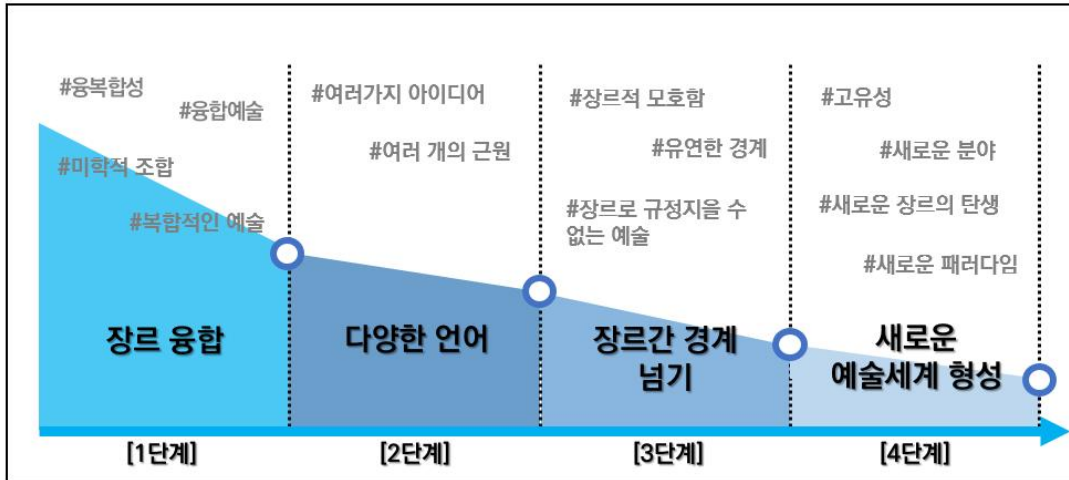
### 1) 언어: 장르적 무관심

#### ■ 다원예술에서 언어란 무엇인가

- 만약 전통적인 기존 장르라면 '(예술)언어'라고 했을 때 소리, 색채, 움직임(춤), 글 등을 언급할 것임
- 그러나 다원예술에서 언어란 반드시 어떤 재료로서의 예술, 장르로 규정 지어주는 언어나 재료에 국한되지 않음
- 다원예술에서의 언어는 구체적으로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 가장 기초적인 1단계는 여러 장르를 단순히 섞고 융합하고 혼합하고 종합하는 작업
  - 두 번째는 다원 및 다양성이란 말이 함축한 다양한 재료 그 자체

- 세 번째는 장르와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언어의 선택
- 마지막으로 장르나 언어에 아예 구애받지 않는 장르적 무관심으로서의 새로운 예술세계 구축

[그림 3-3] 다원예술에서의 언어



■ [1단계] 장르의 융합/중합

- 주요 추출 단어: 융합예술, 융복합성, 복합적인 예술, 미학적 조합,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의 조합, 미학적 조합, 종합적 스토리텔링
- 영어로 다원예술을 지칭하는 말 중 하나인 Combined Arts를 연상
- 한 작업 안에서 시각예술과 음악이 함께 등장하거나, 음악과 무용이 함께 연출되는 형태
- 장르의 언어가 어떤 점에서 서로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는지, 또는 융합과 중합된 장르의 궁극적인 작업 형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채 장르를 혼합한다는 그 행위에 주목

■ [2단계] 다양한 언어(재료)

- 주요 추출 단어: 여러 가지 아이디어, 여러 개의 근원, 다양한 자극, 복합적 영감
- 한국어 다원예술에서 '다(多)'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반드시 장르라는 언어로 중합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원예술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적 재료(이를 곧 언어라고 부를 수 있음)를 소재로 삼아 작품을 창작한다는 것을 의미함
- 구체적인 작품의 형태에서는 서로 다른 장르를 형식적으로 섞으려는 노력보다는 처음 작품을 기획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유롭게 다양한 예술적 언어를 소재로 삼아 기획하게 됨

■ [3단계] 장르 및 경계 넘나들기

- 주요 추출 단어: 다양한 장르, 예술인의 다양성, 장르적 모호성, 유연한 경계, 장르로 규정지을 수 없는 예술, 다양한 예술의 경계 넘기, 장르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예술
- 다원예술의 언어 및 장르적 경계를 의도적으로 융합하거나(1단계),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2단계) 다음으로 나아가 유연한 경계 넘기에 초점을 맞춘 것임



- 이런 예술인의 자가 정의에는 예술은 본래부터 장르로 규정된 분야가 아니며, 근대 이후 장르예술이 제도화되었지만 원래 예술이란 다양한 경계 넘기를 통해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라는 예술사적인 접근이 기저에 깔려 있음

■ [4단계] 새로운 예술세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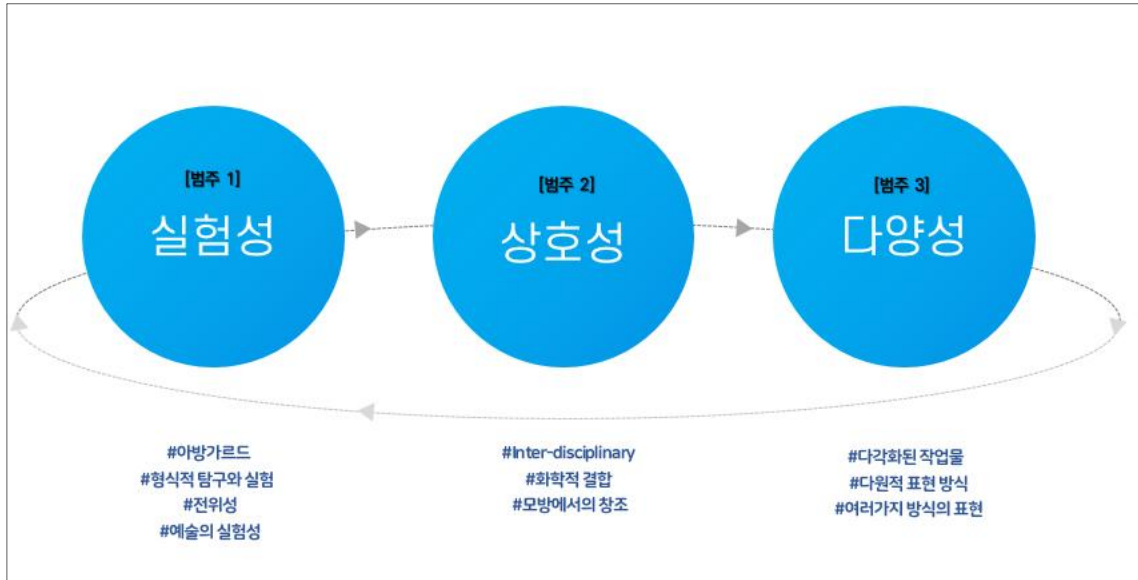
- 주요 추출 단어: 새로운 영역의 발굴, 고유성, 주체성, 전문성, 새로운 분야, 하나의 감정, 새로운 장르의 탄생, 새로운 패러다임
- ‘언어’와 관련해 예술인들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단계는 자신만의 고유한 새로운 예술 세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는 ‘언어’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은 표현 방식, 발표 형태, 가치, 담론을 모두 포괄하는 사실상 가장 상위의 목표에 해당함
- 다수의 예술인은 다원예술이란 별도의 장르가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예술세계를 형성하기 위한 플랫폼이자 토대로 인식하고 있음
- 기존 장르의 폐쇄적이고 견고한 틀 안에서 새로운 예술세계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원예술이란 틀 안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 이를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예술 언어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됨

2) 표현 방식: 실험과 전복

■ 다원예술이 표현 방식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지향성은 무엇인가

- 장르예술은 고유의 예술 언어만으로는 하나의 예술적 상징성이 완성되지 않음
- 고유의 예술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하는지, 그 방식을 통해 예술적 상징성이 완성됨
  - 서양음악을 예로 들면, 악기를 연주하기 위한 평균율이라는 화성학의 기본 원칙이나, 악기 연주 방법, 서로 다른 악기가 함께 합주하는 방식, 소나타 변주곡 등 악곡의 형식들이 결국 다수에게 이해 가능한 형태로 하나의 장르예술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함
- 그런 점에서 다원예술이 정말 새로운 예술을 하는가, 또는 기존의 장르 틀에서 벗어난 창작을 하는지 여부는 재료로서의 예술 언어보다는 오히려 표현 방식에서 차별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음
  - 다원예술을 가장 손쉽게 퍼포먼스(performance, performing)로 이해하는 것 또한 어떤 언어적 고유성보다는 표현 방식의 독특성에 기인한다고 봄
- 여기서는 다원예술의 표현 방식에 대한 언급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자 함, 앞의 언어와 달리 여기서 분류한 범주는 서로 순서나 층위를 가지는 것보다 동등한 층위에 위치한 수평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좋음
  - 실험성
  - 상호성
  - 다양성

[그림 3-4] 다원예술의 표현방식



■ [범주1] 실험성

- 주요 추출 단어: 실험적 정신, 새로운 창작 시도, 예술의 실험성, 형식적 탐구와 실험, 다각화된 표현과 실험, 다양한 실험, 아방가르드, 전위성
- 실험성은 다원예술 담론 가장 초기부터 언급된 중요한 개념으로, 다원예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증명해주는 요소와도 같음
- 이번 분석에서도 ‘표현 방식’ 중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요소가 실험성이며, 형식적으로 또 표현에 있어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실험성은 기존 장르체계 내에서 실험을 하기 어렵다는 인식, 또는 기존 장르체계 내에서도 실험을 하지만 정말 혁신적이고 전복적인 실험은 쉽지 않다는 인식에 근거해서, 다원예술을 예술생태계 내에 하나의 공고한 영역으로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에 해당

■ [범주2] 상호성

- 주요 추출 단어: 혼합, interdisciplinary, transdisciplinary arts, 화학적 결합, 모방에서의 창조, 신선한 예술적 교류
- 영어로 다원예술을 지칭하는 말 중 interdisciplinary arts라는 표현이 있음
- 상호성은 서로 다른 장르나 영역 간의 수평적 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예술 장르 간의 교류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예술과 과학기술의 교류, 예술과 인류학의 교류 등이 모두 넓게 상호성의 범주에 속함
- 앞서 설명한 실험성이 혁신적이고 새로워야 한다는 목표를 강조한다면 상호성에서는 서로 다른 영역 간에 어떤 방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지점이 중요함

■ [범주3] 다양성

- 주요 추출 단어: 여러 가지 방식의 표현, 다각화된 작업물, 다원적 표현방식, 다양한 표현 수단, 다양한 관점, 다채로운 형식

- 다양성은 실험성이나 상호성에 비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음
- 표현이나 형식적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따라서 실험적인 것이 곧 다양한 표현을 하게 되고, 상호성을 강조하게 되면 다양한 형식을 사용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음

### 3) 발표 형태: 다매체성

#### ■ 다원예술은 어떤 형태로 발표되고 관객과 만나는가

- 예술장르에서 발표 형태란 고유한 예술 언어를 하나의 장르로 완성해주는 역할을 함
  - 음악 장르에서 '무대'를 공고히 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술인과 관객이 분리되는 방식
  - 음악 장르의 공연이 콘서트홀, 공연장이란 형태를 띠는 것
  - 음악 장르 대부분의 공연에서 관객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 등
- 다원예술은 발표 형태에 있어서도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자 노력함
  - 여기서 말하는 발표 형태가 무대라는 공간부터, 작품 창작과 전달에 사용되는 매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기준인 '언어', '표현 방식'에 비해 모호하게 느껴짐
- 여기서는 발표 형태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자 함
  - 매체 및 플랫폼
  - 관객 참여
  - 과정 중심

[그림 3-5] 다원예술 발표형태

<p><b>[범주 1]</b> 매체 및 플랫폼</p>	<p>#다매체성 #탈물질화된 매체 #테크놀로지 #트랜스미디어 #자유로운 발표 형식 #유동적인 매체의 선택과 혼합</p>
<p><b>[범주 2]</b> 관객 참여</p>	<p>#관객과 어우러지기 #관객의 주체성 #다른 존재들 간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예술</p>
<p><b>[범주 3]</b> 과정 중심</p>	<p>#공동실험과정 #과정으로서 정의</p>

### ■ [범주1] 매체 및 플랫폼

- 주요 추출 단어: 새로운 플랫폼, 자유로운 발표 형식, 다매체성, 메타미디어적 형식, 새로운 매체, 테크놀로지, 기술, 복합적인 매체, 트랜스 미디어, 유동적인 매체의 선택과 혼합, 탈물질화된 매체
- '발표 형태'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범주는 매체 및 플랫폼에 관한 것으로, 다원예술이 고정화된 전통적인 매체나 플랫폼을 넘어 새로운 매체를 탐구하고 실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매체가 곧 기술(테크놀로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새로운 매체로 대두되고 특히 예술의 영역에 있어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상당히 새로운 실험임
  - 그런 맥락에서 새롭고 실험적인 매체 및 플랫폼을 이야기할 때 기술과 미디어가 언급됨

### ■ [범주2] 관객 참여

- 주요 추출 단어: 관객과 어우러지기, 관객 참여, 관객의 주체성, 다른 존재들 간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예술
- 관객 참여는 발표 형태 중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형태를 규정한 것으로, 최근에는 상당수의 예술 작업이 관객 참여를 통해 완성됨. 다원예술 담론 초기에는 이런 형태의 예술을 기존 장르 생태계 내에서 보기 어려웠고, 다원예술 특유의 실험적 시도를 관객 참여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었음
- 관객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예술인과 관객의 위계적 구조를 타파하려는 것이며, 반드시 관객이 특정 부분 참여해야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작품을 창작하는 근본적인 창작자의 태도가 탈권위, 탈위계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봄

### ■ [범주3] 과정 중심

- 주요 추출 단어: 공동실험과정, 과정으로서 정의
- 결과로서의 예술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예술을 강조하는 개념
- 이 범주 역시 관객 참여와 마찬가지로 장르의 제도적 권위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 중 하나이며, 다원예술 담론 초기에는 보다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원예술이 아니더라도 기존 장르에서도 과정 중심적 사고가 보편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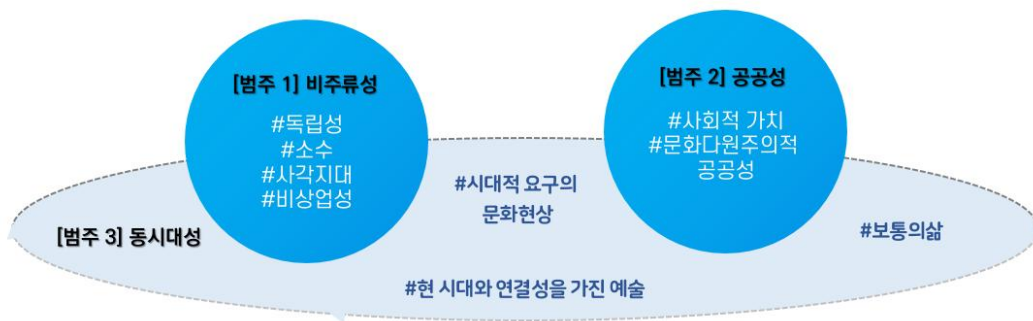
## 4) 가치: 동시대적 가치

### ■ 다원예술 작업/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 예술작품은 흔히 예술적 표현을 통해 고유의 미적 가치를 전달한다고 함
  - 다원예술 또한 작업과 작품 그 자체로 기존 미학에서 체계화된 미적 가치를 전달함
- 다원예술은 기존의 예술장르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가치의 전달을 다원예술의 주된 목표이자 소명처럼 초기에 설정하여, 다른 어떤 구성요소보다도 다원예술이 전달하는 가치가 담론화 과정의 초기에 상당히 주목받음
  - 이 가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성'임

- 다원예술의 가치는 한편 다원예술 담론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데,
  - 작품의 내용 그 자체가 담고 있는 가치와 이런 작품의 창작 과정이 드러내는 가치 등 가치를 어떤 차원에서 이해하는지 그 층위가 너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일관된 맥락에서 다원 예술의 가치를 이해하기 쉽지 않음
- 여기서는 다음의 몇 가지로 가치를 압축해 소개하고자 함
  - 비주류성
  - 공공성
  - 동시대성

[그림 3-6] 다원예술 가치



■ [범주1] 비주류성

- 주요 추출 단어: 독립성, 소수, 비주류, 사각지대, 비상업성, 시장 안에 포섭되지 않는 예술
- ‘비주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의 비주류를 말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제대로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움
  - 작품의 경향성이나 작업의 특징이 비주류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창작자 개인의 사회적 위치 또는 예술계 안에서의 위치나 입지의 비주류, 또는 작품이 재현되는 무대 및 공간적 특징의 비주류성 등 구체적인 현상으로 내려가면 무엇을 비주류라고 말하는지 분류하기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강조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등이 다원예술 주요 플랫폼으로 오랫동안 기능해왔기 때문에 비주류성은 다원예술의 가치를 논할 때 가장 오랜 시간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를 얻고 있는 가치로 볼 수 있음

■ [범주2] 공공성

- 주요 추출 단어: 사회적 가치, 문화다원주의적 공공성, 사회로 환원되는 예술
- ‘공공성’은 과거 다원예술 담론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된 다원예술의 새로운 가치이며, 현재에는 과거에 비해 공공성의 중요성이 다소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제시됨
- 과거 공공성 담론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는 공공성을 ‘사회적 가치’, ‘사회로 환원되는 예술’이란 표현에서 보듯이 예술이 가진 공적 가치에 한정하기보다 사회적 가치 및 의미를 예술을 통해 표현하고 환원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임

- 그런 점에서 공공성은 광의의 ‘사회’를 담기 위한 개념이고, 협소하게 공공성 그 자체를 공공예술이나 공공예술 작품으로 바라보는 관점 이상을 의미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1, 2022년 공공예술지원사업을 별도의 트랙으로 운영하였는데, 여기에 선정된 작업의 경우에도 장르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융복합 장르, 워크숍 운영, 과정 중심, 관객 참여 등 다원예술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음. 그런데 이들 작업이 좀 더 ‘공공예술’이라고 인식되는 이유는 이 작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새로운 예술적 작업의 창작보다는 장애, 페미니즘, 이동성, 연대 등 좀 더 공적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임

### ■ [범주3] 동시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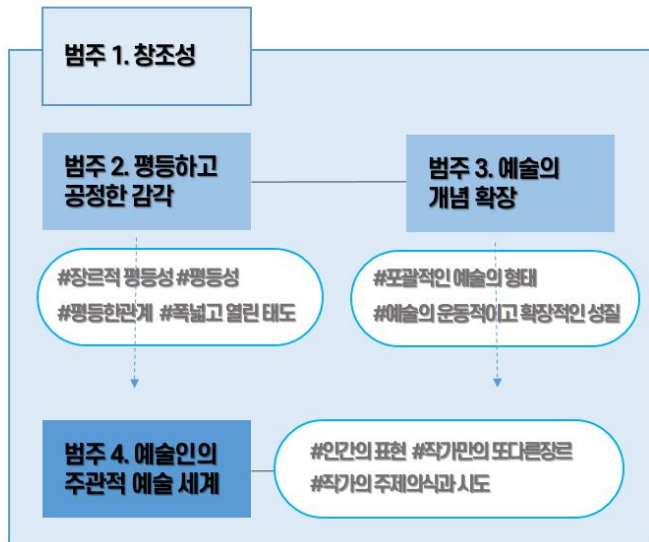
- 주요 추출 단어: 동시대성, 현 시대와 연결성을 가진 예술, 시대적 요구의 문화 현상, 보통의 삶
- 다원예술의 가치에 대한 언급은 주로 동시대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임
  - 비주류성, 공공성에 대한 언급에 비해 비중이 작음
  - 다원예술이 동시대의 이슈와 의제를 다루고,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현상이라는 의미

## 5) 담론: 담론 확장

### ■ 다원예술에서 담론이란 가치와 어떻게 다른가

- 기존 장르예술에서 담론은 작품 창작과 시간차를 두고 상당히 사후적으로 벌어지는 비평적 행위임
- 그러나 다원예술은 작품의 기획 및 창작 과정 전반에서 새로운 담론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특히 기존 장르예술을 전복 및 혁신하거나, 기존 장르예술의 틀을 깨부셔서 새로운 예술의 가치와 개념을 재정립하는 그 자체가 다원예술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에 담론을 별도의 구성요소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
- 다원예술의 ‘가치’는 좀 더 작품 및 작업 그 자체를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가깝다면, 다원예술의 ‘담론’은 전체 예술생태계 내에서 다원예술의 존재 이유와 영향 요인을 분석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가까움
- 여기서는 담론을 다음의 몇 가지로 분류하고자 함
  - 창조성
  - 평등하고 공정한 감각
  - 예술의 개념 확장
  - 예술인의 주관적 예술세계

[그림 3-7] 다원예술 담론



■ [범주1] 창조성

- 다원예술은 새롭고 혁신적인 예술을 지향하는 것으로, 다원예술 작업과 작품이 가진 창조성, 작업을 통해 표현되는 창조성이 중요한 담론의 하나로 논의됨
- 모든 예술은 창조적 작업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창조성이 다원예술만의 고유한 가치는 아님
- 하지만 다원예술은 기존의 예술 작업이 창조성의 가치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예술계 전반에서 창조적인 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음

■ [범주2] 평등하고 공정한 감각

- 주요 추출 단어: 장르적 평등성, 다원적 보편주의, 평등한 관계, 폭넓고 열린 태도, 수평성
- 다원예술은 한국의 예술계가 좀 더 '평등하고 공정한 감각'을 필요로 한다는 맥락에서 등장함
  - 여기서의 평등과 공정은 작품의 소재, 내용, 구성에 대한 것보다는 주로 작업의 방식, 예술 및 예술가의 우리 사회 안에서의 위치가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을 탈피하고 보다 평등하고 수평적인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향을 드러냄
  - 따라서 예술계에서 특정 작품에 대한 논의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평등과 공정성에 관한 담론이 확산되는 시기에 좀 더 다원예술 작업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 [범주3] 예술의 개념 확장

- 주요 추출 단어: 포괄적인 예술의 형태, 예술의 역할 확장, 예술의 운동적이고 확장적인 성질
- 다원예술이 형성하는 또 다른 담론은 '예술의 개념 확장'으로, 예술이 본래 포괄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다원예술 또한 장르를 단순히 섞고 혼합하는 차원을 넘어서 예술이 더 포괄적인 본래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담론을 의미함

■ [범주4] 예술인의 주관적 예술세계

- 주요 추출 단어: 인간의 표현, 느끼고 있는 자신, 작가의 주제의식과 시도, 작가만의 또 다른 장르

- 다원예술은 예술인의 주관적 예술세계를 표현하고 발산하기 위한 시도로서 존재함
- 예술인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예술세계를 펼쳐가는 것은 다원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의 소명이지만, 다원예술이 좀 더 강조하는 것은 예술인이 어떤 장르, 규정,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고유한 예술세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는 점임
- 그런 맥락에서 다원예술은 결국 예술인의 창작에 초점을 두고, 이런 주관적 예술세계가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그 지평의 확장성에 대한 담론을 논의함

### 3. 2021-2022년 선정작을 통해 보는 현재 다원예술 씬의 경향 및 특징

#### 가. 2021-22년 선정작 개요

##### 1) 2021년 Reboot 선정작 개요

###### ■ 신청접수현황 및 선정결과

-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에는 총 294건 약 6,339,499천 원이 접수되어, 지원심의회(1차 동료집단심의, 2차 전문가심의) 및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총 23건에 대해 480,000천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 이번 지원사업은 독특하게도 지원사업 신청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선정 결과와 함께 조사의 결과를 함께 공지함
- 선정작 목록(2021 Reboot 지원사업 선정작)

[표 3-6] 2021 Reboot 지원사업 선정작 목록

연번	신청인(단체)명	신청사업명	주요사업 키워드
1	곽주영	Liquidis_2021	뇌파 데이터, VR
2	김소윤	김 후보의 4대 공약_DMZ에서 달까지	남북관계, 복합매체
3	김연재	못갖춘마디	사물과 인간, 복합매체
4	다운쿼크팩토리	공간 모듈레이션을 이용한 예술적 오디오-비주얼 패턴 생성	리버브 효과, 공간 모듈레이션
5	리퀴드사운드	리퀴드사운드 리부트지원사업	5가지 기억, 해체작업
6	박수지	토마스의 언덕	물질과 추상의 관계, 복합매체
7	박은영	senulxued	유년기억에 관한 소설, 복합매체
8	송아리	살라만더	SF소설, 복합매체
9	송주관	COVID19: 공동진화의 가능성	코로나19, 테크놀로지
10	여다함	한 코 한 걸음	뜨개질, 복합매체
11	유지완	가능세계의 소리지도	소리지도, 사운드
12	윤푸름	Productive + (가제)	자본주의 작동원리, 춤
13	이상민	VRC	가상공간, 문학
14	이선민	Organic cyborg	신체, 조각



15	이수진	아울러 Ourler	설치 오브제 악기, 퍼포먼스
16	이양희	A Hedonist	안무, 복합매체
17	이유리	Electric Forest	테크놀로지, 생태계
18	임고은	인간-모래와 세상-바위 사이에서	정원의 구성요소, 복합매체
19	장혜진	<당신은 유령을 초대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이크 진자운동, 춤
20	정재우	Simulacriety	실시간 모션캡처, 오토튠
21	조아라	Be-Muse: 맷고 풀기	판소리의 맷고 풀기, 퍼포먼스
22	조주현	알고리즘과 수행적 몸	보험 산업 알고리즘, 릴렉스 퍼포먼스
23	프로젝트 산파	숲의 정적	기후 생태계 위기, 복합매체

## 나. 분석 방법

### 1) 분석 자료 및 대상

#### ■ 분석 자료: 사업 결과보고서

- 해당 사업의 결과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됨
  - 사업기본정보: 선정자명, 작품명, 사업내용 요약, 사업기간, 사업장소, 발표유형, 부대행사, 주요 관람객 층, 사업예산
  - 세부사업추진내역: 변경사항, 세부 추진 내용, 참여 예술인 목록
  - 사업추진성과(비계량성과): 사업성과, 향후 발전 및 활동 계획 수립여부/내용
  - 사업추진성과(계량성과): 예술작품 생산건수, 사업횟수 등
  - 사업 생산 및 유통성과
  - 예산집행실적

#### ■ 분석 대상 문항

- 본 보고서는 위의 정보 중 아래의 항목을 중심으로 자료를 재구성 및 분석함
  - 사업장소
  - 발표유형
  - 참여 예술인 구성 및 다양성
  - 사업성과(비계량성과)
- 여러 문항 중 위의 문항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사업장소: 예술 장의 상징적 경계를 구분하는 요인 중 중요한 것으로 예술 활동이 벌어지는 공간을 말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공연장이나 극장에서 상연되는 작업을 우리는 시각예술보다 공연예술, 그리고 갤러리나 미술관, 박물관에서 상연되는 작업을 공연이 아닌 시각예술이라고 부름. 이런 구분을 기준으로 할 때 결국 한 작업이 어떤 사업장소에서 진행되었는지 여부가 작업의 장르를 규정하는 효과를 가짐

- 발표유형: 다원예술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로 발표유형을 범주화했을 정도로 작업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식으로 발표된다는 것이 다원예술의 주요 특징임. 그런 점에서 선정작의 발표유형을 하나의 경향성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참여 예술인 구성 및 다양성: 다원예술은 장르의 관점에서 여러 장르가 융합되고 혼합된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경향이 있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쉽게 작업의 장르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작업의 내용이라기보다 그 작업에 참여한 예술가의 다양성을 통해 규정할 수 있음
- 사업성과: 결과보고서에 예술가는 한 단락 정도 사업의 성과를 정성적으로 서술하도록 되어 있음. 이 문구를 통해 예술가가 작업을 통해 목표한, 그리고 실제 수행을 통해 받은 피드백으로 작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다원적 요소를 유추해 볼 수 있음

## 2) 분석 방법

### ■ 자료 재구성

- 사업장소: 실제 사업 장소명과 이 장소의 범주를 함께 코딩함
- 발표유형: 예술가가 직접 기입한 발표유형을 그대로 기록함
- 참여 예술인 구성 및 다양성: 결과보고서에는 참여 예술인을 성명, 장르, 역할 등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성명과 역할보다는 장르 중심으로 코딩함
- 사업성과: 연구자가 사업성과를 직접 읽어보고 주요 키워드를 추출함

## 3) 분석 결과

### ■ 분석 결과표

- 사업장소, 발표유형, 참여 예술인, 성과로 구분한 분석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3-7] 2021 Reboot 지원사업 선정작 분석 결과

연번	사업장소(실제)	사업장소(범주)	발표유형	참여 예술인	성과
1	윈드밀	복합	전시	조각, 영상, 퍼포머, 음악	다원예술의 새로운 개념 정의
2	갤러리 더 플렉스	전시	전시	시각예술	다학제적 리서치
3	토탈미술관	전시	출판, 전시, 대화	시각예술, 미디어, 사운드, 비평가	출판물 호응
4	out sight	전시	전시 및 퍼포먼스	시각예술, 음악	퍼포먼스와 조각과의 융합
5	창작스튜디오 리을	복합	전시, 공연, 아카이브	미디어, 무용, 영상	라이브 공연과 유튜브 동시 송출
6	갤러리 도스	전시	전시, 퍼포먼스	퍼포머, 시각예술, 작곡, 영상	전시장에서의 길이가 긴 퍼포먼스
7	코레오그라픽, 신촌극장	전시, 공연	전시, 공연	음악, 영상	관객 참여
8	코너갤러리	전시	전시	사진, 디자인	
9	인사동 kote	복합	공연	무용, 국악, 연극	무대 설치미술과 음악과의 유기적 연결
10	구명성교회	복합	공연	무용	안무의 의미 확장
11	탈영역우정국	전시	전시	미디어, 사운드	
12	성북예술창작터	전시	전시	사운드	VR
13	더레퍼런스	전시	전시	사운드, 영상, 문학	기계와 인간 잇기
14	콘텐츠문화광장	복합	전시, 퍼포먼스	단일	포스트휴먼 담론
15	더북소사이어티	서점	출판	시각, 안무, 미디어	다양한 장르 역임
16	윈드밀	복합	공연, 출판	음악	소리의 기능, 역할 탐구
17	문화비축기지, 오픈스페이스	복합	영상, 워크숍	시각	워크숍과 출판
18	메리홀	공연	공연	무용	
19	인사동 갤러리 밈	전시	공연, 전시, 참여	무용, 연극, 작곡	참여 전시
20	스페이스몽	공연	공연	무용, 음악	범 장르적 예술
21	더레퍼런스	전시	공연	무용, 작곡	퍼포먼스

■ 시각예술 및 전시 기반 공간 유형

○ 분석에 활용된 21건의 결과보고서 중 11건이 '전시' 기반 공간에서 진행

- 공연, 전시, 복합의 구분이 다소 작의적이고 주관적이지만, 각 공간에서 기존에 진행한 예술 작업의 형태와 공간의 자체적인 소개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21건의 작업 중 총 11건의 작업이 전시 기반 공간에서 진행됨

- 다음으로 복합이 7건, 공연 2건, 서점 1건을 기록함
- 복합으로 명시된 공간은 흔히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이 함께 공연되는 다원예술에 적절한 공간으로 보임

○ 최근 다원예술 씬의 주요 공간: 윈드밀, 탈영역우정국, 더레퍼런스

- 일부 결과보고서에는 최종 공간을 결정하기까지 후보지가 되었던 공간에 대한 언급 등장
- 이런 언급에는 주로 윈드밀, 탈영역우정국, 더레퍼런스 등이 거론됨
- 이 공간들의 특징은 대학로, 홍대앞, 을지로 등과 같이 문화 공간이 다수 밀집된 클러스터 지역이 아니라, 주변에 별로 문화공간이 많지 않은 공간에 위치한 곳들이라는 것임
- 그런 점으로 비추어 봤을 때 다원예술은 지리적, 물리적으로도 어떤 하나의 특정화된 경계나 정체성을 벗어나려는 것은 아닌가 생각됨

■ 공연, 전시 등 결과물 위주의 발표 형태 추구

○ 최근 예술계 담론에서는 과정 중심의 작업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분석한 21건의 작업에서는 과정 중심보다는 결과물 위주의 발표 형태가 많음

- 대부분 공연, 전시, 퍼포먼스, 출판 등을 통해 결과물을 생산함
- 워크숍이나 참여 형태를 전제로 하는 것은 넓게 보아도 21건 중 4건에 불과
- 특히 일반인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은 많지 않고, 작업의 의미가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퍼포먼스 강세

- 발표유형 중 퍼포먼스를 기입한 작업이 21건 중 3건이며, 직접 이렇게 기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작업의 내용에서 퍼포먼스가 함께 포함된 경우가 많음
- 한 때 다원예술을 곧 퍼포먼스로, 퍼포먼스를 곧 다원예술로 이해했을 정도로 이런 예술의 수행성(performativity)가 여전히 다원예술의 주요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고 봄

■ 시각예술 및 무용 장르의 주도

○ 21건 중 시각예술 장르 참여는 12건, 무용 장르 참여는 8건으로 주로 시각 및 무용이 주도

- 시각예술 작업은 무대에서의 설치미술이나 영상물 및 다양한 미디어의 제작 등 전통적인 회화나 조각 위주의 시각예술은 아니지만, 광의로서 시각예술의 작업이 주가 됨
- 무용은 시각예술보다 더 집단적으로 참여함 (무용단, 무용단체 등)
- 무용의 경우 퍼포먼스가 주가 되면서 여기에 배경음악을 작곡하거나, 다른 장르의 요소가 부분적으로 가미되는 형태가 많음

○ 이 밖에 비평가, 연구자, 아키비스트 등 다양한 직업군 및 역할이 함께 결합됨

■ 예술에 대한 동시대적 고민의 수행

○ 포스트휴먼, 기계 및 사물에 대한 고민

- 최근 코로나19 이후 기계 중심의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인문사회과학 전반적으로 포스트휴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 대다수의 작업은 이런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유전자 전문 연구자와의 대담이

- 나, 다른 분야 과학자와의 대담 및 자문을 통해 작업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음
- 그런 점에서 자신의 작업을 ‘다학제적 리서치’로 정의하기도 함
- 동시대 예술의 역할 그 자체에 대한 고민 또한 지속
  - 사운드의 제작 방식이나, 길이가 긴 퍼포먼스, 안무의 의미 확장 등 기존 예술 작업에서 수행하고 있지 못하던 새로운 고민과 실험을 볼 수 있음

## 4. 소결

### ■ 다원예술 개념 및 정의에 대한 예술계 전반의 공감대는 지속적으로 유지

- 다원예술 담론 초기의 실험성, 공공성, 다양성 등의 가치는 현 시점에도 중요한 개념적 요소로 등장
- 예를 들면, 다양성의 경우에도 장르적 다양성, 표현 방식의 다양성, 발표 형태의 다양성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 것처럼, 담론 초기에 의미한 다양성이 현재의 다양성과 그 구체적인 양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술계 전반적으로 다원예술이 왜 등장했고,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나름의 합의가 존재함
-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요소로 등장한 다원예술이 이제는 나름의 개념적 지형을 만들었을 정도로 다원예술정책은 소기의 정책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음

### ■ 예술가의 새로운 예술세계 확장이란 궁극적인 목표 중요

- 기존 연구와 본 연구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다원예술이 장르적 무관심이나 융복합을 추구하는 이유는 예술가의 고유한 예술세계를 개발하고 확장하기 위함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발견한 것임
- 상술한 것처럼 다원예술 개념 및 정의가 나름의 합의를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다원예술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등장하는 이유는 새로운 예술세계 확장을 위해서는 굳이 다원이나 장르라는 규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예술장르와의 차이를 전제로 하여, 왜 기존 예술장르는 새로운 예술세계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였음

### ■ 예술계의 다양한 담론 및 구조의 변동 속에 다원예술 현장을 이해해야 함

- 결국 다원예술은 그 자체로 논의하기 어렵고 예술계 안에서 어떤 새로운 담론을 요구하는지 그런 구조의 변동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핵심임
- 다원예술이 유독 작업 그 자체보다 다양한 가치와 담론을 양산하는 것 또한 다원예술의 태동부터 변화와 발전이 모두 예술계에서의 담론을 통해 생성되기 때문임

### ■ 다원예술은 하나의 장르로 규정될 수 없으며 다른 싹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는 관계적 개념

- 이런 맥락에서 만약 다원예술이 하나의 장르인지 질문을 던진다면, 다원예술은 하나의 장르가 아니며, 모든 예술이 더 새롭고 혁신적인 다양한 가치를 담은 예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원에

술을 하나의 지향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결국 다원예술은 다른 예술 장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는 관계적 개념이며, 다원예술 하나만 별도의 경계로 설명할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다원예술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기존의 장르썬이 자연스럽게 보수화되고 자기만의 틀을 견고하게 가지려 하기 때문에, 다원예술이란 개념을 경유하여 우리가 예술썬의 새로운 혁신과 실험을 계속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임

■ 무용, 퍼포먼스, 기계, 테크놀로지, 전위 등의 개념이 지속됨

- 다원예술을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작업으로 이해한다면, 가장 가시적이고 눈에 띄는 주제는 무용, 퍼포먼스, 기계, 테크놀로지, 전위 등으로 볼 수 있음
- 결국 퍼포먼스 예술이 처음 태동하였을 때, 기존의 예술을 매체적으로 전위하고 실험하려고 했던 점, 우리의 몸이 가지는 수행성, 그런 몸을 하나의 사물로 인식했을 때 기계나 테크놀로지가 함께 결합되는 방식이 우리가 이런 다원예술 지형을 통해 예술계가 나아가려는 경향성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음

## 제4장

---

다원예술 생태계 및 지원사업 수요 파악을  
위한 조사 분석

# 1. 설문조사 개요

## 가. 설문조사 배경 및 목적

- 동시대 예술 현장의 변화에 따라 기존 장르 예술과 지원체계에 수렴되지 않는 새로운 예술활동과 주체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흐름들이 다원예술에서 수용되면서 다원예술의 개념과 범주가 계속해서 변화해옴
- 이에 창작방식, 활동유형, 창작에 도움을 받는 기관/공간 등 다원예술 창작의 과정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다원예술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적 의미를 확인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재적 시점에서 다원예술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주관적 인식, 창작의 과정,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여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정책 개선 및 사업기반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나. 설문조사 설계

- 다원예술 선행연구(2006,2007,2008,2013)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포럼, 라운드테이블 등 관련 자료를 통해 다원예술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다원예술 관계자와 심층 인터뷰를 3회 실시하여 다원예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이슈를 도출함
- 다원예술의 정의에 대한 현재성 인식, 다원예술 창작의 과정, 지원사업의 수요를 중심으로 조사내용을 설계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 부서와 함께 설문 문항을 협의하고 확정함
- 200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한 <다원예술 창작현황 연구>와 동일한 항목을 설계하여 다원예술 생태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여 비교 분석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2021년-2022년 다원예술 지원사업 신청자 및 다원예술 포럼 참여자 명단을 공유받아 문자 전송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 최종 조사된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검증을 확인하는 에디팅(Editing) 과정을 거치며, 오픈문항(주관식 형태)으로 입력된 데이터는 부호화 작업인 코딩(Coding) 과정을 진행함. 이후 전체적인 데이터는 입력 자료의 오류를 검색하는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분석에 사용함. 응답자 특성별 분석의 경우 유의미한 사례수(사례수 30개)보다 미달된 사례수를 가진 특성의 경우 분석하지 않음

[표 4-1] 설문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2022 다원예술 지원사업 신청자 1,125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TF&포럼 참여자 40명 기타 다원예술과 본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
조사표본	221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에 기반한 설문조사 (온라인 웹조사)
조사처리방법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하여 각 항목별로 빈도/교차 분석 실시



조사기간	2022년 12월 09일 ~ 12월 19일
조사기관	(주)티브릿지코퍼레이션

## 다. 설문조사 내용

- 한국 다원예술 생태계 진단 및 지원방안 연구 조사는 다원예술의 정의와 현재성 인식, 다원예술 창작의 과정, 다원예술 지원사업 수요, 응답자 특성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세부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4-2]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예술영역 활동 기간 예술활동 주요 지역 예술 관련 학과 전공 경험 최종 학위 전공 문화예술 활동 유형 문화예술 활동 장르
PART 1. 다원예술의 정의와 현재성 인식	다원예술의 정의 다원예술의 개념 다원예술이 한국 예술계에 기여한 점 다원예술 독립 장르 위상 여부 다원예술 독립 장르 위상 긍정/부정 응답 이유 다원예술의 지형
PART 2. 다원예술 창작의 과정	다원예술 분야 활동 시작 경로 다원예술 분야 주요 활동 유형 다원예술영역 작업 비율 다원예술 지원사업 신청 및 활동 이유 다원예술영역 창작활동 기간 다원예술 관련 활동 지속 방법 및 경로 다원예술 분야 창작 활동 방식 창작 활동 주 협업 파트너 다원예술 영역 창작 활동 비평 및 피드백 방식 다원예술 창작 활동 도움 경험 다원예술 활성화를 위한 필요 지원 다원예술 작품/프로젝트 평균 소요 기간
PART 3. 다원예술 지원사업 수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신청 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지원사업 참여 역할 타 기관 다원예술 지원사업 신청연도 타 기관 다원예술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지원받은 타 기관 및 사업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지속 이유

	다원예술 사업 지원 변화 필요 부분 다원예술영역 창작활동 관련 공공지원 필요 부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관련 자유의견
--	---

## 라. 응답자 특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2022년 다원예술 지원사업 신청자 1,125명과 다원예술 포럼, 리운드테이블 참여자 40여명을 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전반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신청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다원예술 생태계와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표현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 다원예술의 생태계 진단 및 지원방안 연구 설문조사에 참여한 221명의 응답자 특성을 성별, 연령별, 예술 활동 기간별, 예술 활동 주요 지역별, 예술 관련 학과 전공 경험, 최종학위전공, 문화예술 활동 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장르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 지원금 수혜 여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4-3]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	
전체	221	100.0	
성별	여성	133	60.2
	남성	75	33.9
	응답하지 않음	13	5.9
연령	20대	17	7.7
	30대	98	44.3
	40대	61	27.6
	50대	32	14.5
	60대 이상	13	5.9
예술영역 활동 기간	3년 미만	18	8.1
	3년 이상 5년 미만	34	15.4
	5년 이상 10년 미만	59	26.7
	10년 이상 15년 미만	36	16.3
	15년 이상	74	33.5
예술 활동 주요 지역	서울	134	60.6
	인천/경기	32	14.5
	충청권	13	5.9
	경상권	20	9.0
	전라권	18	8.1
	강원	2	0.9
	국외	2	0.9
예술 관련 학과 전공 경험	예술 전공 경험 있음	185	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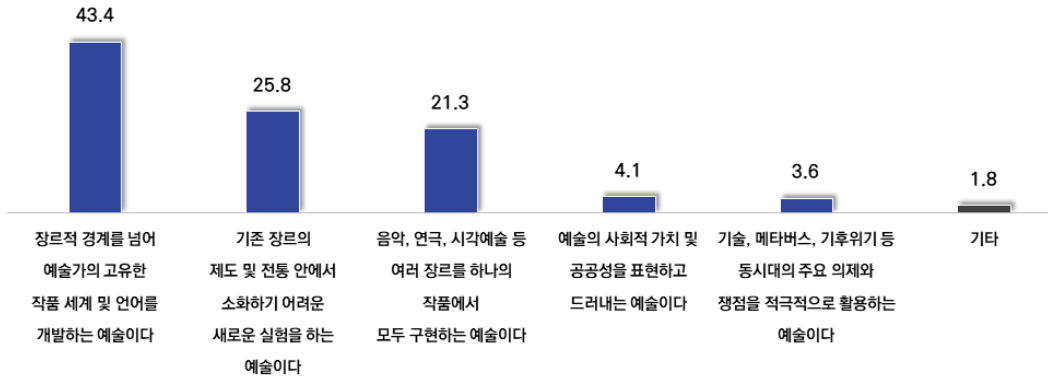
	예술 전공 경험 없음	36	16.3
최종 학위 전공	예술전공 학위	148	67.0
	비예술전공 학위	73	33.0
문화예술 활동 유형	창작/발표 활동	179	81.0
	기획/경영 활동	23	10.4
	기타(교육, 평론 등) 활동	19	8.6
문화예술 활동 장르 (복수응답)	문학	19	8.6
	시각예술	104	47.1
	사진	11	5.0
	건축	2	0.9
	전통예술	30	13.6
	음악	64	29.0
	연극	60	27.1
	무용	33	14.9
	영화	24	10.9
	기획/경영/정책	44	19.9
	기타	17	7.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 지원금 수혜 여부	수혜자	86	48.3
	미수혜자	92	51.7

## 2. Part 1. 다원예술의 정의와 현재성 인식

### 가. 다원예술의 정의

- 다원예술의 개념적 정의는 다원예술이 등장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주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동시대 예술 현장의 변화와 수요에 따라 그 정의를 조정하며 지원대상의 범주에 새로운 예술적 현상을 수용해가는 과정으로 진행됨
- 다원예술의 정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장르적 경계를 넘어 예술가의 고유한 작품 세계 및 언어를 개발하는 예술이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기존 장르의 제도 및 전통 안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새로운 실험을 하는 예술이다'와 '음악, 연극, 시각예술 등 여러 장르를 하나의 작품에서 모두 구현하는 예술이다' 순으로 나타남
- 현재 다원예술은 장르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예술을 하는 실험, 여러 장르를 융복합하는 예술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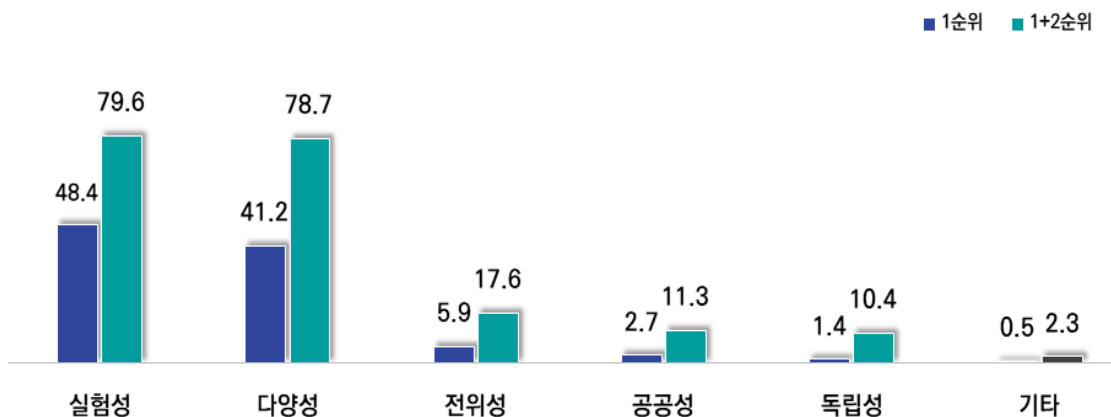
[그림 4-1] 다원예술의 정의



## 나. 다원예술의 개념

- 다원예술의 개념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실험성’, ‘다양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1+2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실험성’ 79.6%, ‘다양성’ 78.7%이 비슷한 비중으로 높게 나타났음. 다원 예술의 중요한 속성으로서 실험성과 다양성이 현재적 가치로 확인됨
  - 2006년 <다원예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분석한 다원예술의 가치로서 실험성, 다양성, 공공성 중에서 실험성과 다양성이 현재(2023년 기준) 시점에도 유효한 가치로 확인됨
- 세대별로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다원예술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가 상이함
  - 실험성은 4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속성으로 확인됨
  - 공공성은 전체 응답 비중에서는 다원예술의 중요한 속성은 아니었지만, ‘50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다원예술의 속성으로 인식되고 있음. 예술가로서 활동한 시대적 경험에 따른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로 해석해볼 수 있음

[그림 4-2] 다원예술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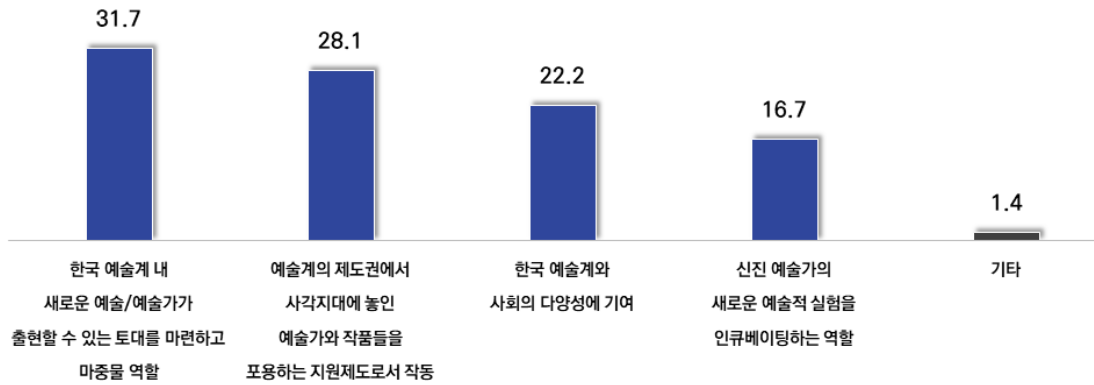
[표 4-4] 다원예술 개념 (1+2순위)

구분	사례수	실험성	다양성	전위성	공공성	독립성	기타	
전 체	(221)	79.6	78.7	17.6	11.3	10.4	2.3	
연령	20대	(17)	88.2	70.6	35.3	5.9	0.0	0.0
	30대	(98)	80.6	77.6	21.4	6.1	12.2	2.0
	40대	(61)	85.2	80.3	14.8	9.8	8.2	1.6
	50대	(32)	65.6	87.5	3.1	25.0	15.6	3.1
	60대 이상	(13)	69.2	69.2	15.4	30.8	7.7	7.7
미술·음악·연극·영화·영상·미디어·건축·전통예술·문학·사진·기타	문학	(19)	68.4	73.7	15.8	15.8	21.1	5.3
	시각예술	(104)	80.8	76.0	20.2	9.6	9.6	3.8
	사진	(11)	81.8	45.5	36.4	9.1	18.2	9.1
	건축	(2)	50.0	100.0	0.0	50.0	0.0	0.0
	전통예술	(30)	93.3	86.7	6.7	3.3	10.0	0.0
	음악	(64)	75.0	84.4	4.7	18.8	15.6	1.6
	연극	(60)	76.7	90.0	15.0	6.7	8.3	3.3
	무용	(33)	81.8	72.7	33.3	3.0	3.0	6.1
	영화	(24)	87.5	83.3	12.5	0.0	12.5	4.2
	기획/경영/정책	(44)	88.6	84.1	9.1	9.1	6.8	2.3
	기타	(17)	70.6	76.5	11.8	23.5	5.9	11.8

#### 다. 다원예술이 한국 예술계에 기여한 점

- 다원예술이 다양한 장르 예술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새로운 예술/예술가가 출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한국 예술계에 기여한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함
- 예술계의 제도권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가와 작품들을 포용하는 지원제도로써 작동했다는 응답에서는 남성과 여성, 응답하지 않음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결과를 보임
- 연령과 예술영역 활동기간에 따라서 한국 예술계에 다원예술이 기여한 점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임
  - 30대 이하에서 신진 예술가의 새로운 예술적 실험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과 예술영역 활동기간이 높을수록 '한국 예술계와 사회의 다양성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4-3] 다원예술이 한국 예술계에 기여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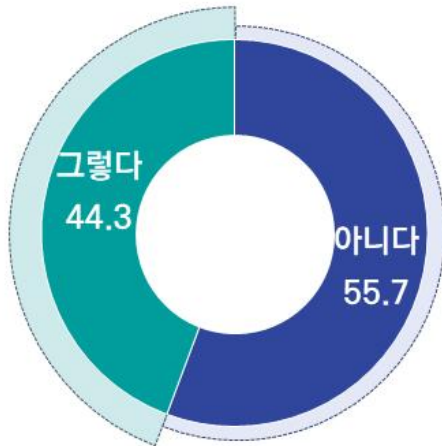
[표 4-5] 다원예술이 한국 예술계에 기여한 점

구분		사례수	한국 예술계 내 새로운 예술/예술가가 출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마중물 역할	예술계의 제도권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가와 작품들을 포용하는 지원제도로서 작동	한국 예술계와 사회의 다양성에 기여	신진 예술가의 새로운 예술적 실험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	기타
전 체		(221)	31.7	28.1	22.2	16.7	1.4
성별	여성	(133)	28.6	30.1	23.3	16.5	1.5
	남성	(75)	38.7	21.3	21.3	17.3	1.3
	응답하지 않음	(13)	23.1	46.2	15.4	15.4	0.0
연령	20대	(17)	23.5	29.4	5.9	35.3	5.9
	30대	(98)	26.5	26.5	22.4	22.4	2.0
	40대	(61)	36.1	32.8	21.3	9.8	0.0
	50대	(32)	40.6	31.3	21.9	6.3	0.0
	60대 이상	(13)	38.5	7.7	46.2	7.7	0.0
예술영역 활동기간	3년 미만	(18)	27.8	27.8	5.6	38.9	0.0
	3년 이상 5년 미만	(34)	23.5	41.2	8.8	20.6	5.9
	5년 이상 10년 미만	(59)	37.3	23.7	25.4	13.6	0.0
	10년 이상 15년 미만	(36)	33.3	33.3	16.7	13.9	2.8
	15년 이상	(74)	31.1	23.0	32.4	13.5	0.0

## 라. 다원예술 독립 장르 위상 여부

- 다원예술이 독립장르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는 응답이 '그렇다'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음. 다원예술이 장르라기보다는 예술 창작을 위한 지원제도의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예술가들이 이용한다고 분석해볼 수 있음
  - 한국 예술계에서 다원예술이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44.3%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55.7%는 아니라고 응답했음
- 국내 다원예술 생태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해온 장르인 시각예술과 무용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문화예술 활동장르>에서 '시각예술'(51.9%), '무용'(51.5%)이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연극'(75.0%), '전통예술'(66.7%), '음악'(57.8%)에서는 '아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4] 다원예술 독립 장르 위상 여부



[표 4-6] 다원예술 독립 장르 위상 여부

구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 체	(221)	44.3	55.7	
문화 예술 활동 장르	문학	(19)	68.4	31.6
	시각예술	(104)	51.9	48.1
	사진	(11)	54.5	45.5
	건축	(2)	100.0	0.0
	전통예술	(30)	33.3	66.7
	음악	(64)	42.2	57.8
	연극	(60)	25.0	75.0

	무용	(33)	51.5	48.5
	영화	(24)	37.5	62.5
	기획/경영/정책	(44)	47.7	52.3
	기타	(17)	47.1	52.9

■ 다원예술 독립 장르 위상 긍정응답 이유

- 다원예술이 독립 장르로서 발전해나간다는 점으로 독립 장르로서 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독립 장르로서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응답 비율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새로운 예술을 시도할 수 있어서(12.2%), 다원예술 관련 지원사업/제도가 있어서(8.2%), 예술 장르의 융합이 필요해서(7.1%) 순으로 나타남

[표 4-7] 긍정 응답 내용

NO	긍정응답 내용	사례수 (명)	전체응답 비율(%)
1	독립장르로서 발전이 있기 때문에	25	25.5
2	새로운 예술을 시도할 수 있어서	12	12.2
3	다양한 장르끼리 융복합/협업이 많아져서	6	6.1
4	예술 장르의 융합이 필요해서	7	7.1
5	실험적인 작품/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7	7.1
6	다원예술 관련 지원사업/제도가 있어서	8	8.2
7	다원예술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여서	2	2.0
8	다원예술의 수요가 늘어나서	4	4.1
9	장르 중심적 한국 예술계에 필요한 장르여서	3	3.1
10	기존 장르로 설명할 수 없는 작품이 많아져서	4	4.1
11	모름/무응답	20	20.4
	합계	98	100.0

- 다원예술 독립 장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답변 가운데 일부는 다음과 같음

[표 4-8] 긍정 응답 내용 상세

복합적인 부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장르이고 협업이 많은 요즘 필요한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나의 장르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예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  
 다원예술을 받아들이는 젊은 예술가들의 개념 정립이 어느 정도 되어있고, 이를 실현하는데 거부감이 없다.



다원예술은 단순한 타 장르 간의 결합이 아닌 고유 언어를 발굴하는 거리는 걸 기관뿐 아니라 예술가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제도와 작가 유형이 안착되었다고 본다. 다원예술이 넓혀 온 예술적 지평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독립된 장르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통합 예술로서 독자적 입지를 갖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 다원예술 독립 장르 위상 부정응답 이유

- 다원예술이 독립 장르가 아니라는 응답에는 다원예술의 인지도/인식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원예술 인지도/인식 부족’ 응답 비율이 1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장르적 차별성 부족’(13.8%), ‘다원예술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9.8%)로 나타났으며, ‘다원예술은 태생적으로 장르가 아니고/장르일 수 없다’(8.9%)고 한 응답과 ‘새로운 장르가 아니라 기존 장르의 융복합 방식’(8.1%)와 같은 다양한 응답이 나타남

[표 4-9] 부정응답 내용

NO	긍정응답 내용	사례수 (명)	전체응답 비율(%)
1	다원예술 인지도/인식 부족	22	17.9
2	장르적 차별성 부족	17	13.8
3	다원예술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12	9.8
4	다원예술은 태생적으로 장르가 아니고/장르일 수 없다.	11	8.9
5	새로운 장르가 아니라 기존 장르의 융복합 방식	10	8.1
6	아직 장르가 되기에 시기가 이른다.	10	8.1
7	다원예술 대표 작품/작가 없음, 작품 다양성 부족	7	5.7
8	다원예술 심사기준 모호함	6	4.9
9	다원예술 지원사업/제도 부족	6	4.9
10	잘 모르겠다 / 무응답	12	9.8
합계		123	100.0

- 다원예술 독립 장르가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답변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음

[표 4-10] 부정응답 내용-상세

다원예술 작가가 한 명도 떠오르지 않는다.

실제로 접할 기회가 많이 없다.

독립된 장르 또는 하나의 장르가 아닌 융복합으로 가는 방향이라 생각한다.

다원예술이 자리를 잡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듯하다.

장르가 되는 순간 다원의 고유성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장르라는 말로 정의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장르로 국한하는 것이 아닌 동시대 예술로 다양성, 실험성이 내포된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다원예술에 대한 지원사업이 타 장르에 비해 매우 적다. 그렇기 때문에 다원예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독립된 장르로서 위상을 갖추려면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직도 다원예술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고 생각한다.

다원예술은 독립된 장르가 아니라 지원서 상의 분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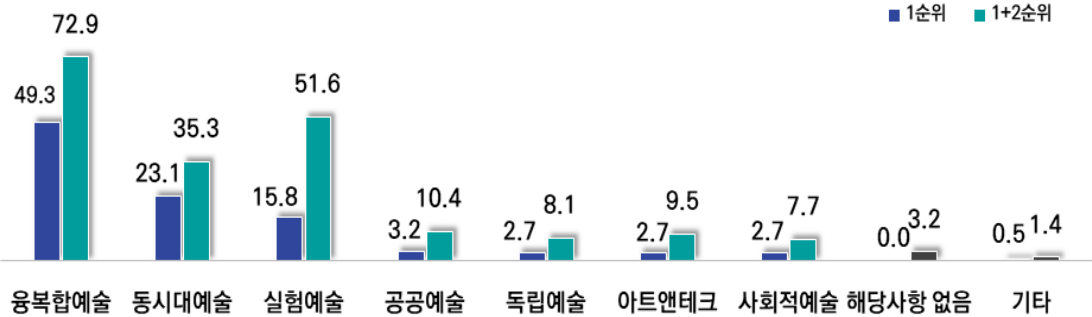
대중의 무관심

개념이 너무 어렵고 모호하고, 몇 장르에 치우쳐 있다.

### 마. 다원예술의 지형

- 한국 다원예술을 하나의 지형으로 본다면, 융복합예술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최근에 예술계 전반에서 융복합적 작업방식이 증가한 점도 이와 같은 조사결과와 관련 있음
  - 한국 다원예술 지형에 대해서는 ‘융복합예술’이 7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실험예술’ 51.6%, ‘동시대예술’ 35.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주 문화예술 활동장르에 따라서 동시대 예술 현장과 상호작용하며 장르가 발전해온 정도, 추구하는 가치 등과 관련해서 다원예술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음
  - ‘동시대예술’을 응답한 비율은 <문화예술 활동장르>에서 ‘문학’(47.4%)과 ‘무용’(45.5%)이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트앤티크’는 ‘영화’(20.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는데 이는 미디어/영상기술 관련 협업이 타 장르에 비해 활발하다고 보임. ‘실험예술’ 응답 비율은 ‘전통예술’(76.7%)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독립예술’을 응답한 비율은 ‘연극’(16.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5] 다원예술의 지형



[표 4-11] 다원예술의 지형 (1+2순위)

구분	사례수	융복합 예술	실험 예술	동시대 예술	공공 예술	아트앤 테크	독립 예술	사회적 예술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전 체	(221)	72.9	51.6	35.3	10.4	9.5	8.1	7.7	3.2	1.4
연령	20대	(17)	82.4	82.4	23.5	11.8	0.0	0.0	0.0	0.0
	30대	(98)	73.5	49.0	32.7	3.1	16.3	12.2	7.1	4.1
	40대	(61)	63.9	60.7	37.7	11.5	4.9	9.8	8.2	3.3
	50대	(32)	87.5	34.4	37.5	25.0	6.3	0.0	9.4	0.0
	60대 이상	(13)	61.5	30.8	53.8	23.1	0.0	0.0	15.4	7.7
민간 문화 예술 활동 장르	문학	(19)	57.9	31.6	47.4	10.5	15.8	5.3	21.1	10.5
	시각 예술	(104)	72.1	50.0	38.5	10.6	8.7	8.7	5.8	2.9
	사진	(11)	72.7	54.5	27.3	9.1	18.2	9.1	9.1	0.0
	건축	(2)	50.0	100.0	50.0	0.0	0.0	0.0	0.0	0.0
	전통 예술	(30)	73.3	76.7	30.0	0.0	10.0	6.7	3.3	0.0
	음악	(64)	82.8	51.6	20.3	20.3	10.9	6.3	4.7	1.6
	연극	(60)	78.3	50.0	33.3	3.3	13.3	16.7	5.0	0.0
	무용	(33)	66.7	63.6	45.5	3.0	9.1	9.1	0.0	3.0
	영화	(24)	75.0	58.3	33.3	4.2	20.8	4.2	4.2	0.0
	기획/ 경영/ 정책	(44)	75.0	52.3	43.2	11.4	4.5	2.3	11.4	0.0
기타	(17)	64.7	23.5	47.1	11.8	11.8	11.8	17.6	11.8	

■ 교차분석 - 2008년 다원예술 활동 성격 비교

- 2008년 <다원예술 창작현황 연구> 다원예술 활동성격<sup>6)</sup>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예술, 탈장르예술, 복합장르예술을 ‘실험예술’ 계열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실험예술 계열의 활동이 전체 50%로 집계함. 그 외 공동체소통, 공공가치, 종다양성 추구 등 가치 지향적이나 정체성을 규정한 응답이 32.4%로 나타남

6) 김소연 외(2008). 다원예술 창작현황 연구, 3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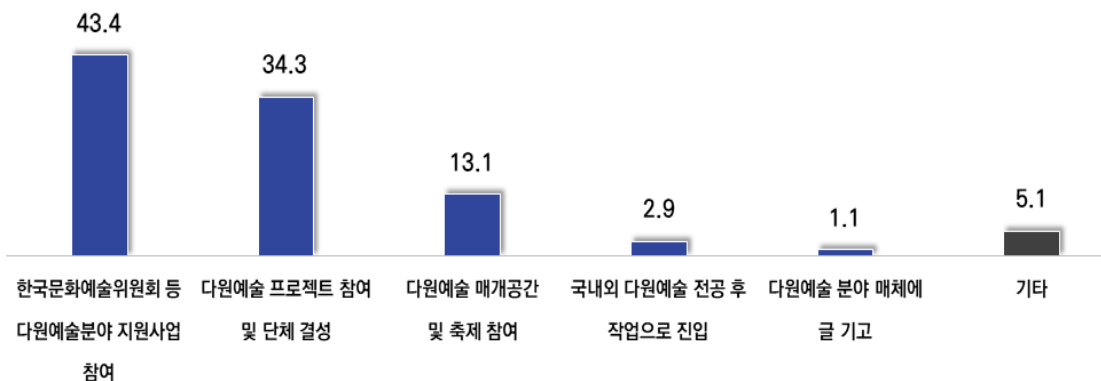
- 2008년 연구진은 복합장르예술을 실험예술 계열로 포함하여 해석했지만, 2022년 기준 융복합예술이 다원예술 지형에서 가장 높게 선택된 점이 최근 예술 현장의 변화를 보여줌
- 또한, 본 연구에서 진행된 심층인터뷰에서 2005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다원예술의 조류를 형성하던 생활예술, 공공예술, 거리예술, 기술 융합 등이 확장되면서 2010년대에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함. 그 해석과 비교해 보면 다원예술의 지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sup>7)</sup>

### 3. Part 2. 다원예술 창작의 과정

#### 가. 다원예술 분야 활동 시작 경로

- 다원예술 분야 활동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다원예술분야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서 시작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다원예술 분야가 정책에 의존도가 높은 예술 분야로 볼 수 있음
  - 다원예술 분야 참여 경험자(n=175)에게 다원예술 분야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경로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다원예술분야 지원사업 참여’ 응답 비율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다원예술 프로젝트 참여 및 단체 결성’ 34.3%, ‘다원예술 매개공간 및 축제 참여’ 13.1%, 순으로 나타났음
- 다양한 예술영역 활동기간을 가진 예술가들의 다원예술 분야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사업 이외에 프로젝트/단체 결성, 플랫폼 지원 등과 같은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개인 작업보다 협업 비율이 높은 무용과 전통 장르는 ‘다원예술 프로젝트 참여 및 단체 결성’을 통해 시작되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축제/매개공간을 통해 창작 결과물을 선보이는 전통예술, 음악, 무용은 ‘다원예술 매개공간 및 축제 참여’를 통해서도 다원예술 활동 분야 활동을 시작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6] 다원예술 분야 활동 시작 경로



7) 정진세 연출가 FGI (2022.11.25.)

[표 4-12] 다원예술 분야 활동 시작 경로

구분	사례수	한국문화 예술위원 회 등 다원예술 분야 지원사업 참여	다원예술 프로젝트 참여 및 단체 결성	다원예술 매개공간 및 축제 참여	국내외 다원예술 전공 후 작업으로 진입	다원예술 분야 매체에 글 기고	기타	
전 체	(175)	43.4	34.3	13.1	2.9	1.1	5.1	
예술 영역 활동 기간	3년 미만	(10)	30.0	40.0	20.0	0.0	10.0	0.0
	3년 이상 5년 미만	(29)	55.2	34.5	6.9	3.4	0.0	0.0
	5년 이상 10년 미만	(50)	48.0	34.0	8.0	4.0	0.0	6.0
	10년 이상 15년 미만	(29)	44.8	27.6	17.2	3.4	0.0	6.9
	15년 이상	(57)	35.1	36.8	17.5	1.8	1.8	7.0
문화 예술 활동 장르	문학	(15)	33.3	60.0	6.7	0.0	0.0	0.0
	시각예술	(90)	44.4	35.6	8.9	4.4	1.1	5.6
	사진	(9)	33.3	33.3	0.0	0.0	11.1	22.2
	건축	(2)	50.0	50.0	0.0	0.0	0.0	0.0
	전통예술	(24)	33.3	37.5	20.8	0.0	0.0	8.3
	음악	(51)	39.2	35.3	19.6	3.9	0.0	2.0
	연극	(52)	46.2	36.5	9.6	0.0	1.9	5.8
	무용	(31)	29.0	41.9	16.1	3.2	0.0	9.7
	영화	(18)	50.0	44.4	5.6	0.0	0.0	0.0
	기획/경영/정책	(35)	40.0	31.4	20.0	0.0	0.0	8.6
	기타	(15)	40.0	33.3	13.3	6.7	0.0	6.7

■ 교차분석 - 다원예술 창작활동 방식에 따른 다원예술 분야 활동 시작 경로

- 다원예술 프로젝트 참여 및 단체 결성을 통해 다원예술 분야 활동을 시작한다는 응답도 유의미한 비중을 나타냄. 다원예술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해보임
  - 개인 활동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단체 활동(프로젝트 단발적 참여/콜렉티브형태/단체,기관, 회사 등 소속)은 지원사업 참여와 프로젝트/단체 참여 및 결성과 비슷한 비중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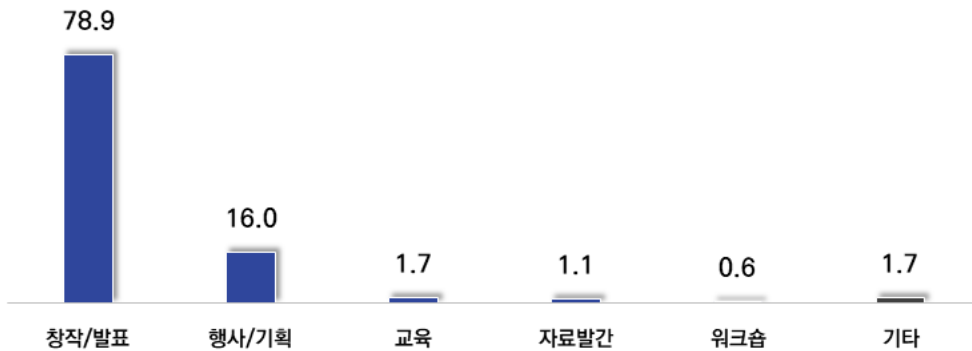
[표 4-13] 다원예술분야 창작활동 방식에 따른 다원예술 분야 활동 시작 경로

구분	사례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다원예술 분야 지원사업 참여	다원예술 프로젝트 참여 및 단체 결성	다원예술 매개공간 및 축제 참여	국내외 다원예술 전공 후 작업으로 진입	다원예술 분야 매체에 글기고	기타	
전체	(175)	43.4	34.3	13.1	2.9	1.1	5.1	
다원예술 분야 창작활동 방식	개인 활동	(53)	56.6	24.5	5.7	5.7	1.9	5.7
	프로젝트 단발적 참여	(65)	36.9	41.5	15.4	3.1	1.5	1.5
	콜렉티브 형태	(27)	48.1	40.7	7.4	0.0	0.0	3.7
	단체, 기관, 회사 등 소속	(24)	33.3	33.3	25.0	0.0	0.0	8.3
	기타	(6)	16.7	16.7	33.3	0.0	0.0	33.3

## 나. 다원예술 분야 주요 활동 유형

○ 다원예술 분야 활동 유형의 주요 형태는 '창작/발표' 응답 비율이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7] 다원예술 분야 주요 활동 유형



### ■ 교차 분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지원금 수혜 여부

- 응답자 중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지원금 수혜자의 활동유형은 창작/발표 79.2%, 행사/기획 15.6%, 교육 2.6%, 자료발간 1.3% 등 순으로 나타남
-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체계가 창작발표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점과 관련지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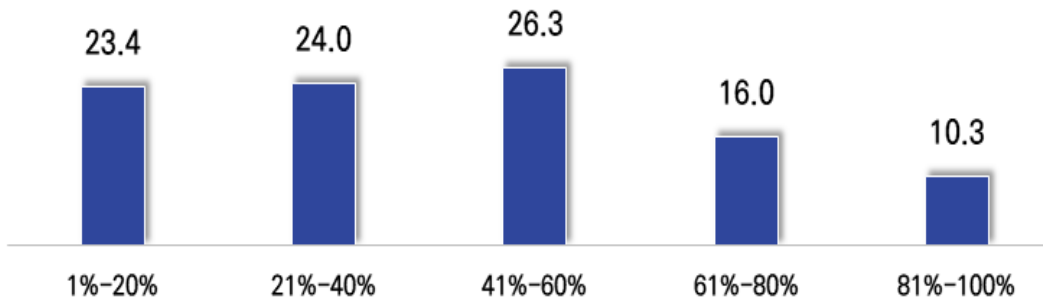
[표 4-14] 다원예술분야 주요 활동 유형

구분	사례수	창작/발표	행사/기획	교육	자료발간	워크숍	기타	
전체	(175)	78.9	16.0	1.7	1.1	0.6	1.7	
예술위 다원예술 사업 지원금 수혜여부	수혜자	(77)	79.2	15.6	2.6	1.3	0.0	1.3
	미수혜자	(98)	78.6	16.3	1.0	1.0	1.0	2.0

## 다. 다원예술영역 작업 비율

- 본인이 하고 있는 전반적인 문화예술 작업 중 다원예술영역에 포함되는 작업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로서, 다원예술영역 작업 비율이 81%-100%라고 응답한 비율이 10% 내외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예술가들이 다원예술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다원예술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고 분석해 볼 수 있음

[그림 4-8] 다원예술영역 작업 비율



### ■ 교차 분석 - 예술영역 활동기간/다원예술 독립장르 위상 여부

- 한국 예술계에서 다원예술이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44.3%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55.7%가 '아니다'라고 응답했음.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n=77)은 다원예술 작업비율이 고르게 나타났고, '아니다'고 응답한 사람들(n=98) 중에도 다원예술 작업 비율이 그렇다는 응답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음. 독립장르로서 다원예술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현대 예술가들의 다원적인 예술작업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임

[표 4-15] 전체예술활동기간/다원예술독립장르위상여부 대비 다원예술활동기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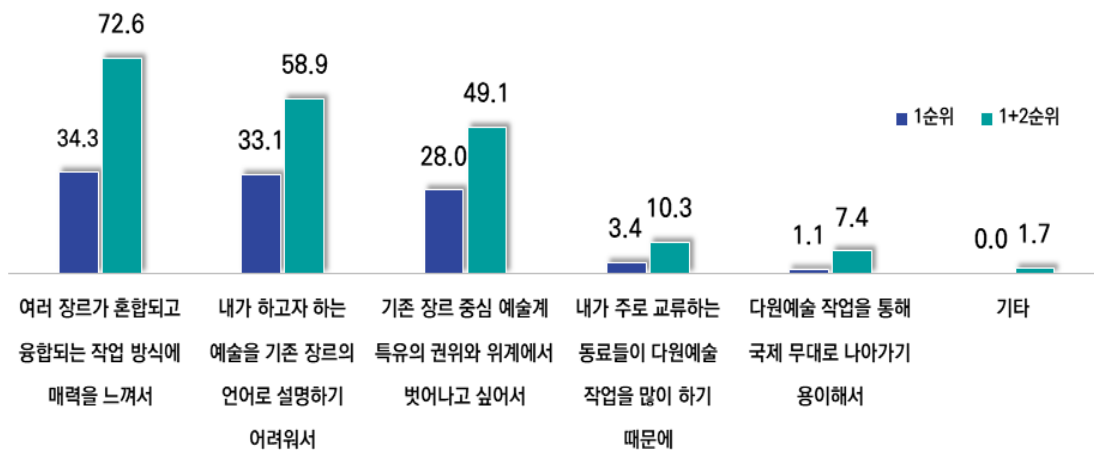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1%-20%	21%-40%	41%-60%	61%-80%	81%-100%
전체	(175)	23.4	24.0	26.3	16.0	10.3
예술	3년미만	(10)	20.0	20.0	40.0	10.0

영역 활동 기간	3년이상5 년 미만	(29)	13.8	13.8	27.6	27.6	17.2
	5년 이상 10년 미만	(50)	30.0	26.0	18.0	10.0	16.0
	10년이상 15년미만	(29)	24.1	41.4	24.1	6.9	3.4
	15년 이상	(57)	22.8	19.3	31.6	21.1	5.3
다원 예술 독립 장르 위상 여부	그렇다	(77)	22.1	23.4	23.4	23.4	7.8
	아니다	(98)	24.5	24.5	28.6	10.2	12.2

## 라. 다원예술 지원사업 신청 및 활동 이유

- 다원예술 분야 참여 경험자(n=175)들은 여러 장르가 융복합되는 작업방식에 대한 관심과 기존 장르로 벗어난/경계를 넘는 새로운 예술을 실험하고 싶을 때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신청하거나 다원예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여러 장르가 혼합되고 융합되는 작업 방식에 매력을 느껴서’ 34.3%,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을 기존 장르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워’ 33.1%, ‘기존 장르 중심 예술계 특유의 권위와 위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28.0% 순으로 나타났음
- 다원예술은 한국 예술계에서 견고한 장르를 구축한 영역에서 새로운 예술적 시도로서 다원예술 지원 사업에 신청 및 활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함. 다원예술이 예술계 전반과 상호작용하는 영역임을 알 수 있음
  -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을 기존 장르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워’라고 응답한 비율이 ‘문학, 시각 예술, 연극, 무용, 기획/경영/정책 장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9] 다원예술 지원사업 신청 및 활동 이유





[표 4-16] 다원예술 지원사업 신청 및 활동 이유 (1순위)

구분	사례수	여러 장르가 혼합되고 융합되는 작업 방식에 매력을 느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을 기존 장르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기존 장르 중심 예술계 특유의 권위와 위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주로 교류하는 동료들이 다원예술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원예술 작업을 통해 국제 무대로 나아가기 용이해서	
전 체	(175)	34.3	33.1	28.0	3.4	1.1	
예술 영역 활동 기간	3년 미만	(10)	60.0	30.0	10.0	0.0	0.0
	3년 이상 5년 미만	(29)	31.0	41.4	24.1	3.4	0.0
	5년 이상 10년 미만	(50)	26.0	42.0	24.0	4.0	4.0
	10년 이상 15년 미만	(29)	20.7	34.5	44.8	0.0	0.0
	15년 이상	(57)	45.6	21.1	28.1	5.3	0.0
문화 예술 활동 장르	문학	(15)	20.0	46.7	26.7	0.0	6.7
	시각예술	(90)	28.9	44.4	25.6	1.1	0.0
	사진	(9)	33.3	22.2	33.3	11.1	0.0
	건축	(2)	0.0	100.0	0.0	0.0	0.0
	전통예술	(24)	37.5	20.8	29.2	12.5	0.0
	음악	(51)	43.1	29.4	23.5	3.9	0.0
	연극	(52)	26.9	40.4	23.1	5.8	3.8
	무용	(31)	22.6	41.9	22.6	6.5	6.5
	영화	(18)	33.3	33.3	33.3	0.0	0.0
	기획/경영/정책	(35)	25.7	34.3	40.0	0.0	0.0
	기타	(15)	13.3	53.3	26.7	6.7	0.0

## 마. 다원예술 창작활동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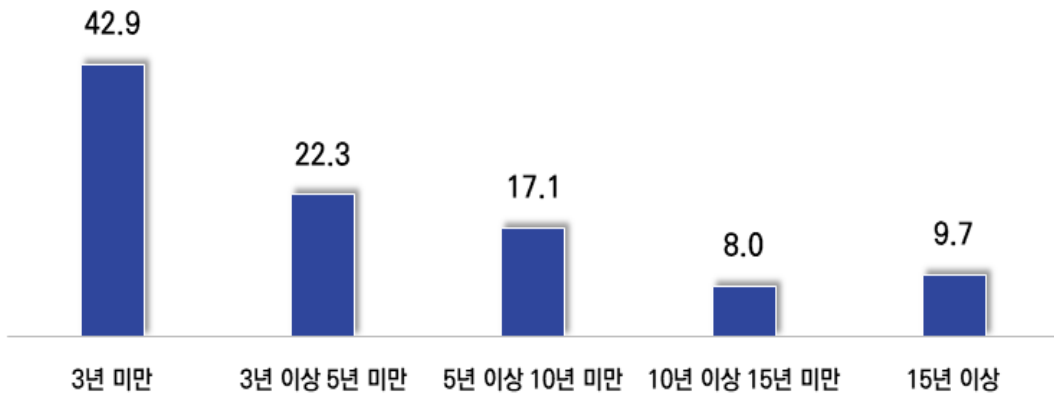
- 다원예술 창작활동기간이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 응답 가운데 65.2%를 차지함
  - 다원예술이 신진 예술가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지, 장르 예술활동 기간 중에 새로운 예술 창작

을 시도하기 위해 다원예술 지원사업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지 등 활동경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함

- 다원예술 영역에서 활동하는 창작자가 다시 장르예술로 돌아간다는 심층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면, 8) 다원예술 창작활동 기간이 전체 예술활동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본 설문조사의 결과와 연결시켜볼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 지원금 수혜자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다원예술 창작활동기간 '5년 미만'(62.6%)의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음을 확인함

[그림 4-10] 다원예술 창작활동 기간



[표 4-17] 다원예술영역 창작활동 기간

구분		사례수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전 체		(175)	42.9	22.3	17.1	8.0	9.7
연령	20대	(9)	88.9	11.1	0.0	0.0	0.0
	30대	(86)	50.0	29.1	15.1	4.7	1.2
	40대	(44)	36.4	22.7	15.9	11.4	13.6
	50대	(26)	26.9	11.5	26.9	15.4	19.2
	60세 이상	(10)	10.0	0.0	30.0	10.0	50.0
예술 영역 활동 기간	3년 미만	(10)	100.0	0.0	0.0	0.0	0.0
	3년 이상 5년 미만	(29)	62.1	37.9	0.0	0.0	0.0
	5년 이상 10년 미만	(50)	50.0	26.0	24.0	0.0	0.0
	10년 이상	(29)	41.4	24.1	17.2	17.2	0.0

8) 다원예술 FGI 정진세 연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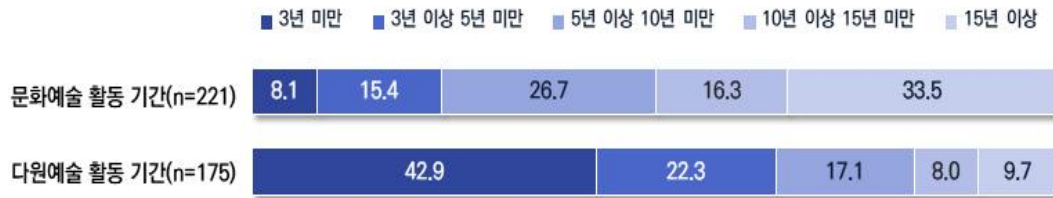
	15년 미만						
	15년 이상	(57)	17.5	14.0	22.8	15.8	29.8
문화 예술 활동 유형	창작/발표 활동	(144)	43.1	22.9	18.1	6.9	9.0
	기획/경영 활동	(16)	43.8	18.8	6.3	18.8	12.5
	기타(교육, 평론 등) 활동	(15)	40.0	20.0	20.0	6.7	13.3
문화 예술 활동 장르	문학	(15)	33.3	20.0	33.3	0.0	13.3
	시각예술	(90)	37.8	25.6	17.8	10.0	8.9
	사진	(9)	44.4	0.0	11.1	11.1	33.3
	건축	(2)	50.0	0.0	0.0	0.0	50.0
	전통예술	(24)	41.7	20.8	25.0	12.5	0.0
	음악	(51)	41.2	21.6	23.5	5.9	7.8
	연극	(52)	50.0	26.9	9.6	7.7	5.8
	무용	(31)	32.3	29.0	22.6	3.2	12.9
	영화	(18)	61.1	11.1	11.1	11.1	5.6
	기획/경영/정 책	(35)	34.3	22.9	17.1	8.6	17.1
	기타	(15)	26.7	6.7	40.0	0.0	26.7
예술위 다원예술 사업 지원금 수혜여부	수혜자	(80)	41.3	21.3	18.8	10.0	8.8
	미수혜자	(69)	44.9	23.2	13.0	7.2	11.6

■ 교차분석 - 문화예술 활동기간과 다원예술 활동 기간 비교

○ 전체 예술 활동 기간과 다원예술영역 창작활동 기간이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다원예술 활동 기간'은 '문화예술 활동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활동 기간' 응답 비율은 '15년 이상' 33.5%, '10년 이상 15년 미만' 16.3%, '5년 이상 10년 미만' 26.7%, '3년 이상 5년 미만' 15.4%, '3년 미만' 8.1% 등의 순으로, '다원예술 활동 기간' 응답 비율은 '3년 미만' 42.9%, '3년 이상 5년 미만' 22.3%, '5년 이상 10년 미만' 17.1%, '15년 이상' 9.7%, '10년 이상 15년 미만' 8.0% 등의 순임. '다원예술 활동 기간'은 '문화예술 활동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4-11] 문화예술활동기간과 다원예술활동기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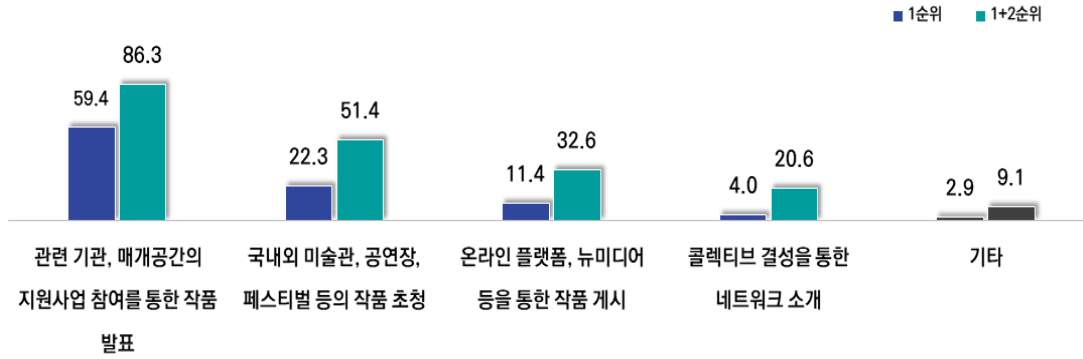
[표 4-18] 전체예술영역활동기간 대비 다원예술영역 창작활동 기간

구분	사례수	다원예술영역 창작활동 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전 체	(175)	42.9	22.3	17.1	8.0	9.7	
예술 영역 활동 기간	3년 미만	(10)	100.0	0.0	0.0	0.0	0.0
	3년 이상 5년 미만	(29)	62.1	37.9	0.0	0.0	0.0
	5년 이상 10년 미만	(50)	50.0	26.0	24.0	0.0	0.0
	10년 이상 15년 미만	(29)	41.4	24.1	17.2	17.2	0.0
	15년 이상	(57)	17.5	14.0	22.8	15.8	29.8

## 바. 다원예술 관련 활동 지속 방법 및 경로

- 다원예술 관련 활동 지속 방법 및 경로는 ‘관련 기관, 매개공간의 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작품 발표’가 86.3%로서, 다원예술이 지원사업에 의존적인 분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 지원금 수혜자의 1+2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관련 기관, 매개공간의 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작품 발표’가 90%로 나타남.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도 제도에 의존해서 활동을 지속하는 모습으로 확인됨

[그림 4-12] 다원예술 관련 활동 지속 방법 및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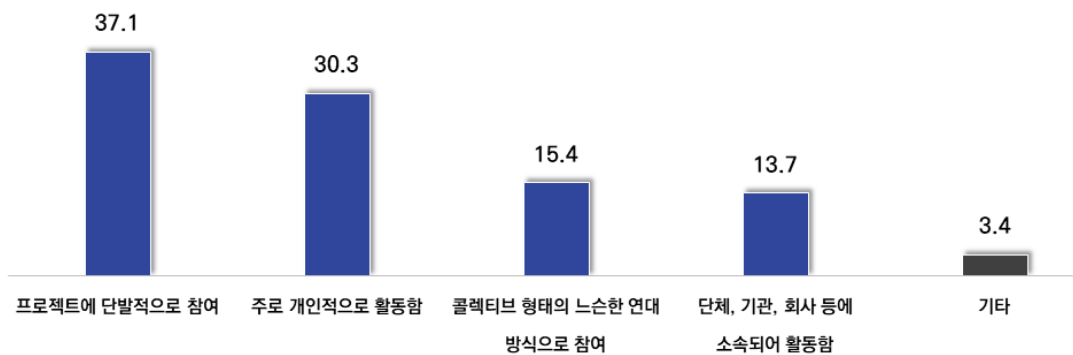
[표 4-19] 다원예술 관련 활동 지속 방법 및 경로 (1+2순위)

구분		사례수	관련 기관, 매개공간의 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작품 발표	국내외 미술관, 공연장, 페스티벌 등의 작품 초청	온라인 플랫폼, 뉴미디어 등을 통한 작품 게시	컬렉티브 결성을 통한 네트워크 소개	기타
전 체		(175)	42.9	22.3	17.1	8.0	9.7
예술위 다원예술 사업 지원금 수혜여부	수혜자	(80)	90.0	51.3	37.5	16.3	5.0
	미수혜자	(69)	87.0	47.8	27.5	23.2	14.5

## 사. 다원예술 창작활동 방식

○ 다원예술 분야는 프로젝트에 단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개인적으로 활동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그림 4-13] 다원예술분야 창작활동 방식



[표 4-20] 다원예술분야 창작활동 방식

구 분	사례수	프로젝트에 단발적으로 참여	주로 개인적으로 활동함	콜렉티브 형태의 느슨한 연대 방식으로 참여	단체, 기관, 회사 등에 소속되어 활동함	기타	
전 체	(175)	37.1	30.3	15.4	13.7	3.4	
예술 영역 활동 기간	3년 미만	(10)	10.0	50.0	30.0	10.0	0.0
	3년 이상 5년 미만	(29)	37.9	31.0	17.2	6.9	6.9
	5년 이상 10년 미만	(50)	34.0	34.0	22.0	8.0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29)	41.4	20.7	17.2	20.7	0.0
	15년 이상	(57)	42.1	28.1	5.3	19.3	5.3
문화 예술 활동 유형	창작/발표 활동	(144)	35.4	34.0	18.1	9.7	2.8
	기획/경영 활동	(16)	50.0	6.3	0.0	43.8	0.0
	기타(교육, 평론 등) 활동	(15)	40.0	20.0	6.7	20.0	13.3

### ■ 2008년 설문조사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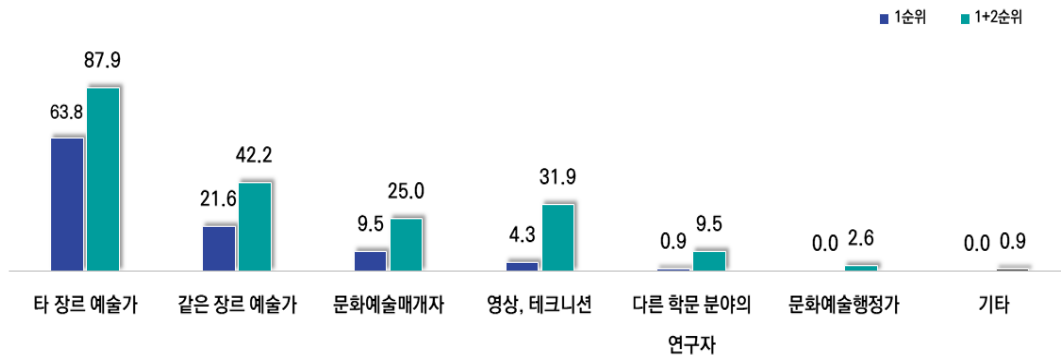
- 최근 다원예술은 프로젝트에 단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08년 <다원예술 창작현황 연구> 설문조사에서는 다원예술 활동방식<sup>9)</sup>에 대한 응답은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이 전체(N=63)의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프로젝트에 단발적으로 참여’가 21.4%, ‘주로 개인적으로 활동’이 19.1% 순서임

## 아. 다원예술 창작활동 주 협업 파트너

- 다원예술 창작활동 주 협업 파트너로는 타 장르 예술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르 간 융복합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영상, 테크니션(31.9%)에 대한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뉴미디어와 같은 매체의 발전에 따른 영향으로 추측해볼 수 있음

9) 김소연 외(2008). 다원예술 창작현황 연구, 3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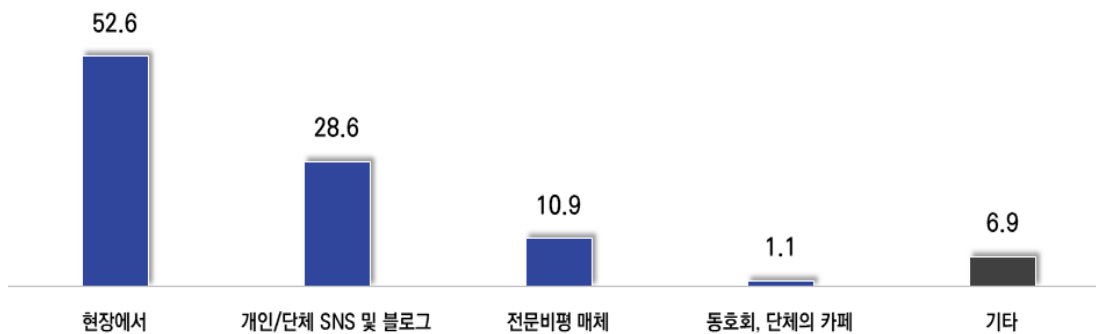
[그림 4-14] 창작활동 주 협업 파트너 (1+2순위)



### 자. 다원예술 창작활동 비평 및 피드백 방식

○ 다원예술 창작활동 비평과 피드백은 주로 현장에서 동료와 관객 등에게 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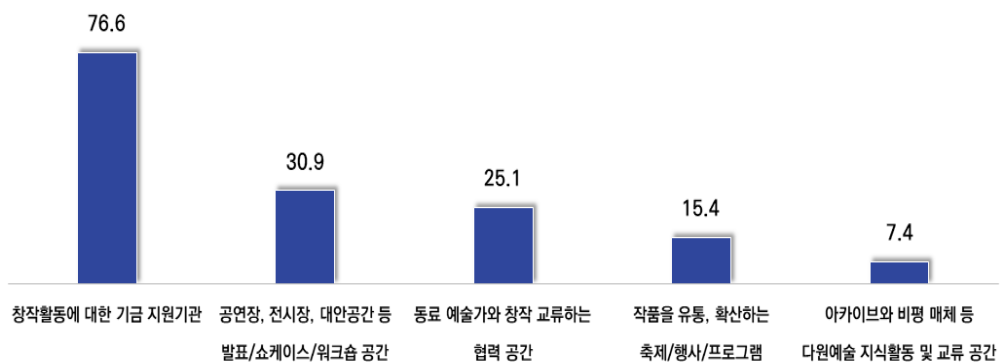
[그림 4-15] 다원예술 창작활동 비평 및 피드백 방식



### 차. 다원예술 창작활동 도움 경험

○ 다원예술 창작활동에는 기금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다원예술분야가 공공에 의해 지원받는 구조를 가지는 특성을 나타냄

[그림 4-16] 다원예술 창작활동 도움 경험



■ 교차분석 : 다원예술 활동방식에 따른 창작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

- 개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창작활동에 대한 기금 지원기관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신의 창작을 위한 지식활동 및 교류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콜렉티브 형태와 단체, 기관, 회사 등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은 동료 예술가와 창작 교류하는 협력하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표 4-21] 다원예술분야 창작활동 방식에 따른 다원예술 창작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

구 분	사례수	창작활동에 대한 기금 지원기관	공연장, 전시장, 대안공간 등 발표 /쇼케이스/ 워크숍 공간	작품을 유통, 확산하는 축제/행사/ 프로그램	동료 예술가와 창작 교류하는 협력 공간	아카이브와 비평 매체 등 다원예술 지식활동 및 교류 공간	
전 체	(175)	76.6	30.9	15.4	25.1	7.4	
다원 예술 분야 창작 활동 방식	개인 활동	(53)	84.9	28.3	15.1	17.0	11.3
	프로젝트 단발적 참여	(65)	69.2	33.8	15.4	23.1	9.2
	콜렉티브 형태	(27)	85.2	29.6	14.8	33.3	0.0
	단체, 기관, 회사 등 소속	(24)	66.7	25.0	20.8	41.7	4.2
	기타	(6)	83.3	50.0	0.0	16.7	0.0

1) 다원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기금 지원 기관

- 다원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기금 지원 기관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작자들이 생각하는 다원예술 생태계 내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음으로 서울문화재단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공공 문화예술기금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4-22] 다원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기금 지원 기관

NO	기관명	사례수 (명)	전체응답 비율(%)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1	34.8
2	서울문화재단	68	29.2
3	경기문화재단	13	5.6
4	기초광역문화재단 (김해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강북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광명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도봉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부평구문화재단, 원주문화재단, 의정부문화재단, 은평문화재단, 세종시문화재단, 전남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화성시문화재단, 포항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36	15.5
5	민간 문화재단 (수림문화재단, 우란문화재단, 태진문화재단, LIG문화재단)	5	2.1
6	공공 문화기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아시아문화의전당,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문화진흥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콘텐츠진흥원)	13	5.6
7	민간 문화기관 (제로원, 아트센터 나비, 스톤앤워터)	3	1.3
8	지자체 (대전광역시, 논산시, 인천광역시, 충남도청, 해남군)	7	3.0
9	기타 (농어촌희망재단, 서울연구원, 성북문화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 한국여성문화재단, 한국메세나협회 등)	7	3.0
합계		233	100.0

## 2) 공연장, 전시장, 대안공간 등 발표/쇼케이스, 워크숍 공간

- 다원예술을 대표하는 특정 공간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응답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복합문화 공간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원예술 창작자에게 공연장, 전시장, 대안공간 등 발표/쇼케이스, 워크숍 공간에 대한 질문한 결과, 복합문화공간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공연예술 공간 25.4%, 시각예술 공간 19.7% 순으로 나타남
  - 탈영역우정국, 신촌극장, 게토얼라이브 등과 민간 복합문화공간을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4-23] 공연장, 전시장, 대안공간 등 발표/쇼케이스, 워크숍 공간

NO	예술 언어 유형	사례수 (명)	전체응답 비율(%)
1	복합문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경기상상캠퍼스, 게토얼라이브, 대전예술가의집, 맑은물 사상누리, 미인도, 룬, 문래예술극장, 블루스퀘어, 연희예술극장, 을숙도문화회관, 서교예술실험센터, 신촌극장, 수림아트센터, 스톤앤위더, , 청년예술청, 플랫폼пампа, 플랫폼엘, 탈영역우정국, 행화탕)	28	39.4
2	공연예술 (국립극장, 국립남도국악원, 광주 보헤미안 소극장, 달올림, 동양예술극장, 두리춤터, 서울무용센터, 중력장, 아르코예술극장, 충무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 세종체임버홀, 청주아트홀, LG아트센터)	18	25.4
3	시각예술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로프트그라운드, 보안여관, 아트선재센터, 일민미술관, 시립미술관, 코리아나미술관, 뽕뽕브릿지, 창작스튜디오 등)	14	19.7
4	예술일반 (경기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2	2.8
5	생활예술 (서울혁신파크, 천장산우화극장, 청소년문화의집)	3	4.2
6	기타 (스테이지66, 킨텍스, 다이애나랩, 유튜브 등 온라인채널, 거리 등)	6	8.5
합계		71	100.0

### 3) 작품을 유통, 확산하는 축제/행사/프로그램

- 다원예술을 대표하는 축제/행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기존에 알려진 옴/신편스티벌, 서울 프리지페스티벌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문화축제, 예술축제에서 다원예술 작품이 유통,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다원예술 창작자에게 작품을 유통, 확산하는 축제/행사/프로그램에 대한 질문한 결과, '축제'가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사업' 20%, 행사,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남

[표 4-24] 작품을 유통, 확산하는 축제/행사/프로그램

NO	축제/행사/프로그램 구분	사례수 (명)	전체응답 비율(%)
1	축제 (고양호수예술축제, 고양퍼포먼스아트페스티벌, 김천국제퍼포먼스아트페스티벌, 거리예술축제, 광주프리지페스티벌, 대구남구청년예술제, 부산국제연극제, 부천국제퍼포먼스아트페스티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안산거리극축제, 일본국제퍼포먼스아트페스티벌, 옴/신편스티벌,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거리예술축제, 서울프리지페스티벌, 서울국제대양영상예술페스티벌, 서초아트스페이스페스티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페스티벌봄, 포항거리예술축제, 춘천국제고음악제, 춘천마임축제)	25	62.5
2	사업 (수원문화재단, 신나는예술여행, 서울혁신파크 지원사업, 세종문화재단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예술로 기획사업, 지역문화예술교육사업, 청춘마이크)	8	20
3	행사 (광화문 한글날축제, 달올림픽, 봉산동 우물시장, 주말예술 힐링스트리트)	4	10
4	프로그램 (다원예술 창작워크숍, 서울시청주관 노동극, 서울거리예술창작지원센터)	3	7.5
합계		40	100.0

#### 4) 동료 예술가와 창작 교류하는 협력 공간

- 다원예술 예술가들이 이용하는 특정 공간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응답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 및 민간의 복합문화공간, 커뮤니티공간 등 다양한 공간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다원예술 창작자에게 작품을 유통, 확산하는 축제/행사/프로그램에 대한 질문한 결과, '축제'가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사업' 20%, '행사,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남
- 다원예술 창작을 위한 동료들을 찾고, 교류하는 공간에 대한 공공 지원이 필요해보임

[표 4-25] 동료 예술가와 창작 교류하는 협력 공간

NO	공간 유형	사례수 (명)
1	공공 복합문화공간 (감민창의문화촌, 예술청, 서교예술실험센터, 청년예술청, 쿼드)	10
2	민간 복합문화공간 (게토얼라이브, 논산 로봇뮤지엄, 스톤앤워터, 플랫폼팜파, 꿈꾸는마을 문화공간, 인터뮤직)	6
3	공공 커뮤니티공간 (서울혁신파크 청년청, 석수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청춘벨딩)	6
4	민간 커뮤니티공간 (반죽, 논산문화원, 문화예술공감센터, 아트웨이브, 인천복지방송 스튜디오, GXD 익스트림 스튜디오)	8
5	커뮤니티 (극단 시나페, 국방대학교, 놀이패 신명, 두루미과학예술센터, 붓터, 문화기획 드림피플, 알투앤누, 예술전문단체 곤 창원/김해지부, 쥘질경이, 종합문화예술회 명석, Pati 인문연구소, 두루미과학예술센터, 플랫폼 702)	13
6	공공 문화기관 (국립남도국악원, 서울시청, 서울문화재단, 세종시문화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5
7	개인	2
합계		48

#### 5) 아카이브와 비평 매체 등 다원예술 지식활동 및 교류 공간

- 다원예술 지식활동 및 교류 공간으로는 웹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본 설문 중에서 가장 응답이 저조했음. 이는 다원예술 아카이브 및 비평 활동이 활발하지 않음과 관련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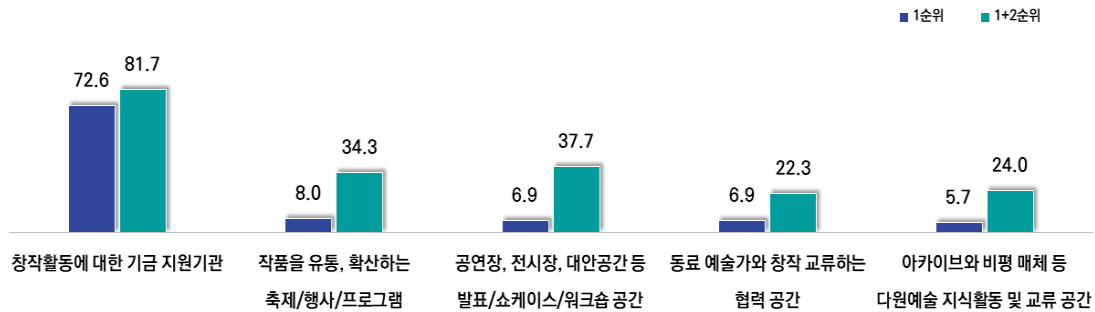
[표 4-26] 아카이브와 매체 비평 다원예술 지식활동 및 교류 공간

NO	매체 유형	사례수 (명)
1	웹진 (아트신, 춤in,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문화잡지,	6
2	월간지 (미술세계, 월간미술)	2
3	비정기 간행물 (옴/신저널)	1
4	축제 무크지 (NIPAF)	1
5	유튜브 채널	2
6	커뮤니티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	1
합계		13

## 카. 다원예술 활성화를 위한 필요 지원

○ 다원예술 활성화를 위해 창작활동에 대한 기금 지원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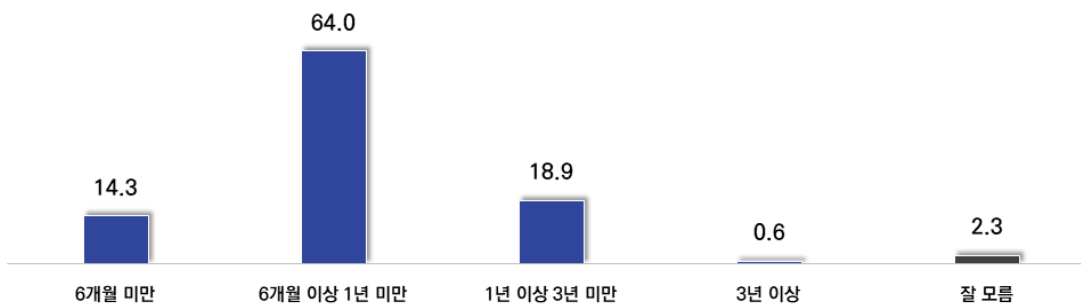
[그림 4-17] 다원예술 활성화를 위한 필요 지원



## 타. 다원예술 작품/프로젝트 평균 소요 기간

- 다원예술 한 작품 또는 프로젝트 창작의 평균 소요 기간을 질문한 결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응답 비율이 6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현재 다원예술 분야 지원체계가 단년도 사업으로 운영되는 구조와 다원예술 작품/프로젝트 평균 소요 기간의 응답을 연결시켜볼 수 있음. 다원예술이 고도화되려면 앞으로 다년도 지원사업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활동장르별로 살펴보면, '3년 이상' 응답에서 '시각예술', '전통예술',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등 다수 장르에서 '0%'로 나타남

[그림 4-18] 다원예술 작품 /프로젝트 평균 소요 기간



[표 4-27] 다원예술 작품/프로젝트 평균 소요 기간

구분		사례수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잘 모르겠다
전 체		(175)	14.3	64.0	18.9	0.6	2.3
예술 영역 활동 기간	3년 미만	(10)	0.0	100.0	0.0	0.0	0.0
	3년 이상 5년 미만	(29)	3.4	69.0	27.6	0.0	0.0
	5년 이상 10년 미만	(50)	12.0	64.0	24.0	0.0	0.0
	10년 이상 15년 미만	(29)	17.2	62.1	13.8	0.0	6.9
	15년 이상	(57)	22.8	56.1	15.8	1.8	3.5
문화 예술활 동장르	문학	(15)	6.7	60.0	13.3	6.7	13.3
	시각예술	(90)	13.3	62.2	23.3	0.0	1.1
	사진	(9)	11.1	55.6	11.1	11.1	11.1
	건축	(2)	0.0	50.0	50.0	0.0	0.0
	전통예술	(24)	8.3	91.7	0.0	0.0	0.0
	음악	(51)	13.7	70.6	11.8	0.0	3.9
	연극	(52)	15.4	73.1	11.5	0.0	0.0
	무용	(31)	19.4	45.2	35.5	0.0	0.0
	영화	(18)	16.7	61.1	22.2	0.0	0.0
	기획/ 경영/ 정책	(35)	17.1	62.9	17.1	0.0	2.9
	기타	(15)	13.3	66.7	6.7	0.0	13.3

■ 교차분석 - 다원예술 활동방식에 따른 다원예술 작품/프로젝트 창작 소요 평균기간

- 다원예술 활동방식에 따라서 다원예술 작품/프로젝트 창작에 소요되는 기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개인 활동 아니라 안정적인 프로젝트/콜렉티브 활동을 위해서 다년도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개인 활동과 콜렉티브 형태는 1년 이상 3년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단체, 기관, 회사 등 소속과 프로젝트에 단발적 참여의 경우 1년 미만으로 창작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4-28] 다원예술분야 창작활동 방식에 따른 다원예술 작품/프로젝트 창작 소요 평균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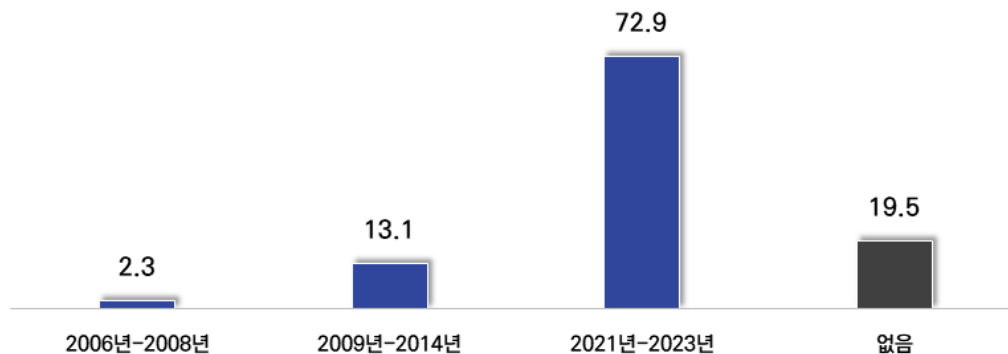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잘 모르겠다
전 체		(175)	14.3	64.0	18.9	0.6	2.3
다원예술분야 창작활동 방식	개인 활동	(53)	7.5	60.4	30.2	1.9	0.0
	프로젝트 단발적 참여	(65)	10.8	70.8	16.9	0.0	1.5
	콜렉티브 형태	(27)	11.1	59.3	22.2	0.0	7.4
	단체, 기관, 회사 등 소속	(24)	33.3	62.5	0.0	0.0	4.2
	기타	(6)	50.0	50.0	0.0	0.0	0.0

## 4. Part 3. 다원예술 지원사업 수요

###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신청 연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 신청 경험이 있는 연도를 질문한 결과, 2021년-2023년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는 본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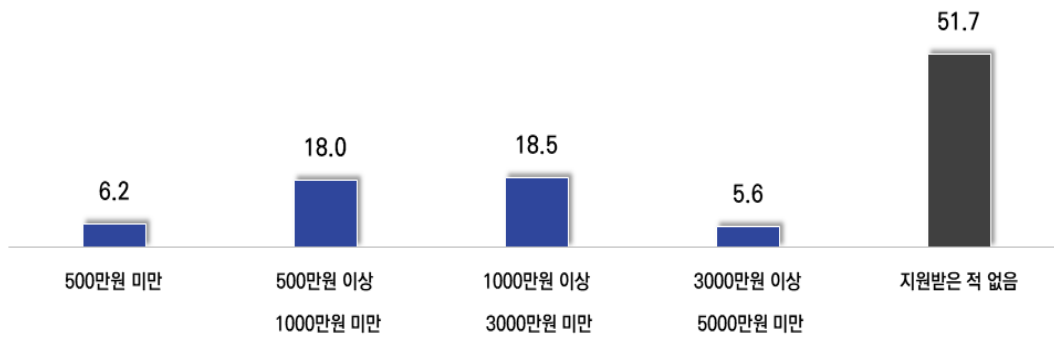
[그림 4-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신청 연도



##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으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과 5,0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이 비슷한 비중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체계와도 연결되는 결과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 지원금 수혜자들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38.4%)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37.2%)임

[그림 4-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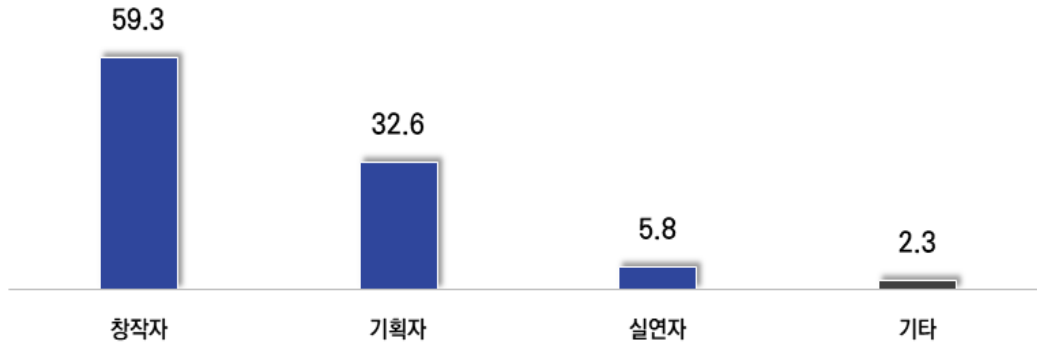
[표 4-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구분		사례수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지원받은 적 없음
전 체		(178)	6.2	18.0	18.5	5.6	51.7
예술영역 활동기간	3년미만	(17)	0.0	17.6	0.0	5.9	76.5
	3년이상 5년미만	(27)	0.0	33.3	22.2	0.0	44.4
	5년이상 10년미만	(44)	4.5	22.7	29.5	2.3	40.9
	10년이상 15년미만	(31)	12.9	9.7	22.6	6.5	48.4
	15년이상	(59)	8.5	11.9	11.9	10.2	57.6
예술위 다원예술 사업 지원금 수혜여부	수혜자	(86)	12.8	37.2	38.4	11.6	0.0
	미수혜자	(92)	0.0	0.0	0.0	0.0	100.0

##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참여 역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참여한 역할로는 창작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획자/매가자 순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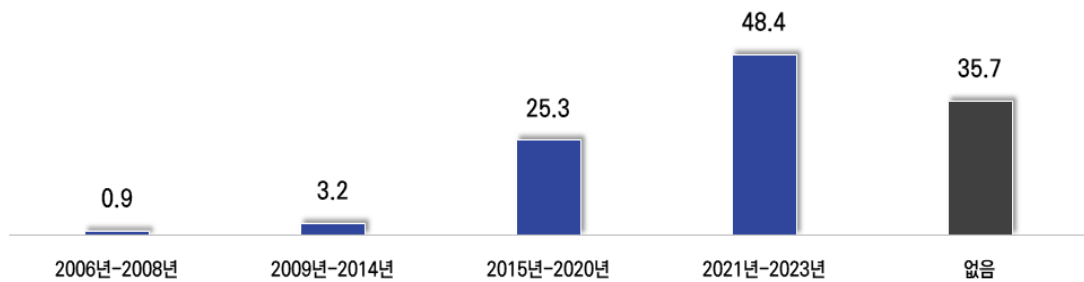
[그림 4-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참여 역할



## 나. 타 기관 다원예술 지원사업 신청 연도

- 타 기관 다원예술 사업 신청 경험이 있는 연도를 질문한 결과, 2021년-2023년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15년-2020년이라고 나타남

[그림 4-22] 타 기관 다원예술 지원사업 신청 연도



### ■ 교차분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신청 연도

- 타 기관 다원예술 사업 신청 연도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신청 연도를 문화예술 활동장르에서 비교분석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중단된 '2015년-2020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청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국내 다원예술분야 지원제도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위상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결과이며, 한편으로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부족으로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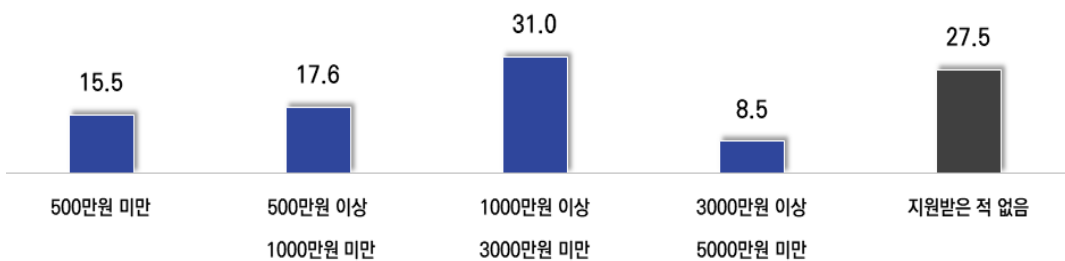
[표 4-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신청 연도

구분	사건수	2006년-2008년	2009년-2014년	2015년-2020년	2021년-2023년	없음	
전 체	(221)	0.9	3.2	25.3	48.4	35.7	
문화 예술 활동 장르	문학	(19)	0.0	0.0	5.3	63.2	36.8
	시각예술	(104)	1.0	2.9	34.6	56.7	22.1
	사진	(11)	0.0	0.0	18.2	81.8	9.1
	건축	(2)	0.0	0.0	0.0	50.0	50.0
	전통예술	(30)	0.0	0.0	13.3	46.7	46.7
	음악	(64)	1.6	4.7	26.6	50.0	35.9
	연극	(60)	0.0	0.0	30.0	43.3	36.7
	무용	(33)	0.0	3.0	30.3	48.5	36.4
	영화	(24)	0.0	4.2	12.5	54.2	37.5
	기획/ 경영/ 정책	(44)	0.0	6.8	25.0	54.5	29.5
	기타	(17)	11.8	11.8	29.4	70.6	17.6

### 1) 타 기관 다원예술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 타 기관 다원예술 지원사업 최대 지원금액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23] 타 기관 다원예술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 교차 분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타 기관 지원사업 최대 지원금액으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공통점이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음
-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비해 타 기관에서 더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예술영역 활동기간 5년 미만의 사람의 지원금액을 비교해보면 타 기관에서 신진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2008년 <다원예술 창작현황 연구> 설문조사에서는 타 기관 지원사업 최대 지원금액으로 1,0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지원사업 기금이 타 기관에 비해 높았음. 최근 들어서 다원예술 지원사업 기금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고, 타 기관의 다원예술 증액 폭이 높아진 점을 확인함

[표 4-31] 예술영역 활동기간/다원예술 창작활동방식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최대 금액

구분		사례수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지원받은 적 없음
전 체		(178)	6.2	18.0	18.5	5.6	51.7
예술영역 활동기간	3년 미만	(17)	0.0	17.6	0.0	5.9	76.5
	3년 이상 5년 미만	(27)	0.0	33.3	22.2	0.0	44.4
	5년 이상 10년 미만	(44)	4.5	22.7	29.5	2.3	40.9
	10년 이상 15년 미만	(31)	12.9	9.7	22.6	6.5	48.4
	15년 이상	(59)	8.5	11.9	11.9	10.2	57.6
다원예술 창작활동 방식	창작/발표 활동	(148)	6.1	16.2	18.9	4.7	54.1
	기획/경영 활동	(17)	5.9	17.6	17.6	17.6	41.2
	기타(교육, 평론 등) 활동	(13)	7.7	38.5	15.4	0.0	38.5

2) 지원받은 타 기관 및 사업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제외하고 다원예술 분야는 공공기금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다원예술분야의 창작활동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제외한 타 기관에 선정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기관명과 사업명을 복수응답한 설문결과,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받은 비율이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플랫폼엘 다원예술기획공모, 두산아트센터 두산아트랩, 국립현대미술관 프로젝트 해시태그와 같은 타 기관 다원예술 기획사업과 대안공간루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 아트

센터나비와 같은 다원예술 매개공간을 확인할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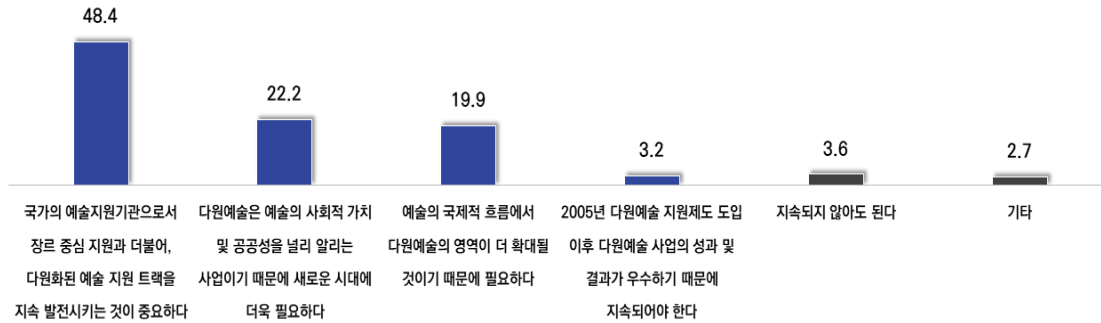
[표 4-32] 지원받은 타 기관 및 사업명

NO	기관 유형	사례수 (명)
1	지역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42) : 문래예술공장 사운즈온, 다원예술지원, 예술기반지원 리서치, 청년예술단 다원예술, 아트기부, 예술창작지원, 예술창작발표지원, 유망예술사업, 온라인예술지활동지원, 서울대표축제지원사업, 코로나 19 예술지원 경기문화재단(10) : 청년예술가지원, 별별예술프로젝트, 예기술 등 김해문화재단 불가사리프로젝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광명문화재단 청년이바라는예술지원, 포항문화재단 문화도시조성, 경북문화재단 지역예술육성, 제주문화예술재단 신진예술가지원, 세종시 문화재단 온라인아트/청년예술인창작지원, 인천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다원예술지원/오픈랩, 은평문화재단 지역문화프로젝트지원, 도봉문화재단 도봉산하전시, 화성시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아티언스/문화예술공간거점, 강원문화재단 주말예술 힐링스트리트, 전북문화관광재단, 김포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인지원, 대구문화재단 우수공연작품지원, 세종시문화재단, 순천문화재단, 전남문화재단	83
4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금 국립현대미술관 프로젝트 해시태그, 서울시, 충남도청	11
5	문화예술분야 사설기금 플랫폼엘 다원예술기획공모, 두산아트센터 두산아트랩, 아트센터나비, 대안공간루프,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공연전시센터	15
6	문화예술분야 외 공공기금 고양시, 서울시, 대구시, 춘천시, 부산시, 강릉시, 원주시, 남양주시, 대전시	15
합계		124

##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지속 이유

- 국가의 예술지원기관으로서 장르 중심 지원과 더불어, 다원화된 예술 지원 트랙을 지속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원예술 분야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위상을 인정함과 동시에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함
- 연령대별로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기대하는 모습에서 차이가 있음이 알 수 있음

[그림 4-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지속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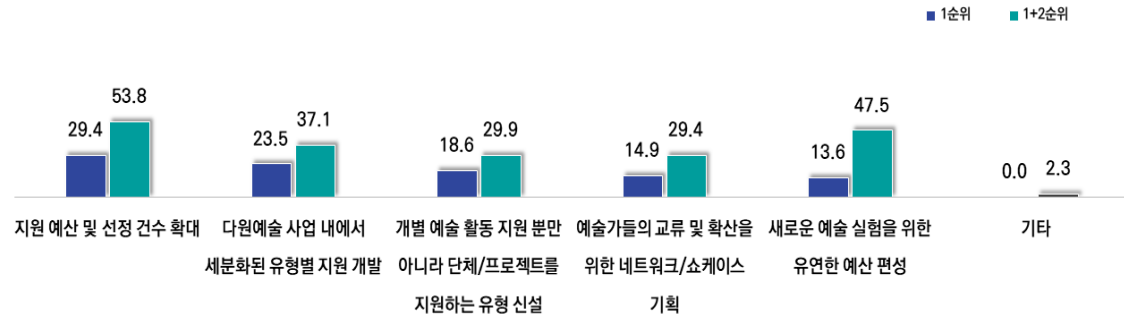
[표 4-3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지속 이유

구분	사례수	국가의 예술지원 기관으로서 장르중심지원 과 더불어, 다원화된 예술 지원 트랙을 지속발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원예술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 및 공공성을 널리 알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필요하다.	예술의 국제적 흐름에서 다원예술의 영역이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2005년 다원예술 지원제도 도입 이후 다원예술 사업의 성과 및 결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한다.	지속되지 않아도 된다.	기타	
전체	(221)	48.4	22.2	19.9	3.2	3.6	2.7	
연령	20대	(17)	41.2	29.4	23.5	0.0	0.0	5.9
	30대	(98)	50.0	15.3	24.5	4.1	3.1	3.1
	40대	(61)	54.1	21.3	14.8	1.6	6.6	1.6
	50대	(32)	50.0	31.3	12.5	0.0	3.1	3.1
	60대 이상	(13)	15.4	46.2	23.1	15.4	0.0	0.0

##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 지원 변화 필요

- 지원예산 및 선정 건수 확대와 새로운 예술 실험을 위한 유연한 예산 편성 등 예산 관련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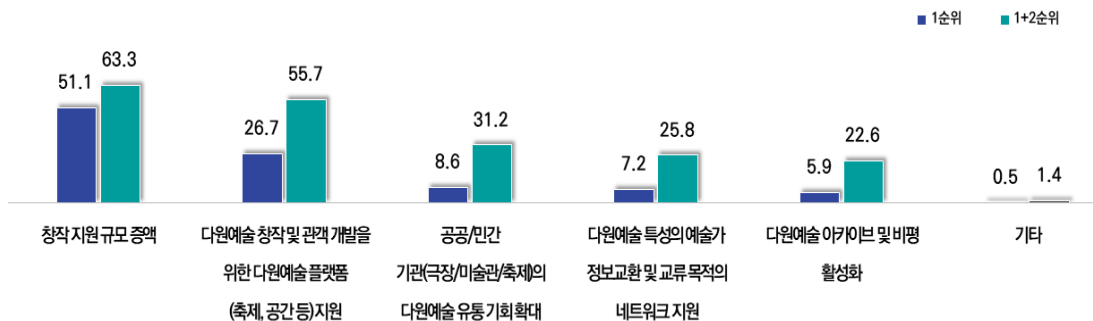
[그림 4-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 지원변화 필요



## 마. 다원예술 창작활동 관련 공공지원 필요 부분

- 다원예술영역 창작활동에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작 지원 규모 증액’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다원예술 창작 및 관객 개발을 위한 다원예술 플랫폼(축제, 공간 등) 지원’ 순으로 나타남
- 예술영역 활동기간에 따른 다원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공공지원에 대한 수요에 차이가 있음. 세부적인 지원유형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해보임
  - <예술영역활동기간> ‘3년미만’인 사람들은 ‘다원예술 창작 및 관객 개발을 위한 다원예술 플랫폼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한편, <예술영역 활동기간> ‘15년이상’에서는 ‘다원예술 특성의 예술가 정보교환 및 교류 목적의 네트워크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4-26] 다원예술 창작활동 관련 공공지원 필요 부분



[표 4-34] 다원예술영역 창작활동 관련 공공지원 필요 부분 (1순위)

구분	사례수	창작 지원 규모 증액	다원예술 창작 및 관객 개발을 위한 다원예술 플랫폼 (축제, 공간 등) 지원	공공/민간 기관(극장/미술관/축제)의 다원예술 유통 기회 확대	다원예술 특성의 예술가 정보교환 및 교류 목적의 네트워크 지원	다원예술 아카이브 및 비평 활성화	기타	
전체	(221)	51.1	26.7	8.6	7.2	5.9	0.5	
연령	20대	(17)	17.6	52.9	11.8	0.0	11.8	5.9
	30대	(98)	51.0	21.4	11.2	8.2	8.2	0.0
	40대	(61)	54.1	31.1	6.6	6.6	1.6	0.0
	50대	(32)	68.8	21.9	3.1	6.3	0.0	0.0
	60대이상	(13)	38.5	23.1	7.7	15.4	15.4	0.0
예술영역 활동 기간	3년 미만	(18)	22.2	44.4	22.2	5.6	5.6	0.0
	3년이상 5년미만	(34)	38.2	26.5	14.7	5.9	11.8	2.9
	5년이상 10년미만	(59)	62.7	22.0	1.7	5.1	8.5	0.0
	10년이상 15년미만	(36)	52.8	25.0	13.9	5.6	2.8	0.0
	15년이상	(74)	54.1	27.0	5.4	10.8	2.7	0.0

## 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관련 자유의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유 의견에서는 다원예술 지원방식 개선과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남. 새로운 다원예술 주체들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구상이 필요함

[표 4-3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관련 자유의견

NO	응답 내용	사례수(명)	전체응답 비율(%)	유효응답 비율(%)
1	새로운 예술 실험을 위한 지원 - 매체 실험 지원, 장기 리서치 지원, 새로운 예술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스템 마련, 동시대 예술 지원 등	18	8.1	17.0
2	다원예술 지원 확대 - 예산 증액, 소액 지원, 선정건수 확대,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지원유형 세분화, 포괄적 지원, 국제교류 지원, 다년지원체계 마련, 지역 내 소규모 그룹 지원 등	27	12.2	25.5
3	다원예술 지원방식 개선 - 정산방식, 지원신청서류 간소화, 심사위원 전문성 및 구성, 공정한 심사기준, 기획서 기반으로 심사 진행, 유연한 예산편성 기준 등	32	14.5	30.2
4	다원예술 공론장 마련 - 다원예술 현재성 논의, 동시대 예술 흐름 반영, 다원예술 세미나 정기적 진행 등	7	3.2	6.6
5	기타 - 장애예술 쿼터제 실행, 지역균형지원제, 다원예술 지원사업 홍보 등	22	10.0	20.8
6	없음/무응답	115	52.0	100.0
합계		221	100.0	

- 개방형 질문 중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표 4-3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 관련 자유의견-상세

<p>다원예술 지원사업은 기술 융복합에 한정된 것을 벗어나 다양한 실험을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다양한 실험이 아닌 특정 '다원적' 색깔의 프로젝트를 지향하는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p> <p>진입 장벽이 높고, 의외로 다양성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는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기회와 네트워크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p> <p>심사위원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달라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진행해주세요.</p> <p>다원예술에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과 예산 투자가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진화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p> <p>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든든한 토대 마련이 필요합니다.</p> <p>다원화되는 시대적인 변화 속에 새로운 예술적 실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p>
---

## 5. 조사결과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1) 다원예술의 정의와 현재성 인식

- 다원예술은 장르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예술을 하는 실험이자 여러 장르를 융복합하는 예술로서 현재적 의미를 가짐
  - 다원예술의 개념으로 실험성과 다양성을 중요한 속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다원예술이 정책적 용어로 등장하던 시기인 2000대 중반과 현재에도 유효한 가치로 확인됨
  - 현재 한국 다원예술 지형을 융복합예술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실험예술, 동시대예술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다원예술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과 같은 예술 장르라기보다는 예술계 내 새로운 예술/예술가가 출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및 예술계의 제도권에 놓인 예술가와 작품들을 포용하는 지원제도라고 인식됨
  - 다원예술이 독립장르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응답이 그렇다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음
- 문화예술 장르별로 동시대 예술 현장과 상호작용하는 정도에 따라 다원예술에 대한 인식과 활동에서 차이가 나타남
  - 주 문화예술 활동장르에 따라서 동시대 예술 현장과 상호작용하며 장르가 발전해온 정도, 추구하는 가치 등과 관련해서 다원예술에 대한 인식과 활동에 차이가 있음
  - 한국 예술계에서 견고한 장르를 구축한 영역에서 새로운 예술 활동을 시도하기 위해 다원예술 지원제도를 활용한다고 볼 수도 있음

### 2) 다원예술 창작의 과정

- 다원예술 활동은 지원사업/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로 확인됨
  - 다원예술 분야 활동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다원예술분야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시작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원예술 분야 활동 유형의 주요 형태는 창작/발표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창작 지원의 형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원예술 활동 지속 방법 및 경로는 관련기관 및 매개공간의 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작품 발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실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수혜 경험자 90%가 지원사업을 통해 다원예술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응답한 점에 미루어보아 예술가들이 제도에 의존해서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됨
  - 다원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기금 지원 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원예술 분야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음. 한편, 민간 영역에서도 수림문화재단, 우란문화재단, 태진문화재단과 같은 다원예술 지원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음



- **다원예술 분야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러 장르가 혼합되고 융합되는 작업 방식에 매력을 느끼고 있음**
  - 최근 예술계의 융복합 작업 방식의 경향성과 장르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예술을 실험하고 확장하고 싶은 창작자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음
  - 예술가들은 문화예술 활동 기간 중에 새로운 예술, 타 장르와의 융합적 실험 등을 이유로 다원예술 작업을 참여하고 있음
  - 다원예술에 전념하는 비중은 10% 내외이며, 약 74%가 다원예술 활동 비중이 60%이하라고 응답하였음. 다원예술을 전체 예술 장르를 포괄하고 매개하는 지원제도로써 접근해야 함
  
- **현재, 다원예술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플랫폼이 확인되지는 않음**
  - 다원예술 창작활동 방식은 프로젝트에 단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타 장르 예술가, 같은 장르 예술가와 협업한다고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다원예술 분야에서 장르 간 융복합적인 경향성을 나타냄
  - 다원예술 공연장, 전시장, 대안공간 등 발표/쇼케이스, 워크숍 공간으로는 복합문화공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청년예술청 같은 공공 기관뿐 아니라 신촌극장, 탈영역우정국, 게토얼라이브 등과 같은 신생 복합 문화공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작품을 유통, 확산하는 축제/행사/프로그램으로는 축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지역문화 축제, 예술 축제에서 다원예술 작품이 유통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함
  - 동료 예술가와 창작 교류하는 협력 공간으로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공공 및 민간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다원예술 지식활동 및 교류공간으로는 웹진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3) 다원예술 지원사업 수요

- **국내 다원예술 분야는 공공기금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앞으로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지금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청 연도 경험과 타 기관 다원예술 지원사업 신청 연도 경험을 비교해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중단된 2015-2020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청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이는 다원예술 분야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부족을 나타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제외한 타 기관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관명과 사업명을 조사한 결과,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받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뿐만 아니라 타 기관과 민간에서도 다원예술 사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획운영되고 있음. 다변화되는 다원예술 생태계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음**
  - 국가의 예술기관으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체계 내 다원예술 분야가 계속 지속되며, 새로운 예술을 견인하고 매개하는 지원제도로써 작동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외 공공 문화기관에서 다원예술 작품/프로젝트를 소개하거나, 민간 영

역에서도 새로운 예술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이 늘어나고 있음

- 예술영역 활동기간과 다원예술 창작활동방식을 살펴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비해 타 기관에서 더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에 대해서는 창작 지원규모 확대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지원예산 및 선정 건수 확대, 새로운 예술 실험을 위한 유연한 예산 편성을 요구함
- 이외에도 다원예술 창작 및 관객 개발을 위한 다원예술 플랫폼 지원에 대한 수요와 다원예술 사업 목적에 맞게 다양한 예술 실험 지원 등을 바라는 점으로 확인함

## 제5장

---

다원예술 생태계 지원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

# 1. 다원예술 생태계 지원을 위한 이슈와 쟁점

- 다원예술은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환 이후 신설된 다원예술 지원사업을 통해 개념화된 용어로 창작의 특정 경향성에 대한 정책기관 주도의 개념화에 의해 출발했다는 점에서 타 장르예술과 큰 차이점을 가짐. 다원예술 외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등의 장르는 예술 현장에서 통용되던 단어이며, 다원예술은 지원사업을 계기로 이후 예술 현장의 언어로 정착함
- 앞서 살펴본 대로 다원예술의 정의나 개념은 오랫동안 논의되었지만, 여전히 공식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여전히 모호한 지점이 있음. 다만 2006년~2007년 사이에 개념화된 다원예술의 정의는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창작 활동으로서, 탈장르 예술, 복합장르 예술, 새로운 장르의 예술, 비주류예술, 문화 다원주의적 예술, 독립예술 등을 중심적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제시된 바 있음. 또 2022년에 진행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지원사업에서는 “장르 예술로 규정할 수 없는 창작활동뿐 아니라, 현재 지원사업 체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창작유형에 대한 지원”과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창작 활동 지원”의 2가지로 구분되어 제시된 바 있음
- 2021~2022년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에서 예술가들은 한국 예술계에서 다원예술이 새로운 예술과 예술가를 탄생시키는 초석을 마련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가와 작품들을 포용하는 지원제도로써 작동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지원 정책을 통해 다원예술 분야에 참여하면서 다원예술 활동을 하였다는 의견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더불어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이유로 여러 장르가 융합되는 작업 방식에 대한 매력, 기존 장르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 기존의 권위와 위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음
- 다만 다원예술 자체만으로 활동하는 비중은 전체의 10% 내외이며 주로 프로젝트에 단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미뤄볼 때 다원예술이 장르 자체로 작동되기보다는 다양한 실험과 융합적 활동, 타 장르 예술을 결합한 동시대 융복합예술의 관계적 장르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는 창작자의 협업파트너가 대체로 타 장르 예술가 비중이 높고, 매개자와 영상 테크니션 등의 참여 비중이 높은 점이나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이 문화예술 활동기간보다 다원예술 활동기간이 짧아 다원예술을 통해 새로운 예술 활동으로 작품세계를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점 등에서도 타 장르 예술과의 결합을 통한 동시대 융복합예술의 관계적 장르로 작동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음. 또 다원예술 분야에 참여하는 예술가는 기성 장르 생태계의 폐쇄성, 고리타분함, 경직성 등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인해 다원예술 장르에서 활동하게 되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음
- 다원예술 분야 예술가들은 자신의 고유한 예술세계를 실험하고 확장하는 것을 넘어 기성 장르의 창작 메커니즘에 대한 한계와 제한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방편으로 다원예술을 선택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원예술은 다양한 실험과 융합적 활동, 타 장르 예술을 결합한 지원적 장르이자 관계적 개념으로서 다른 장르가 존재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영역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임
- 정책의 수혜자인 다원예술 예술가들이 희망하는 지원의 방식은 창작활동에 대한 직접 지원금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형식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발표와 쇼케이스, 워크숍 등을 위한 공간 지원, 작품

의 유통과 확산을 위한 플랫폼 프로그램 지원 등의 수요가 높게 나타남. 반면 아카이브나 매체 등 지속적인 활동과 교류를 위한 지원이나 타 예술가와의 교류/협력 지원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다원예술 활동 자체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한 것을 확인함. 동시에 정책의 지속성, 연속성, 유연성을 요구하며 특히 지원금의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지원과 지원예산 활용의 유연성 등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수행된 다원예술 현장 관계자 대상 질적 분석 결과에서도 다원예술은 “장르적 경계를 넘어 예술가의 고유한 작품세계 및 언어를 개발하는 예술”이며, 그 외에도 “기존 장르나 제도, 전통 내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새로운 실험예술”, “여러 장르를 하나의 작품에서 구현하는 예술”이라는 정의가 가능함. 개념적으로 실험성과 다양성이 가장 적합한 성격이라는 의견이 많아 결국 다원예술은 장르적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실험이 이루어지는 예술적 활동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틀을 깨는 융합적이고 다양한 작품이 구현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예술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다원예술의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음
- 종합하면, 다원예술은 다른 예술 장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는 관계적 개념이며, 다원예술 하나만 별도의 경계로 설명할 수 없고 기성 장르를 포괄하여 더 넓은 예술생태계의 한 주체이자 새로운 예술세계를 끌어내는 주체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그러므로 다원예술 정책 지원 역시 특정 장르 입장에서의 지원이 아닌 더욱 포괄적인 예술생태계를 고려한 지속성과 연속성, 유연성이 있는 정책 지원으로 변모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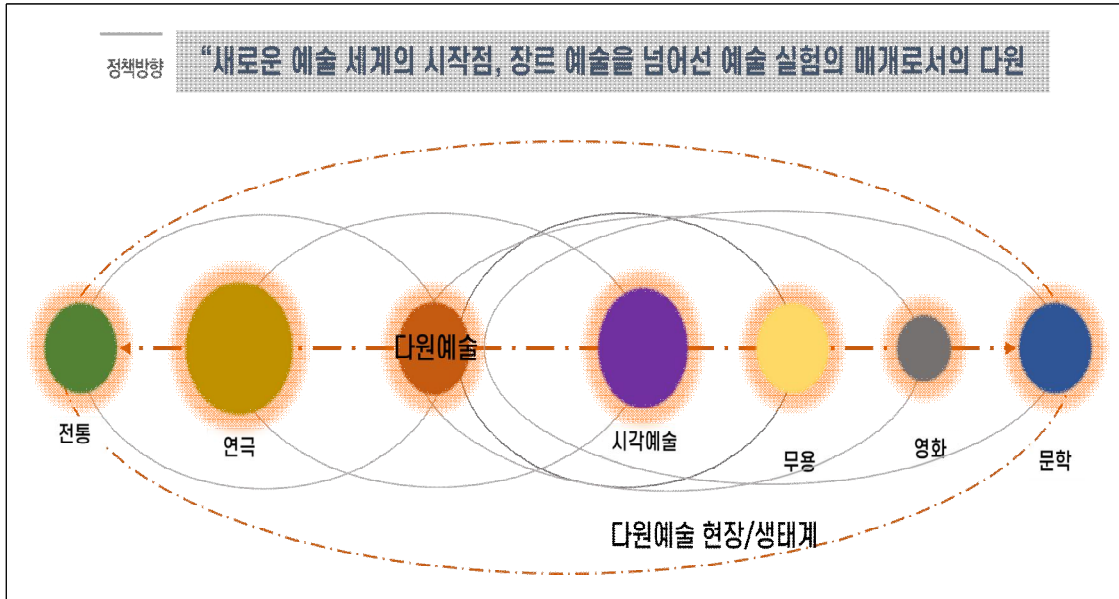
## 2. 다원예술 정책 지원의 방향성

- 앞선 검토를 통해 국내 다원예술 분야 지원제도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위상이 매우 높으며, 이를 다시 되짚어보면 우리나라 예술계에서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부족을 증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지금까지 다원예술 현장에 대해 다원예술의 예술적 경향과 흐름과 활동, 다원예술 창작자들의 수요 등을 토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에서도 한국 예술계에서 견고한 장르를 구축한 영역에서 새로운 예술적 시도로서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신청 및 활동하는 경향이 확인됨. 이를 통해서도 다원예술이 독자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예술계 전반과 상호작용하는 영역에 있다는 점을 확인함
- 특히 다원예술은 개별 장르로서 역할도 존재하나 우리나라 예술생태계에서 실험성과 다양성을 토대로 기존의 틀을 깨는 융합적이고 다양한 작품이 구현되어 새로운 예술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체이자 느슨한 관계의 연계를 바탕으로 예술 활동이 진행되는 장르라고 규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다원예술 정책 지원은 개념화된 장르적 특성, 작품 유형, 발표 방식에 따른 지원이 아닌 더욱 자유롭거나 확장된 영역의 지원으로 다각화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기성 장르를 포괄하여 더 넓고 새로운 예술세계를 끌어내는 포괄적 예술생태계를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 역시 확인됨
- 우리나라 예술생태계에서 다원예술은 연극, 시각예술, 무용 등 기존의 장르를 넘나들며 새로운 예술적 실험과 창작의 주체이자 타 장르와의 느슨한 연계를 통해 예술 활동을 진행, 확대하는 지원적 기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다원예술의 정책 역시 장르 중심적 정책 지원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예술생태계의 한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를 통해 다원예술은 더 새롭고 혁신적이며 다양한 가치를 담은 예술세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예술생태계를 선도하며 새로운 예술적 실험과 다채로운 예술 언어를 통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예술세계의 등장을 자극하는 시작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그림 5-1] 다원예술 정책의 방향 및 예술 생태계 개념도



- 이와 같은 다원예술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정책 지원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다원예술 정책을 장르 중심 지원에서 탈피하여 예술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예술 언어를 구현하는데 특화된 포괄적 장르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점에 정책 목표를 두고 단계적으로 지원방식을 다각화, 구체화함
  - 다원예술 창작자들의 예술 활동이 축제나 아트마켓 등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고 다양한 협력 주체와의 체계적인 협업 활동을 통해 수준 높은 다원예술 작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이 과정에 정책의 지원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함. 특히 예술가들이 아르코의 정책 지원을 일회성/단년 단위의 지원금 정책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위한 협력적 정책 파트너로서 인지하고 연속성을 가진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통합적 관점에서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아무리 잘 설계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와 예술 환경, 예술가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예술 현장과 정책 지원이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그러므로 현장의 수요가 정책에 반영되고 환원되는 피드백 모델을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해 지원사업의 과정 내에 수요 파악 및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정책 지원 체계 속에 포함하여 보완함

[그림 5-2] 다원예술 3대 정책지원 방향

<b>1</b>	<p><b>정책 목표의 구체적 설정과 지원방식 다각화</b></p> <p>기존 다원예술의 장르 중심 정책 사업에서 벗어나 예술 생태계를 선도하고 새로운 작품세계를 구축하는 포괄적 장르로서 다원예술의 특징을 고려한 정책 목표 설정. 즉 새로운 예술세계 확장을 지원하는 다원예술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새로운 다원예술 지원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지원방식을 다각화, 구체화함</p>
<b>2</b>	<p><b>다원예술 창작(현장)-확산(플랫폼)-협력(체계)-정책(지원)이 연계되는 확장적 생태계 형성</b></p> <p>다원예술 창작자의 예술 활동이 서로 다른 예술가, 기획자와의 협력에 따라 더 발전하고, 대내외적으로 확산되며 이를 정책이 지원할 수 있도록 다원예술 활동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 확장되는 생태계를 형성하는 인프라 및 지원 장치를 마련함 이를 통해 일회성의 자금 지원으로 끝나는 정책 지원이 아닌 다양한 예술적 실험으로 연결되는 성과의 주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p>
<b>3</b>	<p><b>현장의 니즈가 정책으로 순환되는 구조적 모델의 구축</b></p> <p>다원예술 현장의 니즈가 정책으로 순환되어 다원예술 현장에 피드백되어 다원예술 현장이 더 활성화되는 선순환 체계를 정책지원 프로세스에 도입함, 특히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과정의 일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관계자와 창작자, 매개자 등이 토론과 정책협의 과정을 통해 수요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모델을 마련함</p>

### 3. 다원예술 생태계 지원 정책과제(안)

- 앞선 도출된 3대 정책 방향에 따라 이를 구현할 6대 정책과제를 도출함
- 정책과제는 구체적 정책 목표에 따른 지원방식의 다각화, 다원예술 생태계의 확장적 활동 경로 형성, 현장의 수요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순환모델 구축 등의 3대 목표에 따라 설정하였음

[그림 5-3] 다원예술 6대 정책과제(안)

정책 목표	정책 과제
<p>목표 1</p> <p>다원예술 현장 활성화를 위한 <b>정책 목표의 구체적 설정과 지원방식 다각화</b></p>	<p>01 다원예술의 자생적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영역 확대</p> <p>02 단선적, 일회적 지원이 아닌 연속적 지원 정책 도입</p>
<p>목표 2</p> <p>다원예술 활동의 현장-유통-협력-정책을 <b>연계하여 다원예술 생태계의 확장적 활동 경로 형성</b></p>	<p>03 다원예술 현장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보/협업 DATA의 통합관리 지원</p> <p>04 다원예술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매개 인프라 발굴 및 지원</p>
<p>목표 3</p> <p>정책 지원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b>현장의 수요가 정책으로 순환되는 모델 구축</b></p>	<p>05 다원예술 활동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협치체계 구축</p> <p>06 다원예술 생태계 확장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정책수요 조사 실행</p>

## 가. 정책 목표의 구체적 설정과 지원방식 다각화

### 정책과제1. 다원예술의 자생적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영역 확대

#### ■ 창작과정 전 단계에 대한 제약 없는 지원정책 수용

- 다원예술 예술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다원예술 활동 경로의 시작으로 한 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다원예술 지원사업 참여가 계기가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뤄볼 때 다원예술 분야의 정책적 의존도를 유추할 수 있음. 또 다원예술은 다양한 장르 예술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장르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까지 포괄하면서 새로운 예술/예술가가 출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예술계에 큰 역할을 담당함
- 특히 장르적 특징이 강조되는 예술영역이 아니며, 타 장르와의 느슨한 연계와 관계적 개념에 따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예술적 실험이 목표인 다원예술 창작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가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지원 범위의 결정과 이행이 가능하도록 정책 방향을 수정함
- 특정한 창작유형, 창작단계 등 지원 범위에 따른 지원 결정이 아니라 사전조사 단계부터 창작과정-발표 등 작품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예술가가 필요한 요소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적 지원 외에도 협력 파트너 지원, 매개공간 지원 등 정책 지원의 영역과 방식이 확대되도록 함
- 다만 단기적으로 금전적 지원 외에 협력 파트너 지원, 매개공간 지원 등으로의 정책 확대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지원정책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책지원 영역의 확대를 도모하도록 함. 특히 지원정책의 확대는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를 전제로 해야 하므로 향후 3년 이내에 정책 영역의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지원방식 재정리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함.
- 이 과정에서는 다원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뿐 아니라 연구자, 관련 매개자와 평론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재조정하는 한편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역시 병행해야 할 것임
- **정책 도입 시기(안)**
  - : 2023년(지원정책 변경과 관련한 의견 수렴)
  - : 2024년(추가 예산 확보)
  - : 2025년~2026년(추가지원정책 도입, 전면적인 예술가의 자율적 지원방식 적용, 매개공간 지원, 협력파트너 지원 등 본격적인 정책 재설계 확정)

#### ■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목표와 경향성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의 유연한 적용

- 2021년과 2022년 지원 신청서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현재적 관점에서 다원예술 현장은 시각예술 및 전시 기반 공간에 대한 창작활동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또 최근 예술계 담론인 과정 중심 창작보다는 공연, 전시 등 결과물 위주의 발표 형태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와 함께 기존 예술작업이 수행하고 있지 못하던 새로운 고민과 실험을 볼 수 있는 등 다원예술은 우리 예술 현장의 새로운 혁신과 실험을 계속 추구하는 시작점 역할을 하고 있음
- 예술 현장의 흐름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양상 역시 계속 변화하므로 다원예술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예술 현장의 경향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 지



- 원의 유연한 적용을 최우선으로 지원 방향을 설계함
- 현재 다원예술 창작지원 사업은 연간 1회 진행되고 있으나 유연한 다원예술 지원을 위하여 연 2회 등으로 변경하고, 예술가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유연한 지원받는 대신 새로운 예술적 실험의 성과가 더 명확하도록 지원함
- **정책 도입 시기(안)**
  - : 2023년~2024년(관련 내용에 대한 대내외 의견 수렴, 추가 예산 확보)
  - : 2025년(전면적인 예술가의 자율적 지원방식 적용과 함께 연 2회 지원방식 추진)

## 정책과제2. 단선적, 일회적 지원이 아닌 연속적 지원정책 도입

### ■ 다원예술 예술적 성과에 따른 연속 지원 원칙 도입

- 현재 다원예술 지원은 연 1회, 당해 지원으로 종료되는 방식임. 이는 선정작의 상당수가 공연, 전시 등 결과물 위주의 발표와 같은 편중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특징 때문에 다원예술 지원이 지원금 확보를 위한 정책적 도구와 같은 인식을 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 그러나 예술 창작활동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으며 더구나 다원예술과 같이 여러 장르가 복합되고 새로운 예술적 실험을 전제로 수행되는 창작활동이 작품 기획부터 개발까지 단년도에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 성격의 다원예술 창작활동은 현재의 방식에서는 충분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음
- 따라서 예술가들이 다원예술 지원을 지원금 확보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예술적 작품세계를 탐색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원예술 현장에 대한 정책 지원을 다층적 방식으로 개선함. 즉 지원금 외에도 예술가가 희망하는 다원예술 창작에 필요한 매개자, 테크니션 매칭 지원 등 지원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또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연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다원예술 지원이 창작자들의 새로운 예술작품 실험을 진지하게 참여하며 지속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정책 도입 시기(안)**
  - : 2023년~2024년(관련 내용에 대한 대내외 의견 수렴, 추가 예산 확보)
  - : 2025년(전면적인 예술가의 자율적 지원방식 적용과 함께 연속 지원방식 추진)
  - : 2026년(지원 유형에 대한 예술가의 자가격 요구와 정책 파트너의 매칭 지원 추진)

## 나. 다원예술 생태계의 확장적 활동 경로 형성

### 정책과제3. 다원예술 현장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보/협업 DATA의 통합관리 지원

#### ■ 다원예술 생태계 구성원, 매개 공간, 발표 경로 등을 포괄한 통합 DATA 구축

- 다원예술 예술가는 같은 창작자 외에도 협업이 필요한 타 장르 예술가, 매개자, 매개 공간, 영상

및 음악 등 테크니션 등 다양한 창작 주체, 매개 인프라와의 상시적인 협력과 교류가 필수적임. 다원예술 창작자들이 작품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협력 주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원예술 관련 예술가와 협력 주체에 대한 통합 DATA를 구축하고 상시로 이를 관리, 운영함

- 다원예술 활동 예술가와 매개자, 테크니션 등의 인력 Pool뿐 아니라 매개 공간, 발표 경로로서의 유통과 확산 플랫폼까지 포괄하는 통합 데이터의 구축이 중요하며, 이 데이터를 토대로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예술가가 다원예술 창작과정에서 협력 주체를 요청하면 매칭해주는 지원사업으로 확대 가능함

- 정책 도입 시기(안)

- : 2023~2024년(다원예술 현장 생태계에 대한 통합적인 DATA 구축과 관련한 의견 수렴, 통합 DATA 구축 원칙 설정, 사업추진 예산확보)
- : 2025년(통합 DATA 구축 원칙에 따른 통합 DATA 구축 방식 결정 및 수행)
- : 2026년(통합 DATA 구축 및 사업 시행)

■ 지원사업 과정을 통한 다원예술 통합 DATA의 지속적인 관리 및 경로 추적

- 다원예술 현장의 흐름과 실험적 예술로서 다원예술의 양상을 상시적으로 확인하며, 통합 데이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사업 신청자 및 선정작에 대한 정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관리하여 다원예술 활동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현황에 대해서도 예술활동 경로를 확인함
- 통합 DATA의 관리와 경로 추적은 담당부서에서 담당하되,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경로 추적하는 과정은 전문가 협업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정책 도입 시기(안)
  - : 2025년(통합 DATA 구축과 연계하여 향후 데이터 관리, 예술활동 경로 추적 등을 위한 매뉴얼 수립)
  - : 2026년(통합 DATA 구축에 따른 사업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관리, 예술활동 경로 확인/연간 사업)

**정책과제4. 다원예술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매개 인프라 발굴 및 지원**

■ 다원예술 매개 공간 지원 확대

- 다원예술 창작물의 안정적인 개발과 발표 과정을 위하여 거점이 되는 다원예술 매개 공간 인프라를 지원함. 아르코에서 운영 예정인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마포새빛문화숲)의 일부를 다원예술 매개 공간으로 활용하여 작품 개발 단계부터 발표까지 단계별로 창작자들의 자유로운 예술활동과 교류를 위한 매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전체 공간의 20% 이내 정도로 활용)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를 다원예술 매개 공간 거점으로 활용하는 경우 다원예술 축제, 다원예술 창작/매개자 교류 행사, 다원예술 아트마켓 등 유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 공간을 통해 지원사업에서 발굴된 창작물의 지속적인 작품 발전, 확산을 도모하는 매개 인프라로서 역할 부여.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운영을 위해 책정된 예산에 일부 다원예술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추진함으로써 초기 매개공간 지원을 위한 초기 예산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활용을 고려함

- 또 일부 다원예술 매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민간 영역의 매개 공간에 대해서는 창작자들이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개 공간 지원 영역을 확대함
- **정책 도입 시기(안)**
  - : 2023년~2024년(관련 내용에 대한 대내외 의견 수렴, 매개공간 지원계획 수립/관련부서 협조)
  - : 2025년(다원예술 매개공간 지원 관련된 추가 예산 확보)
  - : 2026년(민간영역 다원예술 매개공간 지원 추진)

#### ■ 다원예술 작품 유통 및 확산을 위한 매개 지원정책 도입

- 다원예술 창작자의 다채롭고 실험적인 예술 활동이 대외적으로 유통, 확산될 수 있도록 다원예술 플랫폼으로서 창작물 발표 기회, 기록물 등에 대한 매개 인프라 지원을 병행함
- 또 다원예술 예술창작 활동이 심화될 수 있도록 매개 인력인 기획자, 제작자 등의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함. 해당 인력은 다원예술 축제, 교류 행사 등에 참석하여 현장 교육/매개 인력으로서 경력의 첫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공간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과정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및 프리젠틱 과정을 축제/문화행사 등과 연계하여 일반 시민과 여러 장르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다원예술 창작 작품에 관한 관심 확대 및 외연을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
- **정책 도입 시기(안)**
  - : 2023~2024년(관련 내용에 대한 대내외 의견 수렴, 매개 인프라 지원 지원계획 수립)
  - : 2025년(다원예술 매개 인력,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 : 2026년(다원예술 매개인력 교육/예술대학 협력 추진, 매개 인프라 지원 추진)
  - : 2027년(매개 인력 교육 사업 본격화)

## 다. 현장의 수요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순환모델 구축

### 정책과제5. 다원예술 활동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협치체계 구축

#### ■ 정책 현장과 창작 현장, 매개자 중심의 다원예술 프로젝트 운영

- 다원예술 현장의 요구가 정책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다원예술 지원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정책 관계자, 창작자, 매개자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와 정책협의 장으로서 아고라 프로젝트를 운영함
- 지원사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수렴하고 차기 지원사업에 창작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창구로써 활용함. 한편 정책의 입장에서는 창작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것 외에 정책담당자로서의 입장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상의하는 상호신뢰 기반의 협력적 기회로 활용
- 지원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관계자가 모두 모이는 오프라인 기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참여한 전 영역의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적 개선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다원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모이고, 확산하며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기회로 활용함
- **정책 도입 시기(안)**

- : 2023년~2024년(관련 내용에 대한 대내외 의견 수렴, 차기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 : 2025년(다원예술 지원 과정 수정, 아고라 프로젝트 수행)

## 정책과제6. 다원예술 생태계 확장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정책수요 조사 실행

### ■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리포트 발행 및 모니터링 진행

- 다원예술 창작 현장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지원사업 대상의 성과를 정리, 공유하는 연간 리포트를 작성, 발행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함
- 연간 리포트에는 지원사업의 성과뿐 아니라 다원예술 현장의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자(정책, 창작자, 매개자, 참여 시민 등)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비교하여 정책 자료로 축적/관리함
- 성과보고서는 지원대상 참여자의 자가작성 결과 리포트가 아니라 정책 지원의 결과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리포트가 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앞서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다원예술 현장의 특징을 고려하여 현장에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을 모니터링하도록 함
- 다원예술 지원사업 연간 리포트는 다원예술 통합 DATA와 함께 외부전문가와 협력하여 작성하고 정책담당자는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함
- **정책 도입 시기(안)**
  - : 2023년~2024년(대내외 의견 수렴, 과제 추진계획 수립, 연간 리포트 발행 예산 확보)
  - : 2025년(다원예술 지원 모니터링/정책 수요 연차별 계획 수립)
  - : 2026년(연간 리포트 및 정책수요 조사 본격 추진)

## 정책 추진 로드맵

- 앞선 도출된 3대 정책 방향에 따라 도출한 6대 정책과제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없으므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아래의 다이어그램과 같이 추진 로드맵을 수립함
- 정책과제의 단계별 추진 로드맵의 모든 단계는 정책적 필요와 변화에 대한 대내외의 합의와 공유를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준비단계를 포함하고, 사업별로 필요한 예산확보, 사업추진 계획 등 정책과제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후 과정을 고려하여 설정함
- 추진 로드맵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나 가능한 사전의 충분한 준비단계를 거쳐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 속의 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그림5-4] 정책과제별 추진 로드맵



## 4. 결론 및 제언

### ■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유지되어야 하는 정당성을 확인함

- 본 연구를 통해 다원예술은 다른 예술 장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는 관계적 개념으로서, 전체 예술계의 새로운 혁신과 실험을 지원하는 정책 영역의 역할을 해왔음을 확인함
- 예술지원제도의 맥락에서 접근해보면, 2021년 다원예술 사업의 복원은 현 장르 중심의 지원제도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새로운 예술의 출현을 위한 공공 지원의 토대가 다시 생겨났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예술 현장의 관계자들도 국가의 예술지원기관으로서 장르 중심 지원과 더불어 다원화된 예술 지원 트랙을 지속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에 대한 역할을 인정하고 기대를 드러냄
- 이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의 정책 트랙이 유지되어야 하는 정당성이 확인됨

### ■ 다원예술 정책 방향성을 합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다원예술은 정책 초기부터 현재까지 다원예술의 개념적 정의를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지속해서 현재적 의미를 지원제도의 범주에서 수용해옴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다원예술이 다른 예술 장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하는 관계적 개념이라는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 정책 관계자, 예술 현장과의 합의의 과정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새롭게 다원예술 정책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정책 트랙을 유지하는 것을 합의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이는 다원예술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요한 미션이라 할 수 있음

### ■ 플랫폼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다원예술 선순환 구조를 마련함

- 블랙리스트로 인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이 중단된 시기에 대표적인 다원예술 플랫폼이 활동을 멈추었고, 현재는 주요한 다원예술 플랫폼이 확인되지는 않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창작 중심의 다원예술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다원예술의 유통과 확산을 위해서 민간의 공간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책적으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마포새빛문화숲)와 같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의 플랫폼 자원을 일부 활용하는 것도 초기적 접근의 하나로서 제안함

### ■ 다원예술의 현재성을 주목하는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

- 다원예술의 초기 정책 연구는 다원예술의 개념을 위주로 한 담론적 성격의 연구로 진행됨
- 이제는 새로운 예술세계에 대해 지속해서 현재성을 주목하는 다원예술의 현재성 연구로 방향이 전환되어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다원예술 현재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다원예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다원예술 생태계 현황, 다원예술의 현재적 의미 등 새로운 정의와 기준을 도출하여 다원예술 정책 개선 및 사업기반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 **다원예술 담당 부서의 체계적 지원이 중요함**

- 2023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원예술을 담당하는 부서가 융합예술부로 변경됨
- 정책 연구, 창작지원, 플랫폼 운영, 현장 의견 수렴 등 다원예술 지원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하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해봄

## 참고문헌

---

1. 기본좋은트렌드하우스 QX(2006). 다원예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12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2006). 제1차, 제2차, 제4차 월례포럼 발제문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2007). 2007 다원예술위원회 포럼 새장르공공예술의 공공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6.4.
4. 우주희 외(2007). 다원예술의 조류와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7  
서울프린지네트워크(2008). 다원예술창작현황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12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8). 예술지원정책 릴레이토론회 시각예술·다원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7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8). 예술지원정책 릴레이토론회 시각예술·다원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7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기 위원회 백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12.5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몸끝(2013). 다원예술의 현황과 전망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4
9.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1).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공모 지원신청서, 선정 결과보고서, 모니터링 보고서, 사업평론문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1). 2021 다원예술 포럼 다시, 다원 : 2021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탄생과 복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3.16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2). 2022년 다원예술창작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TF(2023). 2022년 다원예술 TF 백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1



## <부록 1> 다원예술 자가정의 주요 키워드 : 2021년 선정작

	키워드 1	키워드 2	키워드 3	키워드 4	키워드 5	키워드 6
1	상호성	창조성	예술적 언어	실현의 과정	interdisciplinary	
2	복합적 영감	여러 가지 방식의 표현	종합적 스토리텔링			
3	여러 개의 근원	융합예술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의 조합			
4	다양한 예술장르	새로운 예술형식	다양성	순수성		
5	혼합	여러 가지 아이디어				
6	화학적 결합	새로운 영역의 발굴	새로운 플랫폼	상식의 규칙	미학적 조합	새로운 가치 혁신
7	다양한 장르	다각화된 작업물	전문성	자유로운 발표 형식		
8	다양한 장르	새로운 분야	예술인의 다양성			
9	새로운 접근	다양한 예술적 가치	창작지와 감상자의 융합			
10	모방에서의 창조	하나의 감정				
11	새로운 형식의 예술	유연한 경계	다양성	실험성		
12	복합적인 예술	새로운 장르의 탄생	예술의 일반화	자율적인 창작의 형태	행위자와 관객의 구분 없음	
13	모른다					
14	장르적 모호성	융복합성	계속 변화하고 확장	비주류	새로운 문화생태계	벽을 허무는 예술
15	새로운 접근방법	여러 예술적인 가치	내재적 자율성	정당한 공공성	다양한 자극	
16	모든 예술	의미를 구현하는 방식	삶의 형식	삶의 가치		
17	융합 예술	21세기 예술의 비전				
18	새로운 분야	예술적 실험	기존예술의 고정 관념 넘어서기	독립	소수	실험예술가
19	비상업적	자유로운 실험	상호성	아방가르드	전위성	다매체성
20	예술의 연장선	독창적	새로운 시도			
21	예술의 다방면적 역할					

22	다양함	자유로운 형태	새로운 것	다채로운 형식	공공성	
23	탈경계적인 실험	동시대성				
24	자발성	독립성	새로운 접근	지형의 확장	경계 해체	시대성
25	독립성	다양성	지속가능성	하나의 완결된 예술 작품		
26	실험적 시도	장르 예술을 새롭게 재구성	새로운 장르 형성			
27	장르적 확장	다원적 보편주의	장르적 평등성			
28	매체에 대한 새로운 표현	다채로운 담론				
29	경계에 서있는 예술	실험적인 형태	새로운 감각	내밀한 경험 공유		
30	대중들에게 친절	삶을 고려하는 예술	복합예술	그 자체로 고유한 예술		
31	실험적인 예술	다양성 증진	문화다원주의적 공공성			
32	문화 융복합					
33	복합장르예술					
34	다양성	실험	창작자만의 예술 세계	사회로 환원되는 예술	다양한 가치 창출	
35	시너지	여러 종류의 예술				
36	비판적 태도	수용	폭넓고 열린 태도			
37	참여	협력	평등한 관계			
38	생경함	전복	융합	동시대	새로운 시각	
39	고정된 예술에 대한 개념 탈피	과정	다양한 실험			
40	인터페이스	다양성	혼종	개방형	독립성	
41	여러 개의 근원	새로운 예술 양식				
42	주제 예술	예술적 담론	관객의 주체성	사회적 현상 융합		
43	예술의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	인간성 회복	다각화된 표현과 실험			
44	다층적 레이어	다양한 관점	새로운 담론	실험적 탐구	문화적 다양성	
45	기존 관습 타파	새로운 방식				
46	경계 재건축	예술인의 주관적 세계				

47	새로운 사유의 방식	경계 흐리기	윤리적 감수성	책임감		
48	포괄적인 예술의 형태					
49	여러 장르	관객 참여	다양한 예술적 가치	새로운 접근		
50	새로운 미적 경험	새로운 융합 예술	이방가르드	예술의 본질		
51	미적 쾌에 집중					
52	장르적 실험성	대안적	연결	예술의 역할 확장		
53	심리적 역동	느끼고 있는 자신	경험			
54	동시대	인간의 표현	유동적인 매체의 선택과 혼합	소통		
55	보통의 삶	일상의 소재				
56	정반합	메타미디어적 형식	공공적 가치			
57	다양한 출발점이 있는 예술	장르의 벽 허물기	관객과 어우러지기			
58	연결					
59	전형성에 대한 도전	숨쉴 수 있는 모종의 숨통				
60	장르로 규정할 수 없는 예술	새로운 매체				
61	장르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예술	장르의 재구성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경험			
62	통섭	장르별 크로스오버	새로운 패러다임			
63	탈장르적 융합성	시장 안에 포섭되지 않는 예술	다양성	다른 존재들 간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예술		
64	시대적 요구의 문화 현상	새로운 접근	정반합	새로운 시너지	시대적 감각	형식적 탐구와 실험

65	탈물질화된 매체	예술의 실험성				
66	다원주의	수평성	동등한 가치	장르의 구분 없는 예술		
67	다양한 예술의 경계 넘기	예술 향유				
68	다른 시도를 갖는 예술	현 시대와 연결성을 가진 예술				
69	주체적 재해석	상호보완적 관계	실험성	우연성		
70	장르간의 경계를 넘는 예술	새로운 창작 시도				
71	transdisciplinary arts	새로운 장르로 변이	테크놀로지			
72	탈 경계성	융합과 실험	비예술분야와의 융합	실험성	비주류	
73	탈장르를 위한 매체적 성찰	시공간적 실험				
74	비가시적인 형태들의 해방된 사유행위	새로운 비평적 시각을 수렴하는 것				
75	근원이 다른 예술의 결합					
76	작품 자체로 바라보는 태도	공생				
77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복합 양식	실험적 정신	새로운 개념 표출			
78	탈장르적 실험	고정된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예술 형식	기술			
79	공동실험과정	동등한 권한으로 참여	과정으로서 정의			
80	탈장르	복합장르	새로운 장르 형성	비주류	다양성	평등
81	다차원적 사고	미래의 예술				
82	자유로움	장르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	새롭게 설계하는 영역			

83	다양성	창작예술의 발판	신선한 예술적 교류	각기 다른 표현 방식		
84	예술의 개념 확장					
85	동시대	사회적 가치	장르에 대한 새로운 실험			
86	새로운 장르의 예술					
87	복합적인 매체	다양한 예술적 가치	예술의 운동적이고 확장적인 성질			
88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비를 드러내는 작업	새로운 정의와 호명을 갈라내는 예술 작업				
89	작가의 주제 의식과 시도	새로운 예술				
90	다원적 사고방식	다원적 표현방식				
91	새로운 창작의 방향	다양한 표현 수단				
92	작가만의 또 다른 장르	창의적 표출				
93	새롭게 재구성하는 창작활동					
94	우연적 상황과 행위	실험성	예술의 협업지점			
95	새로운 장르를 창작					
96	자유성	새로운 방식으로 표출				
97	다품종 소량생산	비주류	사각지대			
98	트랜스 미디어	수평성				
99	시대성	유효한 언어				
100	예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품을 수 있는 세계	실험				

## <부록 2> 한국 다원예술의 생태계 진단 및 지원방안 연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안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통해 다원예술 생태계를 공고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다원예술의 지형과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사업 수요를 확인하여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정책 개선 및 사업기반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상 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귀하의 의견을 책임을 가지고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조사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사시행 : ㈜메타기획컨설팅

\*본 설문은 약 10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성실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응답자(설문 마지막 페이지 응답 기준) 중 선착순 200분께 3000원 상당의 커피 모바일 기프티콘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응답자 기본정보

SQ0. 귀하께서는 다원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시거나,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평소 다원예술에 관심이 있어 본 정책 제언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① 예 (→설문 진행) ② 아니오 (→설문 중단)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③ 응답하지 않음

SQ2.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SQ3. 귀하께서 예술영역에서 활동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3년 이상 5년 미만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⑤ 15년 이상

**SQ4. 귀하가 예술 활동을 하는 주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인천/경기                      ③ 충청권(대전,세종포함)                      ④ 경상권(대구,울산,부산포함)  
⑤ 전라권(광주포함)                      ⑥ 강원                      ⑦ 제주                      ⑧ 국외

**SQ5. 귀하는 정규교육과정(대학교, 대학원)에서 예술 관련 학과를 전공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대학교                      ② 대학원                      ③ 대학교및대학원                      ④ 전공한 적 없음

**SQ5-1. 귀하의 최종 학위에서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 ① 인문사회                      ② 자연과학                      ③ 공학                      ④ 무용체육  
⑤ 연극영화                      ⑥ 미술                      ⑦ 음악                      ⑧ 응용예술  
⑨ 교육                      ⑩ 기타 (                      )

**SQ6. 귀하의 주요한 문화예술 활동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활동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나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창작/발표 활동 : 개인/단체가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공연/전시/발간 등의 발표를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② 교육활동 : 예술전문교육단체 및 기관, 예술단체, 협회 등에서 창작/공연/전시/발표 활동 등을 위해 교육하는 활동  
③ 기획/경영 활동 :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협회 등에서 경영과 기획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실무 활동  
④ 평론/이론 활동 : 창작/공연/전시/발표 활동에 관련한 평론/이론 활동  
⑤ 홍보/마케팅 활동 : 창작/공연/전시/발표 활동에 관련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  
⑥ 기타 활동 : 공연장, 전시장, 매개공간 운영 활동 및 기술(조명,음향 포함) 활동

**SQ6-1. 귀하께서는 어떤 문화예술 장르에서 활동하십니까? 귀하의 문화예술활동이 속하는 분야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응답)**

- ① 문학                      ② 시각예술                      ③ 사진                      ④ 건축  
⑤ 전통예술                      ⑥ 음악                      ⑦ 연극                      ⑧ 무용  
⑨ 영화                      ⑩ 기획/경영/정책                      ⑪ 기타 (                      )

**PART 1. 다원예술의 정의와 현재성 인식**

**1. 귀하는 아래의 다원예술의 정의 중에서 어디에 '가장' 동의하십니까?**

- ① 다원예술은 기존 장르의 제도 및 전통 안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새로운 실험을 하는 예술이다  
② 다원예술은 음악, 연극, 시각예술 등 여러 장르를 하나의 작품에서 모두 구현하는 예술이다  
③ 다원예술은 장르적 경계를 넘어 예술가의 고유한 작품 세계 및 언어를 개발하는 예술이다  
④ 다원예술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 및 공공성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예술이다  
⑤ 다원예술은 기술, 메타버스, 기후위기 등 동시대의 주요 의제와 쟁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예술이다  
⑥ 기타 (                      )





2. 귀하의 다원예술분야 활동유형의 주요한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창작/발표                      ② 행사/기획                      ③ 워크숍
- ④ 교육                              ④ 자료발간                      ⑤ 기타

3. 귀하의 문화예술작업에서 다원예술영역에 포함되는 작업은 전체 활동의 몇%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20%                      ② 21%-40%
- ③ 41%-60%                      ④ 61%-80%                      ⑤ 81%-100%

4. 귀하께서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신청하거나 다원예술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개)

- ① 기존 장르 중심 예술계 특유의 권위와 위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 ②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을 기존 장르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 ③ 여러 장르가 혼합되고 융합되는 작업 방식에 매력을 느껴서
- ④ 다원예술 작업을 통해 국제 무대로 나아가기 용이해서
- ⑤ 내가 주로 교류하는 동료들이 다원예술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 ⑥ 기타 (                      )

5. 귀하께서는 '다원예술영역'에서 창작활동을 얼마 동안 하셨습니다?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3년 이상 5년 미만
-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⑤ 15년 이상

6. 다원예술 관련 활동을 지속하는 방법 및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우선순위 2개)

- ① 국내외 미술관, 공연장, 페스티벌 등의 작품 초청
- ② 관련 기관, 매개공간의 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작품 발표
- ③ 온라인 플랫폼, 뉴미디어 등을 통한 작품 게시
- ④ 콜렉티브 결성을 통한 네트워크 소개
- ⑤ 기타 (                      )

7. 귀하께서는 다원예술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할 때 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활동하십니까?

- ① 주로 개인적으로 활동함 (8번으로 이동)
- ② 프로젝트에 단발적으로 참여 (7-1번으로 이동)
- ③ 콜렉티브 형태의 느슨한 연대 방식으로 참여 (7-1번으로 이동)
- ④ 단체, 기관, 회사 등에 소속되어 활동함 (7-1번으로 이동)
- ⑤ 기타 (                      )

7-1. 귀하의 창작 과정에서 주요하게 협업하는 파트너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선순위 2개)

- ① 같은 장르 예술가    ② 타 장르 예술가                      ③ 문화예술매개자(기획자, 평론가 등)
- ④ 영상, 테크니션    ⑤ 다른 학문 분야의 연구자    ⑥ 문화예술 행정    ⑦ 기타

**8. 다원예술영역의 창작활동에 대한 비평과 피드백은 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받으십니까?**

- ① 현장에서
- ② 전문비평 매체
- ③ 개인/단체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및 블로그
- ④ 동호회, 단체의 카페
- ⑤ 기타 (                    )

**9. 다음 중 귀하가 다원예술 창작활동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는 곳이 있습니까? 있다면, 모두 표시하시고 최대 3개까지 명칭을 작성해주십시오. (복수응답)**

	구분	기관명, 사업명, 공간명 (예시, 신촌극장, 읍신, 예술청 등)
①	창작활동에 대한 기금 지원기관	
②	공연장, 전시장, 대안공간 등 발표/쇼케이스/워크숍 공간	
③	작품을 유통, 확산하는 축제/행사/프로그램	
④	동료 예술가와 창작 교류하는 협력 공간	
⑤	아카이브와 비평 매체 등 다원예술 지식활동 및 교류 공간	

**9-1. 9번 질문의 5개 영역 중에서 다원예술을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개)**

- ① 창작활동에 대한 기금 지원기관
- ② 공연장, 전시장, 대안공간 등 발표/쇼케이스/워크숍 공간
- ③ 작품을 유통, 확산하는 축제/행사/프로그램
- ④ 동료 예술가와 창작 교류하는 협력 공간
- ⑤ 아카이브와 비평 매체 등 다원예술 지식활동 및 교류 공간

**10. 귀하가 다원예술 한 작품/프로젝트를 창작(준비-창작-발표)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하십니까?**

- ① 6개월 이하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3년 미만
- ④ 3년 이상                    ⑤ 잘 모르겠다                    ⑥ 기타 (                    )

## PART 3. 다원예술 지원사업 수요

1. 귀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사업에 신청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래 해당연도를 선택해주세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복수응답)

- ① 2006년-2008년    ② 2009년-2014년    ③ 2021년-2023년    ④ 없음(2번으로이동)

1-1. 1번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지원받은 최대 금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500만원 미만  
②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③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④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⑤ 지원받은 적 없음 (2번으로 이동)

1-2. 1번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어떤 역할로 참여하셨습니까?

- ① 창작자    ② 기획자    ③ 실연자    ④ 연구자    ⑤ 교육자  
⑥ 공간운영자    ⑦ 기타 ( )

2. 귀하께서 다원예술영역의 작업 활동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제외한 타 기관 지원사업(지역문화재단, 타 문화예술기관 등)에 신청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래 해당연도를 선택해주세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복수응답)

- ① 2006년-2008년    ② 2009년-2014년    ③ 2015년-2020년  
④ 2021년-2023년    ⑤ 없음(3번으로 이동)

2-1. 2번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지원받은 최대 금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500만원 미만  
②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③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④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⑤ 지원받은 적 없음 (3번으로 이동)

2-2. 2번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지원받은 기관과 사업명을 작성해주세요.

(예시: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비넥스트, 두산아트센터 두산아트랩, 국립극단 작품개발사업 등)  
( )

3. 귀하께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지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2005년 다원예술 지원제도 도입 이후 다원예술 사업의 성과 및 결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한다.  
② 국가의 예술지원기관으로서 장르 중심 지원과 더불어, '다원화된' 예술 지원 트랙을 지속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③ 다원예술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 및 공공성을 널리 알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더욱 필요하다.
- ④ 예술의 국제적 흐름에서 다원예술의 영역이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 ⑤ 지속되지 않아도 된다.
- ⑥ 기타 (            )

**4. 앞으로 다원예술 사업의 지원 규모는 현재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개)**

- ① 다원예술 사업 내에서 세분화된 유형별 지원 개발
- ② 개별 예술 활동 지원 뿐만 아니라 단체/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유형 신설
- ③ 예술가들의 교류 및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쇼케이스 기획
- ④ 지원 예산 및 선정 건수 확대
- ⑤ 새로운 예술 실험을 위한 유연한 예산 편성
- ⑥ 기타 (            )

**5. 다원예술영역의 창작활동에서 공공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개)**

- ① 창작 지원 규모 증액
- ② 다원예술 창작 및 관객 개발을 위한 다원예술 플랫폼(축제, 공간 등) 지원
- ③ 공공/민간 기관(극장/미술관/축제)의 다원예술 유통 기회 확대
- ④ 다원예술 특성의 예술가 정보교환 및 교류 목적의 네트워크 지원
- ⑤ 다원예술 아카이브 및 비평 활성화
- ⑥ 기타 (            )

**6.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의견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주관식, 300자 이내)**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 다원예술의  
생태계 진단 및 지원방안 연구

---

발행인 : 정병국

발행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전화 061-900-2100, 2200

팩스 061-900-2362

홈페이지 [www.arko.or.kr](http://www.arko.or.kr)

인쇄일 : 2023.02.17.

발행일 : 2023.02.17.